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화가 치밀어도 욕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월 20일) 2018년 3월 7일 수요일

훈풍 맞은 남북관계 불자지성 교류 확대

교불련 창립 30주년 맞아 北조불련 연대 밝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자지성인들의 결집체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창립 30돌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발걸음을 딛는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2월 27일 서울 대원정사에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불련 측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명의 축하전문이 도착했다. 30주년을 기념해 교수불자회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간 협력과 연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불련 측은 매년 열리는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창립 30주년 기념 '남북교수불자대회'로 북한에서 개최하며 이를 위해 교불련 교수들이 북한을 사전 방문함과 동시에 북측 사찰순례와 불교문화재 공동연구 등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불련의 30주년 기념사업 연대는 2017년 남북평화교류 사업을 준비해 온 교불련이 조불련에 2월 7일과 13일 제안 서한을 보낸데 이어 조불련 측이 평창올림픽 기간인 2월 23일 차금철 서기장의 명의로 '교수불자회-조불련 관계 활성화' 답신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차금철 조불련 서기장은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 사이에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귀 연합회와 우리와의 연대활동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과 남의 불자들, 지성인들이 힘을 합치면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7일에는 재차 축하서한을 보내 "창립 30돌을 맞아 새 출발에 나서는 남측 교수불자회와 북측 전국신도회 사이의 긴밀한 연대는 민족 화해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교류협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익섭 회장은 "10년간 단절된 남북관계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물꼬를 텄다면 교수불자연합회가 불교교류를 중심으로 남북평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종단을 불문한 교수불자연합회의 장점을 살려 우선적으로 불교학술교류 및 불교문화재 조사 등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그동안 교불련은 각종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 등 교불련만이 할 수 있는 실천을 해왔다. 하지만 30년이 넘어 전환기적 고뇌 끝에 지식인의 결집체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하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30주년 회고사를 발표한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전임회장)는 "교불련은 창립 10주년인 1998년 국난극복을 위한 불교와 자비실천 학술대회, 2008년 세계종교와의 대화, 기독교계와 공동대회 등 교수들의 신행모임을 넘어 불교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대학생 불교동아리 후원, 불교미래포럼 등의 노력을 더욱 배가하고 시대 과제를 반영해 역동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불자연합회는 한국사회 민주화에 대한 범사회적 동참이 요구되던 1988년,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모여 창립했으며 현재 전국 250여 대학 2000여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불교미래포럼을 조직해 불자 지성인 네트워크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등 각 종단 대표들이 고문으로 있다.

교수불자연합회 30년 연표

1988년	창립총회(대원정사)
1990년	제1회 한일불교학술회의
1997년	독일 한국불교문화예술제
2000년	중국 선종학술대회
2002년	한국교수불자대회
2004년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
2006년	제1회 불교 · 기독교 교수 학술회의
2011년	대학생불교동아리 지원
2016년	불교미래포럼 창립
2018년	남북 공동학술대회 추진

올해 교수불자대회 북한 개최 추진
북한사찰 순례 및 문화재 조사도
교불련 서한에 2차례 조불련 화답
조불련 측 "민족 중심 역할할 것"



'대한독립만세! 만세…' 대한의 자주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3 · 1운동이 99주년을 맞았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범어사 상마 마을에 위치한 3 · 1운동 유공비 앞에서 기념식을 봉행하고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1919년 3 · 1운동 당시 범어사 내 불교학교의 학생 41명이 전개한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서다. 교직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헌공다례는 정진완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 대표, 학생 대표 순으로 헌향, 헌다가 진행됐다. 사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3월의 크리스마스 → 스노우 페스티벌

논란된 패럴림픽 한류축제
불교계 반대로 명칭 수정

본지 인터넷 보도 이후 반향
불교계, 주최 측에 항의방문
공공기관 종교중립 유지 당부
道 사과 "오해 없도록 하겠다"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가 당초 발표한 '3월의 크리스마스' 홍보문구(왼쪽). 불교계 항의 이후 '3월의 스노우 페스티벌'로 수정됐다.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가 패럴림픽 기간에 개최하는 한류축제 명칭을 '3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스노우 페스티벌'로 정정했다. 이는 본지 인터넷 보도(2월 23일자) '패럴림픽서 왜 예수탄생 축하를?' 이후 조계종이 양측에 항의방문하며 이뤄진 결과다.

현재 페스티벌 홈페이지 주소는 '크리스마스 인 마치(christmasinmarch.com)'에서 '스노우 인 마치(snowinmarch.com)'로 변경됐으며, 행사 공식명칭도 '3월의 스노우 페스티벌'로 수정됐다. 조계종과 월정사의 항의방문에서 주최 측은 이미 홍보가 끝나 공식명칭 변경에 난색을 표했으나 종교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점을 사과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향후 제작될 현수막에도 스노우 페스티벌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기존에 배포된 홍보자료는 어쩔 수 없지만 공동주최하는 관광공사와 논의를 통해 행사 명칭을 수정했다. 행사 기획단계에서 크리스마스가 눈과 축제를 연상시킨다는 해외관광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발생한 일이었다"며 "결코 특정종교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 올림픽보다 비교적 관심이 낮은 패럴림픽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강원도 문화 상품화에서도 사찰과 템플스테이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불교계를 등한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축제에 참여하는 한류스타 이동욱 · 장근석 씨가 재능기부를 해주셨다. 더 이상 행사에 대한 오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불교계 홍보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주최 측의 사과와 발 빠른 대처에 불교계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행사가 본 취지에 맞게 개최되길 기원했다.

월정사 측은 "공식명칭 변경이 어렵다고 했을 때 패럴림픽조직위원회(IPC)에 의견을 물어야 할지까지 고민했다"면서 "다행히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다. 3월의 스노우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객들이 패럴림픽을 관람하면서 한류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강원불교계는 크게 반발했고, 조계종 사회부와 평창 월정사는 2월 26일 강원도청과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해 명칭 시정을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정유년 동안거 해제 운수납자 만행 나서

조계종 94개 선원서 2000여 수좌들 정진

불기2561년 정유년 결제에 들어간 동안거 해제가 3월 2일 전국 조계종 100여 선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 정진 대중현황을 정리한 '정유년 동안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안거에는 전국 94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7 · 비구니선원29)서 총 2,032명(총림286 · 비구1,108 · 비구니638)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동안거 해제를 맞아 "파도에 백번 밀려나도 다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돛단배가 마침내 순풍을 만나 신대륙에 도착하듯이, 수행자는 번뇌망상이 팥죽 끓듯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는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화두가 순일해지고 마침내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이어 "화두를 챙길 때는 아주 또렷하게 화두의 의심을 지어가야만 가지가지의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고 혼침(昏沈)도 달아나 버린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거나 게으른 생각이 있으면 화두는 벌써 십만 팔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과거의 습기(習氣)로 인한 다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서 주인노릇을 하고 있게 된다"며 "견성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大信心)과 불타는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내어,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정 · 방장 동안거 해제법어 A6〉
윤호섭 기자

1187호 INDEX

시방세계 A5
나우회 재현전 준비 日답사 현장



기획연재 A7
4차산업과 불교-암호 화폐

기획연재 A9
사찰경영산문에 들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불교계, 대통령 초청 국가기원법회 추진

종단협,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 기원 주제로

4월 중순 서울 내 호텔서
국민평화 · 행복사회 기원코자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봉행
문화공연 · 지화 등으로 장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계가 4월 중순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을 기원하는 대통령을 초청 법회를 추진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27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불기2562년 제54차 정기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기원법회 추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국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협은 4월 17~20일 중 서울시내 호텔서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재가불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법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회는 문화공연과 기원법회, 공양 순으로 진행되며, 범패 · 화청 등 불교의식을 강조하고 전통장엄등과 지화 등으로 장엄될 예정이다.

회의서는 종단협 산하단체 가입 규정을 강화하고, 협회 위상에 맞는 불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산하단체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설립일 만 3년 이상 △불교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 △운영규정이 갖춰져 재정자립을 이룰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 변경의 건에서는 상임이사가 천태종 前 총무부장 월도 스님에서 현 총무부장 월중 스님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지난해 말 감사를 맡은 종단인 (재)일붕선교종과 총화종, 원융종서 각각 총무부장 원공 스님, 교육원장 법만 스님, 총무부장 홍법 스님에 대한 감사 추천이 보고됐다. 2017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9억5624만9157만원, 특별회계 5억4345만5295원으로 결산됐으며, 최근 화마를 입은 법화종 통영 안정사의 요사채 복구를 위해 협회가 적립해둔 긴급재난구호기금 1억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계 역사와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세미나 · 포럼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설정)도 같은 날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 조직 발전방안을 논의할 출 · 재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회장 설정 스님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사장 홍파 스님과 사무총장 향운 스님, 미륵종 부원장 혜륜 스님, 손안식 · 이건호 · 장세동 · 백명숙 이사가 참여한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한일불교협의회에 재가이사님들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 하지만 불교는 사부대중인 만큼 재가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소위원회를 바탕으로 참신한 기획을 내 한일불교 교류 발전에 힘써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협의회 신임이사장으로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재임됐다. 또한 지난해 속리산 법주사서 개최키로 했다가 남북정세 악화로 연기된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오는 6월 25~28일 열린다. 특히 올해는 양국 청소년 교류를 위해 국내 종단소속 학생부 또는 종립학교 학생을 방학기간에 4박5일간 일본으로 보낼 예정이다.

회의서는 총지종의 부회장 종단 승격 요청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총지종은 회의에 불참했다. 감사 혜륜 스님은 "총지종이 공문을 보내는 등 부회장 종단 승격을 요청했는데 사무처는 이를 무시하고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사장 홍파 스님은 "안건은 요청한다고 다 채택할 수 없다. 총지종은 협의회에 공헌한 바가 없고, 참여도도 좋지 않다"면서 "총지종의 부회장 승격 요청은 이사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승가대 새 총장 성문 스님 임명

학교법인 승가학원, 만장일치로



중앙승가대 신임 총장에 조계종 前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설정)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112차 이사회를 열고, 제7대 총장에 성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앞서 대학평의회는 총장후보로 원행 · 성문 · 원종 스님을 추천했으나 이날 원행 스님은 후보직을 사퇴했다.

성문 스님은 고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일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굿고계를 수지했다. 제10~12대 중앙종회의원,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16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중앙승가대 1기생으로서 4~6대 동문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튿날 설정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승가대학 존립이 한국불교 존립이라고 생각하고, 뜻을 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인 조계종과 태고종. 최근 양측 집행부는 조계종 총무원서 만나 화합을 강조했다. 사진 좌측이 조계종 집행부, 우측이 태고종 집행부다.

조계-태고종, "일불제자로서 화합을"

총무원장 간 환담, 미래지향적 자세 필요에 공감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법정공방을 주고받으며 좁처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양 종단 행정수반들이 만나 화합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월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집행부 예방을 받고, 일불제자로서 갈등이 아닌 화합의 자세로 불교발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먼저 "우리나라 불교계 종단이 수십, 수백여 개다. 개별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좋지만 신앙집단은 함께 모여 수행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갈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분열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해관계부터 내려놓는 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에 편백운 스님은 '불교 대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불교종단들이 화합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적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불교 대화합' 선언을 서로의 임기 내에 이뤄보고 싶다"고 화답했다.

설정 스님은 〈화엄경〉과 원융회통 사상을 강조하면서 "일불제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자리이타라는 정신에 충실하면 화합은 어렵지 않다. 과거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접근하자"고 덕담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관계 두 개의 갈대단이 의지하여 서있듯

*삶은 관계의 반복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시작하여 가족, 친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웃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관계의 윤회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철저히 혼자이면서도 이웃과 함께 해야만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입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Cast Away)'에서 주인공 척 놀랜드(톰 행크스)는 비행기 사고로 조난당해 무인도에서 힘겨운 4년을 보내고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약혼녀 캘리의 사진이 들어 있는 목걸이를 볼 때마다 살아야 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이웃이 있어야 자비심도 생기고 이웃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疏遠)하거나 진정성이 없거나 불편하면 무인도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관계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며 행복의 요인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팀은 1938년부터 72년 동안 724명의 남성 인생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연구대상은 두 개의 집단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 268명과 보스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소년 456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상태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수만 페이지의 빅데이터에서 얻은 분명한 메시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산다. 고독은 매우 해롭다. 관계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하다. 갈등관계는 오히려 해롭다."

하버드 대학교 인간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은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탐욕, 인색, 분노, 저항같은 부정적 감정은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관계가 불편할 때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고, 나를 내세워 저항하지 않으면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지옥이 극락으로 바뀝니다.



그림 · 조향숙
주제 · 소통 / 모노타입 판화

*잡아함경에 의하면 두개의 갈대단이 서로 의지하고 서있듯 삼라만상 두두물물(森羅萬象 頭頭物物)은 상의상존(相依相存)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 삶의 뜰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상의상자(相依相資) 관계 속에서 활짝 웃는 행복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 화엄의 꽃장엄은 연화장세계이며 광명의 극치입니다.

원만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바라밀수행(육바라밀, 십바라밀)의 첫 덕목 '보시'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불교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일평생 유마의 삶을 꿈꿔온 한 재가 수행자의 공부처!

숫타니파타 독후감 '청년 붓다'를 만나다
부처님의 원음이 가장 온전히 담겨 있는 초기 경전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숫타니파타」에는 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수행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재가자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 김광하 저/국판/256쪽/값13,800원

자기 안의 선지식
선은 방석 위에 가둘 수 없다!
선이 존재해야 하는 곳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일상의 시공간이다.
禪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현실 속의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옛 선사들의 삶과 일화를 오늘에 투영시켜, 선의 참된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 김광하 저/국판/312쪽/값14,8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부 경전 중 가장 오래되어, 대승불교의 근본이 되는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 박이오 역/신국판 양장/368쪽/값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세계 청년불자, 제주 4.3 상처 치유 나선다

WFBY 3월 15~18일 제주도 일대서 교환캠프

4.3추모제 · 심포지움 개최
사찰 참배 및 성지순례도
"청년불자들의 교류 계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세계 청년불자들이 상처 치유에 앞장선다. 세계불교청년우의회(World Fellowship Buddhist Youth, 이하 WFBY)는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2018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천사, 관음사 등 사찰 참배와 함께 제주4.3 국제 합동추모제, 4.3평화기념관 탐방, 4.3심포지엄 등이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대한불교청년회 제주지구(회장 김보성, 이하 제주불교청년회)가 주관하며 총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중 WFB 20명, WFBY 80명 등 100명이 해외 청소년 불자들이다. 제주불교청년회 측에 따르면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 중 최대 규모다.

이들은 3월 15일 제주도에 도착해 빠레브호텔에서 개회식을 가진 후 팀을 짠다. 이어 16일 약천사 참배에 이어 제주 성지순례길 및 올레길을 탐방한다. 이어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일본군 진지, 4.3 유적지를 답사하며 저녁 늦게 '제주 4.3 심포지엄'을 갖는다.

17일에는 성읍리 민속마을 탐방과 함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국제합동 추모제를 연다. 또 4.3평화기념관을 탐방한다. 폐회식에서는 각 국가 전통의상 콘테스트도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김보성 제주불교청년회장(조직위원장)은 "2001년 첫 행사를 시작해 올해로 11회 째를 맞이했다"면서 "제주4 · 3 7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아 4 · 3 70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이 의미를 기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주관하는 제주불교청년회 측은 이번 캠프에 앞서 제주 4.3 사건과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불교를 알리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했으며,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4.3사건은 이념이 빚어낸 비극"이라며 "청년불자들이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향후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 또한 이를 주제로 해외 각국의 청년들과 우리나라 청년불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WFBY는 청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포교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전 세계 불교청년단체의 국제 네트워크로서 1972년 5월 23일 설립됐다. 본부는 태국 방콕에 두고 있으며 현재 WFBY는 18개국 38개 지역 센터로 확대됐다.

"네 마음 가져오면 너를 편안케 해주겠다"

3월 1일 백담사 동안거 해제법회서 무산 스님 법문
한철 보낸 자승 스님 "입 떼는것이 허물" 禪화두로 소회



3월 1일 인제 백담사서 열린 동안거 해제 법회에 참석한 자승 스님(사진 왼쪽)과 무산 스님.

청법의 예를 갖춘 대중의 삼배가 끝나자 법상에 오른 조계종립 기본선원 조실이자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선사는 준비해 온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무문관 41칙 달마 안심법문을 읽겠습니다. 달마대사가 면벽(面壁) 하고 있을 때였다. 혜가는 눈 속에서서 팔을 자르고 이렇게 말했다. 제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달마대사가 말했다. 네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 주리라. 혜가가 다시 말했다.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달마대사는 내가 벌써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1분 30초 였다. 이번에도 지난해 하안거 해제 법문때와 마찬가지로 헛공부 하지말라는 촌철살인의 큰 울림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무산 스님의 안거 법문은 해마다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세상과 현실에 대한 지혜를 직설화법으로 쏟아냈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부담스러워 한 스님은 3년전부터 조계종 종정 스님의 안거 법어를 대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렇지만 지난 하안거 해제때에는 처음으로 1분도 안되는 간결한 '이심전심' 법문을 통해 다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3월 1일 오전 10시 강원도 인제 설악산 백담사는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동안거에는 종립기본선원 56명, 백담사 무문관 12명, 신흥사 향성선원 12명 등 총 80명의 수좌 스님들이 방부를 들이고 정진 했다. 이중에는 퇴임후 곧바로 무문관에 방부를 들인 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해제법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자승 스님에게 무문관서 보낸 소감을 묻자 "안거 기간 동안 묵언 수행을 해 입을 떼기가 어렵다"며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바로 허물"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해제 법회가 끝난 직후 백담사 경내 봉정당에서 자승 스님과 자리를 같이 한 무산 스님은 "자승 스님의 몸무게가 12kg이나 빠진걸로 안다. 그만큼 열심히 수행한 것이 아닌가"라며 웃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인제 백담사=김주일 기자

서울노인영화제, 세계로 뻗어간다

캐나다 밴쿠버 현지 상영 추진… 2019 공동개최 목표

서울노인福 신년 사업계획 발표
선배시민 · 존중 · 공감 키워드로
분야별 전문선배시민 양성 나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 사진)가 신년 사업설명회서 서울노인영화제의 해외 진출을 선언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 23일 센터 3층 공연장서 '2018 서울노인복지센터 사업설명회'를 진행, 선배시민 · 존중 · 공감을 키워드로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국내 유일 노인관련 단편영화제인 서울노인영화제의 캐나다 밴쿠버 상영 등 해외진출 포부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서울노인영화제는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노인중심 영화제다. 캐나다 얼TV(All TV)에서 먼저 복지관으로 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현재 동시상영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시작단계인 만큼 밴쿠버와 함께 상영을 하고, 이후 캐나다 교포 1세대 어르신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밴쿠버와 함께 영화제를 개최하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분야별 전문 '선배시민양성'을 위한 사업도 발표했다. 센터서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또 다른 어르신을 교육하는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배움을 넘어 실천으로 확장한다는 기조다. 실버도슨트가 직접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을 방문해 문화를 교류하는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 종묘와 탑골공원 인근 조성된 어르신문화특화거리에서 진행되는 북콘서트,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공방, 치매예방 캠페인과 식생활 교육, 어르신 커피트레이너가 어르신 바리스타를 키워내는 교육프로그램 등 선배시민이 동년배는 물론 다른 세대와 지역사회에 적극 다가서는 사업을 진행한다.

희유 스님은 "개인적인 배움에서 그간의 경험을 다른 세대와 지역사회에 나누고 실천하는 선배시민의 모델을 구현하겠다. 그러면서 자신과 상대의 일상을 존중하고 돌보며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해결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공감 중심의 서비스를 어르신들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해 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전통醬, 이제는 일자리 창출로

종로노인복, 장카페 통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카페서 서울시 어르신 채용↑
장 체험관 · 외국인 관광객 연계
프로그램 공개범위 확대되기도



지난 수년간 전통장을 보존 · 전승해 온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장(醬)카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 사진)은 2월 27일 관내 장카페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재수탁에 의한 5개년 운영목표와 중점사업 등을 발표했다. 복지관은 △인권가치 중심, 민주주의 복지관 실현 △소통, 지역중심 참여기반 신노인문화 확산 △공존, 더불어 성장하는 복지공동체 구축 △미래예측, 변화주도 복지 프로세스 확립을 5년 운영목표로 잡았다. 정관 스님은 특히 "올해는 복지관의 문을 활짝 열어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나누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 쓸 계획이다. 그 중심에는 종로노인복지관의 자랑인 장 관련 사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복지관 유일의 장카페는 올해 일자리사업으로 확대된다. 장카페에는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이 취직할 수 있으며, 장상품 및 음료 판매와 전통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맡게된다. 관련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인 '종로&장금이'는 지난해 서울시 시장형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장 체험관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전망이다. 여행업체와 연계해 장 체험을 코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한국의 장을 만들어보고 맛보고 사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 7일에는 장독분양사업 '우리 동네 장담그는날'이 개최된다. 노인세대의 재능나눔의 일환으로 전통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종로구민들만 참여가 가능했던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는 서울시민 전체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신년 사업을 설명한 정관 스님은 "항상 열려있는 민주주의적 복지관, 소통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주년을 맞았는데, 이제껏 앞만 보고 달려왔다. 지금부터는 안정적으로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복지관으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올림픽과 템플스테이 "함께 win-win"

전 세계 언론 템플스테이 극찬, 참가자도 대폭 늘어

평창동계올림픽과 템플스테이가 함께 홍보를 하며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강원지역 템플스테이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2월 23일 밝힌 뒤 외신 및 국내 언론에 소개된 템플스테이와 저명인사 방문, 대폭 늘어난 참가자에 대해 설명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월정사에 120명의 중국기자단(2/9)과 라트비아 대통령(2/10) 방문, CNN기자의 템플스테이 체험 등이 이어졌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강릉 페스티벌 파크 내 홍보관서 강원도 템플스테이를 소개했고, WTHR, Asia Times 등 해외언론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추천하는 한국 문화체험으로 템플스테이를 꼽았다. 특히 강원도 5개 사찰(낙산사 · 백담사 · 삼화사 · 신흥사 · 월정사)의 템플스테이 참가자만 1000여 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5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사업단은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까지 강원 5개 사찰서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의 참가비를 최대 8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④

화정 스님 울산대학병원 영적돌봄가

힘든 순간조차도 좋다… "호스피스는 내 운명"



화정 스님의 은사 스님은 연세가 많으셨다. 은사 스님을 바라보며 항상 걱정이 많았던 화정 스님은 자연스럽게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런 영향으로 출가와 동시에 호스피스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스님은 "호스피스 일을 하며 매 순간 좋다"고 웃었다.

"호스피스 교육은 2001년부터 받았습니다. 은사 스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제 일이 됐습니다. 교육은 오래 받았지만 실질적 영적돌봄가 활동은 2016년에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하는 요즘은 내내 행복하고, 보람찬 날의 연속입니다."

현재 울산대학병원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 중인 스님은 그동안은 자신이 없어 미루던 활동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더 빨리 시작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특히 보호자들이 감사해 할 때는 그 마음이 느껴져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호스피스 영적돌봄가 활동을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라고 설명한 스님은 활동을 하면 힘든 순간조차도 좋다며 소탈하게 웃었다.

힘들어도 매 순간 좋다는 화정 스님은 "이것저것 해보고, 이 일 저 일 벌어져도 결국 별거 없더라. 모든 것은 순리대로 가기 마련이다.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것 같다. 요즘은 복잡했던 생각을 단순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스님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화정 스님은 "근래에 은사 스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자, 오히려 호스피스 대상자들을 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스님은 '어떻게 같이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더 좋아할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걸까'와 같은 행동 · 마음 적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고 한다. 스님은 항상 더 온전한 마음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가끔 노스님들을 뵈면,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 스님은 당사자면서 오롯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다. 다들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는 화정 스님은 이제 삶의 목표가 조금 바뀌었다고 한다. 이전 '굵고 짧게 살자'에서 '가늘고 길게 살자'로 바뀐 것이다.

오래오래 욕심 부리지 않고 병원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게 스님의 원력이다.

"호스피스 활동은 항상 어렵지만 또 항상 기쁩니다. 지금이 영적돌봄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제 시절인연인 것 같습니다. 혹시 호스피스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나서기가 두려워 주저하는 스님들이 있다면 일단 그냥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걸려 고민하죠. 계산하는 마음을 집어 던져야 합니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육기간** | 2018년 3월 27일(화) ~ 3월 29일(목)
- **접수마감** | 3월 19일(월) (선착순 30명)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한국불교, 독일서 세계서 통한다"

국제포교사회 獨쾰른서 2차 해외포교 진행

이화진 포교사 파견 지원
1차 뉘른베르크선 팀 구축
"향후 해외포교 유럽본부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차 해외포교 당시 독일 현지 명상팀과 이화진 포교사(사진 왼쪽 세번째).

국제포교사회가 해외포교에 다시 나섰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3월 14일 독일 쾰른에 제2차 해외포교 사업으로 이화진 포교사를 파견한다.

국제포교사회의 해외포교는 2017년 8월 이화진 포교사를 1차로 쾰른에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이 포교사는 6주간 독일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12월 이 포교사는 귀국 후 국제포교사회 송년법회에서 성과보고를 진행한 데 이어 3월 6일 불교영어도서관에서 국내 독일 유학생을 대상으로 명상 강좌를 열었다.

국제포교사회는 그동안 이 포교사의 독일 활동이 관광비자로 종교활동을 했다는 우려에서 언론 비공개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독일대사관에서 관광비자로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확인에 해외포교 사업을 공개를 결정했다.

이화진 포교사는 3월 14일 출국 예정으로 이번 독일 2차 해외포교에서 1차 포교 당시 결성된 명상팀이 확보한 뉘른베르크 명상원을 비롯해 쾰른 일대에서 불교수행와 명상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화진 포교사는 "서구국가의 경우 기존 기독교에서 벗어나려는 탈종교화 현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영성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남아 있기에 명상에 열광하고 있다"며 "불교명상을 알려 자연스럽에 한국불교를 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포교사는 이어 "지난해 4월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러 도시에서 3주간 포교활동을 위한 시장 조사를 했다. 당시 명상 수요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남유럽에 비해 독일의 경우 불교와 명상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영어 구사능력이 원활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불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할 만큼 불교 수요도 크다"고 소개했다.

이 포교사는 이어 "쾰른을 포교도시로 정한 이유는 보수적인 뮌헨 등에 비해 서북부 중심지이며 개방적 성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이번 2차 해외포교에서 1차 당시 결성된 명상팀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외포교의 유럽본부로 구축했으면 한다. 불교가 역수입되는 현실에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사 어린이 포교 시동… '아이 좋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새로 불교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가 새싹 포교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2월 25일 '아이좋아 V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어린이, 청소년층 배가 운동에 나섰다.

아이좋아 V캠페인은 조계사 불교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친구 2명을 데리고 오는 새로운 전법 운동이다.

지현 스님은 "2명이 4명, 4명이 8명 등 또래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함께 불교학교로 나오는 캠페인"이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이어 "더 많은 친구들이 불교학교에 함께할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주변에 전해달라"며 "어린이들이 처음 사찰에 와서 신심 있는 불자로 성장하기까지 20년이 걸린다. 조계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맑고 곱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현 스님은 새로 온 친구들에게 환영의 선물을 줬다. 이날 30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조계사를 찾았다.

이날 캠페인 선포식에서는 불교학교 재학생 대표로 홍윤혁 고학년 어린이 법회 학생이 송사를 낭독했다. 홍윤혁 학생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안고 부처님 앞에서 다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형, 누나, 동생들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축하공연은 김지용, 이소윤, 이현승 어린이가 바이올린과 피아노 합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와 '할아버지의 시계'를 연주했다. 이어서 조계사 소년소녀 합창단이 노래 '너와 나'와 '부처님을 사랑해'를 불렀다. 두 번째 곡 '부처님을 사랑해'를 부를 때는 불교학교 모든 법우들이 한목소리로 합창했다.

노덕현 기자

비구니 스님들의 서울 보금자리 탄생

비로자나국제선원, 나란다 수행관 공개



새로 개관한 나란다 수행관 입구.

포교, 학업 등을 위해 서울을 찾지만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수행관이 생겼다.

비로자나국제선원(원장 자우)은 2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구니 스님 전법교화를 위한 나란다 수행관의 건립을 알렸다.

서울 홍제동 선원 5분 거리에 위치한 나란다 수행관은 국제포교 관련 학업 혹은 관련 포교활동을 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개방된다. 그간 거처가 마땅치 않아 원룸이나 고시촌을 전전하던 스님들의 원력 성취 기반이 되겠다는 취지다.

수행관 1호 입주자인 템플스테이 홍보관 지도법사 능현 스님은 "지방에서 출가해 학업이나 포교 자체가 서울에서는 불가능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용에 번번이 좌절했다. 그런데 이번에 거처가 생겨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스님 전용 기숙사는 동국대 학사과정이 유일하다. 하지만 석사 이상은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서울 다른 학교에선 지원하지 않는다. 자우 스님은 동국대서 석사 과정을 다니는 후배 스님이 여관을 전전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후배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거처 마련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자우 스님은 "포교의 원력을 품고 서울로 와서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은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학업과 포교의 원력을 성취하려면 숙소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한다. 나란다 수행관이 전법교화의 원력을 성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제1수행관의 방은 6개로, 개관과 동시에 4명의 스님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스님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다. 이에 비로자나국제선원은 향후 더 많은 수행관 마련을 위해 불자들의 동참과 후원을 호소했다. 선원은 "수행관을 후원해 주는 일은 한국 불교의 전법활동을 더욱 힘차게 하며, 스님들의 전법원력을 꽃피우는 일"이라며 "불자로서 삼보를 수호하고 있음에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매일 수행관 스님들의 축원을 받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동참을 독려했다. (02)6012-1731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3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작가 모임 나우회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쿄국립박물관 일원서 재현전 준비를 위한 답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나우회 작가들이 오쿠라 콜렉션의 비로자나불입상을 실측 스케치하는 모습.

작가들이 주목한 오쿠라 콜렉션 성보들

금동가릉빈가상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됐으며, 높이 17.8cm이다.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금박 흔적이 남아 있다. 상반신은 나체형(裸體形)으로 가슴에 영락장식이 있고, 하반신은 새의 몸이 표현됐다. 가릉빈가가 금동상으로 조성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금동비로자나불입상



통일신라시대 조성. 좌상이 아닌 입상으로 조성됐다는 게 특이하다. 52.8cm에 이르는 이 불상은 일련의 입상 비로자나불 가운데 가장 크고 조각이 우수한 예다. 명상에 잠긴 풍만한 얼굴에, 길게 치켜진 눈과 눈썹에는 신라 조각 특유의 선각을 덧붙여 근엄한 느낌을 준다.

금동팔각사리탑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됐으며, 광양서 출토됐다. 현재는 내함과 사리들은 유실됐다. 높이는 17.7cm. 몸체에는 팔부신중이 매우 세밀히 새겨져 있으며, 덮개에도 당초문이 그려져 있다. 특히 공양보살상이 덮개의 손잡이로 조성된 것은 매우 이색적이다.



나우회 작가들이 사리기를 살펴보고 있다.



한 작가가 불상을 실측 스케치하고 있다.

해외 유출 성보에 담긴 魂을 만나다

[현장] 동북아불교미술硏 · 나우회 재현전 준비 답사

'오쿠라 콜렉션과 불교미술' 주제
10월 전시 준비위해 도쿄博 답사
작가들 스케치 · 촬영 등 실측 진행
각 분야 작품 구상 · 계획들 완성해

재현은 옛 것 배우는 비움의 창작
"문화재 알리는 마중물 될 것" 강조

일본 도쿄=신성민 기자

"이 사리기에는 수많은 탑들이 그려져 있네요. 이것은 단순히 사진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친견을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동(銅)으로 제작된 가릉빈가는 처음 봤어요. 한국서는 만나본 적이 없는 작품입니다. 이것을 재현해보고 싶네요."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 4층 조선미술실. 본래 한반도에 있었으나 지금 현해탄 너머 일본의 박물관에 있는 불상 등 다양한 불교문화재들을 보고 불교미술 작가들은 연달아 감탄을 했다. 한국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불교미술 작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재현 통해 망국의 회한 녹이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작가 모임 나우회(회장 한봉석)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일본 도쿄 일원에서 답사를 진행했다. 오는 10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오쿠라 콜렉션과 불교미술'을 주제로 열리는 재현전 준비를 위해서다.

나우회 작가들은 2009년 창립 이래 4번에 걸쳐 해외 반출 문화재들에 대한 재현전을 꾸준히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기메 박물관에 있는 반출 문화재들을 재현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런 그들이 해외 반출 문화재의 대명사 '오쿠라 콜렉션'은 꼭 재현해야 할 화두이기도 했다.

'오쿠라 콜렉션'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에서 살았던 일본의 실업가 오쿠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96~1964)가 한반도 등에서 도굴하거나 수집해 간 문화재 1,856점을 통칭한다. 대구서 전기회사를 운영했던 오쿠라는 1921년부터 한반도의 문화재를 수집했고, 일본 패망 이후 이를 전부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오쿠라는 보존회를 만들어 문화재를 관리하다가 그가 죽고 난 후 아들이 1982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옛 한반도 장인 정신 확인하다

나우회 작가들이 답사한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의 조선미술실은 '오쿠라 콜렉션'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는 불상 · 사리함 · 정병 등 불교문화재부터 도자기 · 공예 · 비문까지 다양한 시대의 한국 반출 문화재들이 자리하고 있다.

작가들은 곧바로 불상 등 문화재 앞에 서서 스케치와 사진 촬영을 꼼꼼하게 진행했다. 제한된 시간,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하려는 작가들의 움직임들은 매우 분주했다. 2시간 가깝게 진행한 실측 조사를 통해 작가들은 재현전 작품 주제들을 하나 둘 선정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한국서는 만나볼 수 없는 독특한 성보들도 다수 있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 한봉석 작가(나우회장)는 통일신라기 동(銅)으로 제작된 가릉빈가상을 주목했다. 부처님의 묘음을 노래하는 새인 가릉빈가는 일반적으로 수미단에 장엄된다. 하지만 도쿄국립박물관의 금동가릉빈가상은 단독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조성미도 매우 뛰어났다.

한 작가는 "자세히 보면 가릉빈가의 머리가 살짝 옆으로 돌아갔다. 이에 맞춰 목의 영락도 비틀어져 있다. 매우 세심한 표현"이라며 "이를 목조각으로 재현해 보려한다. 현 가릉빈가상에는 바라가 있는데 손의 기물을 바꿔서 '극락조' 연작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 소조 작품을 주로 만들고 있는 노정용 작가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금동비로자나불입상을 재현키로 작품 주제를 정했다. 이 역시 오쿠라가 일제강점기 반출한 불교문화재로 그 조형이 매우 독특하다.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은 좌상이 일반적이지만 드물게 입상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국립경주박물관 등 몇 곳에만 금동비로자나불입상이 확인될 정도다.

노 작가는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은 좌상이 대부분이지 입상은 쉽게 만날 수 없다"며 "이를 소조로 만들어 보려 한다. 좋은 소조상이 나오면 이후 주물로 금동 불상으로도 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드물게 수은도금을 이어오고 있는 오세종 작가는 조선미술실 한켠에 있는 금동팔각사리탑을 주목했다. 통일신라기 제작된 금동팔각사리탑은 광양서 출토됐으며, 뚜껑에는 당초문이, 사리기 몸통에는 팔부신중이 매우 세밀하게 음각돼 있다. 덮개에는 특이하게 공양보살이 손잡이로 만들어졌다.

오 작가는 "사리기 몸통에 새겨진 팔부신중부터 덮개의 공양보살상의 디테일이 매우 섬세하다. 특히 손잡이에 공양보살상을 조성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현재 감은사지 사리함을 재현중인데 사리함 시리즈를 연작으로 제작하려 한다"고 작품 구상 계획을 설명했다.

불교미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본에 의해 해외로 반출됐던 문화재들을 재현하려는 작가들도 있었다. 경북무형문화재 제37호 대목장 김범식 작가는 1918년 하세가와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이 자신의 고향인 아와쿠니시로 불법 반출한 벽제관 육각정을 1/10 스케일(Scale)로 재현을 진행하고 있다. 벽제관은 임진왜란 당시 이여송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를 왜군이 크게 이겼던 승전지였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일본 총독이 일종의 전리품으로 한국에 있던 문화재를 해체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다. 이는 한반도 역사를 폄훼하고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려 한 것"이라며 "이를 후손들에 상기시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천한봉 도예 명장의 딸로 그 뒤를 계승하고 있는 도예가 천경희 작가는 흑유(黑釉)를 이용해 문화재 재현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 작가는 "흑유는 산화철 20% 이상이 있어야 구현이 가능하다. 사발이나 자라병들로 재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현을 통한 한국문화재 傳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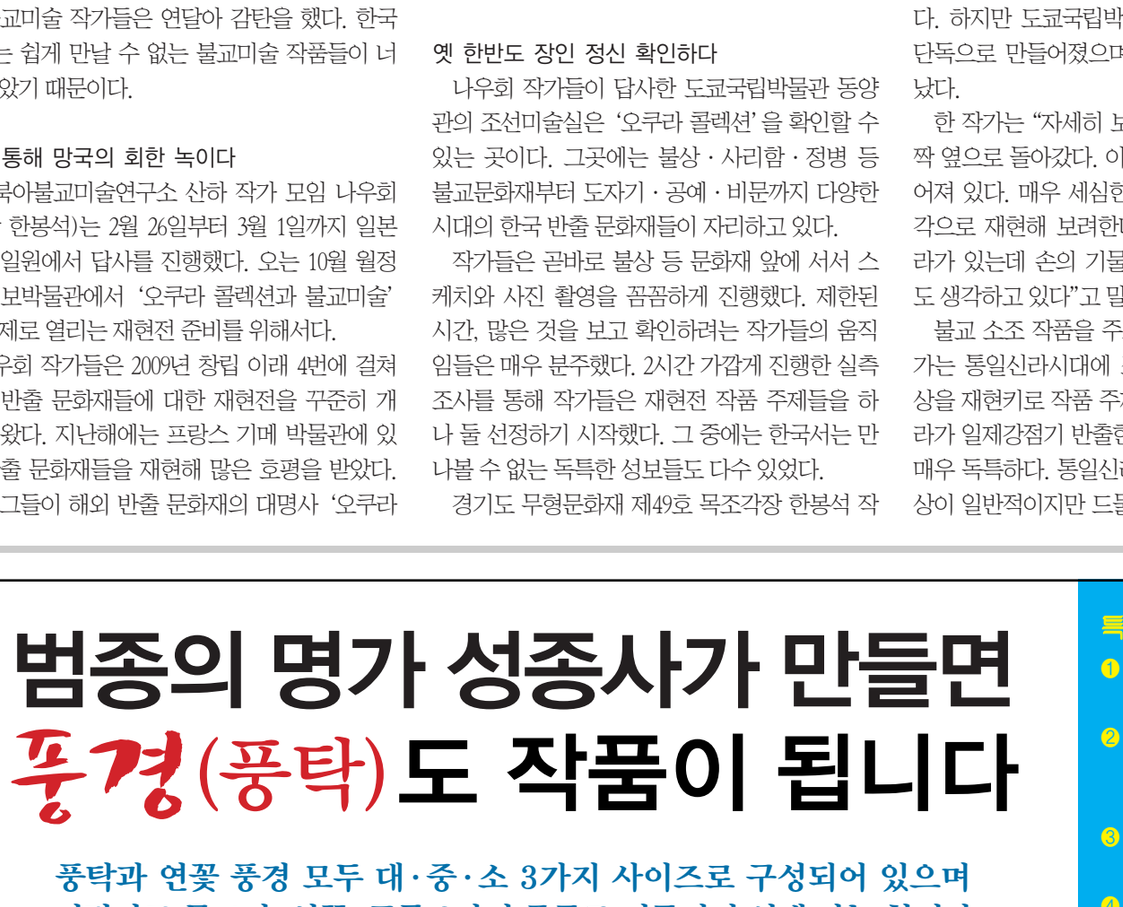
나우회 작가들이 문화재 재현 작품을 매년 선보이는 이유는 옛 장인의 정신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나우회 전시를 기획 · 담당하고 있는 최선숙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사무국장은 "재현은 작가 자신에게 스스로를 비울 수 있게 해주는 기회"라면서 "옛 선현이 만든 작품 안에 담긴 정신과 기술을 찾고, 자신의 잘못된 훈습을 버릴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창작의 열정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우회장 한 작가 역시 "원작자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 동안의 나'를 버려야 하는 공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장인들이 대중에게 줬던 감동을 재현해서 현재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문화재를 바르게 재현하고 바르게 알려서 문화재 알리기의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1.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2.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3.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4.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화두 챙기고 百折不屈 의지 가지라

〈백절불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一條 杖橫靑天(일조주장횡청천)하니 敎外別傳一乘傳(교외별전일승전)이라.

正法妙心眞實相(정법묘심진실상)은 描也描不成(묘야묘불성)이요 畵也畵不也(화야화불야)로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푸른 하늘을 비끼니 49년 설(說)한 밖에 달리 일승법(一乘法)을 전함이로다. 바른 진리의 법, 묘한 마음, 참되고 실다운 모습은 모방할래야 모방할 수가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 없음이로다.

금일은 정유년 동안거(冬安居) 해제일(解制日)입니다.

혹한(酷寒)의 삼동구순동안 세간(世間)과 단절하고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정진(精進)하고 정진한 것은 오직 자신의 본성(本性)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일 해제일이 도래하여 결제 때 가졌던 결연(決然)한 의지로 정진하였다면, 눈 밝은 안목자(眼目者)가 출현해서 대장부의 활개를 쳐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삼동의 안거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견성에 대한 다시 각오를 다져서 바위처럼 움직이지 말고 각자의 본참화두를 참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도에 백번 밀려나도 다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돛단배가 마침내 순풍을 만나 신대륙에 도착하듯이, 수행자는 번뇌 망상이 팥죽 끓듯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의지를 가져야 만이 화두가 순일해지고 마침내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화두를 챙길 때는 아주 또렷하게 화두의 의심을 지어가야만 가지가지의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고 혼침(昏沈)도 달아나 버립니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거나 게으른 생각이 있으면 화두는 벌써 십만 팔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과거의 습기(習氣)로 인한 다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서 주인노릇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반연(攀緣)은 끊고 시비장단(是非長短)은 모두 내려놓고, 견성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大信心)과 불타는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내어, 간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여,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잡도리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냇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지속되다가, 홀연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나게 되고, 억겁다생(億劫多生)에 지은 업(業)이 빙소와해(氷消瓦解)되어, 몰록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중략〉

세월이 흘러 운문(雲門)선사께서 세연(世緣)이 다해가니 제자들을 모아 놓고,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어떠한 것이 취모검(吹毛劍)인가?

이 세 가지 법문을 물으셨다.

여러 제자들이 훌륭한 답을 했지만, 그 중에서 파릉(巴陵) 스님의 답이,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은쟁반 위에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어떠한 것이 취모검(吹毛劍)인가? "산호(珊瑚)나무 가지가지에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운문 선사께서 이 답처(答處)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열반(涅槃)에 든 후, 너희들은 기일(忌日)에 제사상에다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일러주길 바란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이여!

이 법문을 안다면 한 산중의 방장이 될 자격이 있음이라. 답할 자가 있으면 답을 가지고 오너라.

필경(畢竟)에 진리의 일구(一句)는 어떠한가?

與奪自在能幾幾(여탈자재능기기)아

天上人間無等匹(천상인간무등필)이로다.

주고 빼앗는 자재의 기봉을 갖춘 이가 몇몇이나 될꼬.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짝할 자가 없음이로다.

간택하는 마음만 허물이 된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습니다. 조계산에도 백설이 분분했으니, 겨울의 북풍한설이 제법 이 노옹의 살갗을 차갑게 했었습니다. 이제 무우전 앞마당 매화가지에 꽃이 피니 드디어 봄이 오는 전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안거 해제 법문은 조주 고불의 지도무난(至道無難)의 활구법문(活句法門)을 한번 점검하면서 지난 3개월간 칠전에서 두문불출(杜門不出)한 납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조주 스님께서 "건곤착(乾坤窄)하고 일월성신일시흑(日月星辰一時黑)이라 직요봉여우점(直饒棒如雨點)하고 할사뇌분(喝似雷奔)이라도 야미당득향상종승중사(也未當得向上宗乘中事)니라. 하늘과 땅마저 비좁고 일월성신도 일시적으로 빛을 잃는다. 봉(棒)을 빗발치듯 내리치고 할(喝)을 천둥 울리듯 내뱉더라도 선의 핵심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일찍이 설파하셨습니다.

도(道) 깨치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도에 이르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유혐간택(唯嫌揀擇)이라, 간택하는 마음만 허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제하고 산문을 나선다고 해서 화두를 놓는 것은 아닙니다. 본분납자에게는 결제 해제가 따로 없습니다. 1년 365일이 바로 결제일이요, 해제일이니 시은을 받는 수좌들은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다가 하찮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만물함령(萬物含靈)이라, 불성(佛性)이 있으니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태고법손(太古法孫)들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단절하고 종승선양(宗乘宣揚)에 매진하는 해가 되어서 불이성(不二城)에 화합의 웃음소리가 진동하기를 노옹(老翁)은 조계산 근심 없는 집에서 제불보살께 합장삼배 합니다.

허송세월 말고 오고감에 맡겨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佛身 充滿盡法界(불신변만진법계)하니 有情衆生無不親(유정중생무불친)이로다. 靑山綠水說無生(청산록수설무생)하고 鶯音ㄴ 語轉妙法(앵음연어전묘법)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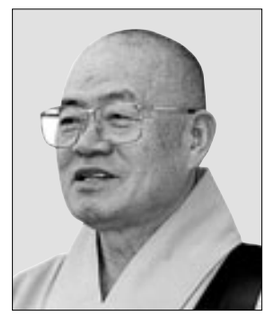
불신이 온 법계 두루 가득하니 유정중생이 친하지 아니함이 없도다. 청산과 록수는 무생법문을 설하고 꾀꼬리 소리와 제비소리는 묘법을 전하는도다.

敢問大衆(감문대중)하노니 古人(고인)이 云(운) 佛身充滿法界(불신충만법계)라 하니 具眼衲僧(구안납승)은 且道(차도)하라. 還見佛眞身 (환견불진신마)아? 良久(양구)에 "一喝(일할)"云(운) 眼橫鼻直(안횡비직)하니 全(전) 機全彰(기전창)이로다.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고인이 이르되 불신이 법계에 충만하다하니 안목을 갖춘 납승은 일러보아라. 도리어 부처님 진신을 보았는가?〈중략〉

我若當時(아약당시)면 受抱兒稱云(수포아칭운)하되 爾便毘盧遮那來 (이변비로자나래마)아 爾便釋迦牟尼(이변노사나) 來 (래마)아 爾便悉達多來 (이변실달다래마)아 明月淸風自去來(명월청풍자거래)로다. 任運騰騰貴童(임운등등귀동) 子(자)야하고 戱弄(희롱)하면 老婆不笑而奈何(노파불소이나하)리요.

내가 만약 그때를 당했다면 아기를 받아 안고 이르되 네가 바로 비로자나가 온 것이냐? 노사나가 온 것이냐? 네가 바로 실달다가 온 것이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저절로 오고가네! 운에 맡겨 더등실 귀동자야! 하고 어르면 노파가



웃지 않고 어찌하리요!〈중략〉

親子棄江爭不悽(친자기강쟁불처)리오 老婆心切彼無ØV노파심절피무예)로다. 莫 舞掉虛過歲(막잠무도허과세)하고 雲山海月任意棲(운산해월임의서)로다.

친아들을 강에 버리고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노파심이 간절하니 거기에는 허물이 없도다. 노를 잡고 춤추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운산과 해월이 마음대로 오고감에 맡길지어다.

一味禪도 五味禪도 묶이지 말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귀종지상(歸宗智常)선사에게 젊은 납자가 해제인사를 오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여러 지방으로 오미선(五味禪)을 배우려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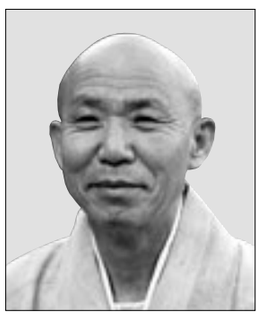
"제방(諸方)에는 오미선이 있고 총림에는 일미선이 있다. 일미선(一味禪)은 제대로 익혔느냐?"

"총림의 일미선은 어떤 것입니까?"

당나라 귀종선사는 마조도일(馬祖道一)의 법을 이었으며 강서성 여산(廬山) 귀종사를 중심으로 선법을 펼쳤습니다. 해제를 앞두고 귀종선사께 어떤 젊은 납승이 찾아와 일미선과 오미선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미선은 목적지를 곧장 가리키는 것이요. 오미선은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유지를 함께 안내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미선은 직절지(直截智)요 오미선은 방편지(方便智)입니다. 또 중생을 이롭게 함에 '법도가 제대로 서 있는' 일미선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오미선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미선이 없는 오미선은 삿된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미선을 통해 오미선으로 들어가야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익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 물건은 모두 금인 것처럼 설사 일미선이 모양을 바꾸면서 오미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미선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법은 동일한 본체이지만 교묘



(巧妙)한 여러 가지 상(相)들이 모여 차별된 모습을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에 일체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일체는 다시 하나를 이룹니다. 일미선을 통해 오미선을 성취하고 오미선을 통해 일미선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중략〉

일미선은 결제요 오미선은 해제입니다. 왜냐하면 결제 때 닦은 일미선으로 해제 때 오미선으로 회향하기 때문입니다. 만행이란 오미선을 통하여 일미선으로 들어가는 일이요, 또 일미선을 오미선에 회향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일미선이 곧 오미선인 도리를 알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일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귀종일미여연고(歸宗一味如蓮苦)하니. 차과총림기후생(蹉過叢林幾後生)고? 환유불차과자마(還有不蹉過者)아? 시출래토로소식(試出來吐露消息)하라.

귀종의 일미선은 황련과 같이 쓴 맛인지라. 총림의 후학들이 지나친 것이 얼마이던고? 그렇다면 이제 지나치지 않을 자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앞으로 나와서 소식을 말해보라.

타성 벗어나 주인공으로 삽시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掃盡從前諸雜解(소진종전제잡해)
話頭提起急加功(화두제기급가공)
一朝識破娘生面(일조식파낭생면)
虎穴魔宮正路通(호혈마궁정로통)

종전의 잡스런 알음알이 싹 쓸어버리고 화두를 급히 들어 더욱 공을 들여라.

하루 아침에 엄마 뱃속의 본래면목을 알아버리면 호랑이굴, 마왕의 궁전에 가서도 바른 길이 늘 통하리. (나옹 스님 게송)

이번 동안거에는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업보가 박잡한 저는 바람에 날리는 눈처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만 여기 모이신 사부대중들께서는 심신이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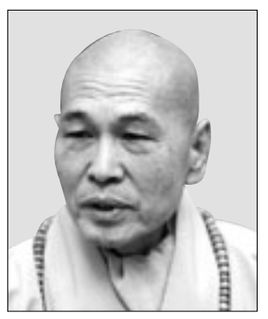
저는 예전에 하던 짓, 우리(나)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民主(민주)라는 것을 딱 붙잡고 천하사람들을 만나 진흙소가 물 위를 걷고 大地(대지)가 허공에 찢어지는 것도 말하며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를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향기가 평창에 가득한 것을 보기도 했고 참사람들의 모습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고달프긴 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민주, 통일의 원리를 보았기에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강에 가득하던 얼음이 조금씩 풀리고 산하에 봄빛이 언뜻 짐작도 되는데 봄날 아지랑이 같은 알음알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의 촌로들도 한다는 가상화폐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데 단순한 사람은 필요가 없는 세상임이 분명합니다. 근본을 추구하는 삶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 차는데 항상 근심이 됩니다.〈중략〉

무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온갖 경계에 흔들림 없는 마음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원적 자리에서 활발발하여야만 이 나라 살리는, 이 겨레 살리는 실천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의 타성에서 벗어나 우리 불자들은 참된 양심의 자리에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살려 일단 주인공으로 삽시다. 그러한 주체적인 삶, 민주시민도 못되면서 대승보살행을 머리에 담아두면 그 괴리가 너무 커져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선행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오르는 長遠心(장



원심)을 냅시다.

유난히 추웠던 시절이었는데 아마 이번 봄, 아지랑이 같은 알음알이는 더욱 치성해질 것입니다 아! 헛된 생각들을 단박에 없애서 무심, 무소득의 지견으로 살아가는 돈오의 삶! 어떠합니까?

8식도 미세망상의 마구니 경계로다! 쏟아지는 비 같은 설법을 뒤로 하고 百聞(백문)이 不如一行(불여일행)! 떠나는 선방스님들 뒷모습들이 아름답구나!

반야행자여! 길을 떠나자

영축총림 방장대행 성파 스님

與君同步又同行(여군동보우동행)하며 起坐相將歲月長(기좌상장세월장)이로다. 渴飮飢飡常對面(갈음기손상대면)하니 不須回首更思量(불수회수경사량)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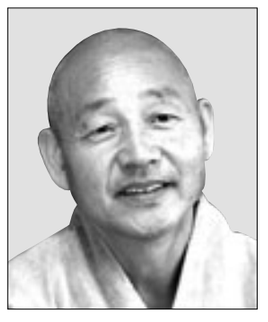
그대와 함께 걷고 또한 함께 다니며 서고 앉음에 항상하여 오랜 세월 지났네. 목마르면 마시고 주리면 먹으며 항상 서로 대했으니 머리를 돌려 다시 생각하지 말라.

총림대중이 삼동결제를 하고 포단 위에 오뚝이 앉아 잠 못 이루고 정진한 일은 늘 함께하며 범부와 성현에게 본래 구족한 한 물건을 찾고 이를 잘 쓰기 위함입니다.

한 물건을 본 대장부는 일체를 반야의 지혜로 보는 까닭에 보시를 행하면 상에 걸림 없는 법보시와 무애시를 행하게 되고, 계율을 실천하면 무생계(無生戒)를 행하며, 인욕행을 통해 묵은 빚을 모두 갚습니다. 반야지(般若智)를 구족한 수행자의 정진은 시끄럽고 고요함을 가리지 않고 순경과 역경 또한 구별하지 않으며 은애와 원수에 걸리지 않고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일로 정진을 삼습니다. 반야행자의 선정은 업화의 불길에도 타지 않으며, 시정의 시끄러움도 피하지 않고, 정처의 고요함도 좋아하지 않으며 일체 삼매 속에 행원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이처럼 바라밀을 실천하려면 늘 함께 하는 한 물건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너무도 쉽고 재미있고 신나게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은 한 물건을 분명히 보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총림대중이 지난 석 달 동안 화두를 들고 처절하게 정진한 이유는 한 물건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무명의 구름이 흩



어지고 한 물건을 분명히 보게 되었으니 반야행자의 원력과 역량으로 산문을 나가야 합니다. 산문 밖에서 만나는 일체 인연은 반야행자의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수행자로 만들어야 하고, 머무는 곳마다 청정도량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략〉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호 연결된 구조, 불교수행에 접목

④ 암호화폐와 불교 새로운 수행공동체의 가능성



지난 몇 달 동안 암호화폐는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였다. 사람들의 욕망과 결합되어 투기에 가까운 광풍이 불면서 암호화폐는 그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려졌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진 이념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새 시대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기술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암호화폐도 사용하는 이와 상황에 따라 긍정/부정의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불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불교와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 유지 공동체가 관건

암호화폐는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통화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일단 실재세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상세계에 존재하기에 가상이며, 암호체계로 만들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암호라는 명칭을 갖는다. 화폐처럼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금처럼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보증에 의해서 발행되는 게 아니다. 2016년도 1월에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상통화와 그 너머:초기 고려사항들〉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통화에 가상통화가 있으며, 암호 통화(Crypto Currency)는 그 하부의 범주에 분류되어있다. 디지털 통화는 페이팔을 비롯한 온라인상의 통화를 말하며, 가상통화는 디지털 통화 가운데에서 법정통화가 아닌 자체 화폐 단위로 거래되는 게임머니 등을 말한다. 암호통화는 가상통화 가운데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신용을 보증해 줄 중앙정부가 없이 암호코드에 기반하여 발행되는 통화를 말한다.

암호화폐는 간단하게 말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기여한 참여자들에게 주는 보상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에서는 중앙컴퓨터에 모든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기에 정보의 변조, 또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위험을 제거하고 온라인상에서 복제되지 않고, 해킹되지 않는 데이터 저장시스템으로 개발된 것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이란 각각의 데이터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시켰다라는 의미로,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분산저장과 체인 방식을 사용한다. 블록체인은 금융데이터를 하나의 중앙 컴퓨터가 아닌 네트워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같은 자료들을 분산 저장하고, 새로 송금데이터가 생성되었을 때 이를 전송하여 송금내용이 적법한지 확인한다.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채굴자라 불리는 참여자가 자신의 컴퓨터의 일부를 검증과정의 계산에 사용할 수 있게 내어주어 블록의 생성을 돕는다. 생성된 블록에 새롭게 이루어진 송금데이터들을 기록하고 이전의 장부에 연결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변조할 수 없는 불변의 데이터가 된다. 이전의 데이터들과 체인처럼 연결되어 여러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된 기록의 변화는 다른 컴퓨터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암호화폐는 검증과정에 참여하여 블록을 생성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갖게 되는 보상금으로, 새로 생성한 블록에 다른 송금기록들과 함께 기록에 남는다. 한번 기록된 기록은 변질되지 않기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암호화폐의 주요 가치는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이론적으로는 빠른 속도의 컴퓨터를 가진 이가 있다면 변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컴퓨터들의 검증속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중앙 통제 센터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기존의 통화는 국가의 보증에 따라 각 국가가 필요에 따라 발행해왔으며 국가가 통제해왔다. 그러나, 암호통화는 국가의 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학적 문제를 풀어주면 통화가 발행되기에 국가나 특정집단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 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암호화폐를 기존의 중앙 집중적 세계관을 해체하고, 공유와 평등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의 기폭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암호화폐 체계에는 중앙통제 센터가 없는 대신에 각각의 통화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받쳐주는 공동체가 존재하며, 암호화폐는 이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실제로 암호화폐 가운데에 하나인 스팀달러는 스팀 공동체가 커지면서 공동체원들 간의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암호화폐는 단순히 불변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이나 일확천금의 투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대안적 통화시스템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제안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 시스템은 화엄세계 연상

암호화폐는 그 속성과 구조 측면에서 불교사상과 접점을 갖는다. 우선 암호화폐의 가상성은 무아(無我)를 아(我)로 집착하고 욕망을 내고 괴로움을 내는 인간 마음의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상품으로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숫자에 불과한 허상의 암호화폐에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소유하고자 하고, 그로 인해 희비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괴로움을 느낀다. 그런데, 블록체인기술의 개발이유가 나의 소유권을 불변의 돌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놓고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암호화폐가 욕망의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또한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저장과 네트워크 연결 구조는 의외로 화엄적 세계를 연상시킨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모든 데이터는 개개의 컴퓨터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마치 인드라의 망에서 각각의 구슬들이 서로서로를 비추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인드라망에 서로 연결된 구조
사이버 불교공동체에 적용 가능
사이버 명상 참여, 동기 부여
전 지구적 수행 공동체 구성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개개의 컴퓨터가 인드라 망의 구슬처럼 서로서로를 비추는 것이라기보다는 데이터라는 공통분모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는 화엄에서 이야기하는, 개별개체들이 서로 서로 각각의 특성을 지니면서 서로 융섭하는 사사무애 법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데이터라는 이치를 담지한 이사무애 법계와 같다. 화엄의 구조와 유사성을 보이지만, 사사무애적 인드라망의 구조의 단계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각 블록 데이터의 안전성과 영원불변성이 블록체인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전체 법계의 세계가 영원한 것과 유사성을 보인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세계는 종종 화엄의 세계와 유사하다 일컬어지는데, 암호화폐의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불교와 이 같은 접점을 갖는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은 불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2017년 8월 하이테크 불교를 지향하는 로토스 네트워크(Lotos network)는 암호화폐 기술을 받아들여 사이버 불교공동체에서 사용할 카르마 토큰스(Karma tokens)를 제안했다. 이들의 시도는 최초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일단 이들의 시스템은 불교적이라 하기 어렵다. 이들이 제안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 코인이지만, 앞서 언급한 게임머니 수준의 가상통화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카르마 토큰스는 사이버 불교 공동체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지불할 때 구매하며,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이버 명상에 참여할 때 보상으로도 받는다. 카르마 토큰스는 국경이 없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갖기에 공통통화 체계 하에서 전 세계의 불교 수행자들이 손쉽게 불교의 가르침을 제공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명상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은 불교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들이 비판하는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카르마 토큰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금전흐름의 투명성은 미국 내 불교도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들의 주장에는 기성조직이 금전적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기에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미국 내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로터스 네트워크의 궁극적 목표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불교도들 간의 탈중앙집중화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불교의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불교의 문제점을 잘못 설정한 결과, 아직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수행공동체의 투명한 경영과 가상화폐를 활용한 글로벌 수행공동체는 미래 불교 수행경제 공동체의 탄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암호화폐와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불교의 화엄적 세계관과 유사성을 보이면서 허상에 집착하는 고통의 윤회의 메카니즘을 잘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그 기술이 제시하고 있는 탈중심적이며 분권적 세계관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가진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비록 그 시작은 인간의 소유욕을 지켜주기 위한 것었으나, 잘 사용한다면, 암호화폐는 로토스 네트워크를 시작한 이들이 꿈꾼 이상적인 전지구적 수행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혜경 교수(연세대 연구교수)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지원사업 공고

세상과 함께하는 맑은 힘
전법교화활동, 이제는 교육원이 지원합니다





전법교화 활동



강의 • 설법
어린이, 청소년, 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 · 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자비보살행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사회활동
인권 · 노동 · 환경 · 통일 · 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생활불교 지도활동
참선 · 선무도 · 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지원사항
-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 부여
-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신청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구 분	신청기간	결과발표
승려연수 인증	공고일~4월 30일(월)	5월 중
보조금 지원	공고일~5월 31일(목)	6월 중

- 결과발표는 조계종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문의 및 접수처
-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lovelove0222@buddhism.or.kr)
- 각종 서식은 www.buddhism.or.kr 공지사항 3128번에서 다운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담당:홍선영 주임) 02-2011-1817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2층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도굴꾼 탐욕에 사라진 옛 고승 진영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④ 상주 남장사의 도난 성보

사찰에서 도난당한 수많은 불교회화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종류는 신중도, 독성도, 산신도, 진영 등이다. 이 불화들은 규격이 작아 오려내기 쉽고,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지 않아서 일반 수집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가운데 진영은 고승(高僧)이나 조사(祖師) 등을 그린 그림으로 영정(影幀)이라고도 부른다.

진영은 일반 초상화와 달리 신앙의 대상인 종교미술로, 스님이 살아있을 때 제작되거나 입적(入寂)한 후 불화승을 모시고 그리게 하였다. 스님이 열반하신 후, 다비에서 나온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부도를 세우고 석비(石碑)를 건립하면서 진영은 별도의 공간인 진영각(眞影閣)에 모시게 된다. 해마다 기일(忌日)이 되면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여 스님을 기리는 제(祭)를 행하였다. 따라서 노장 스님들이 거주하던 사찰 진영각에는 창건주와 역대 고승들의 진영 수십여 점이 봉안된 예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진영이 봉안된 사찰은 유명한 산에 있는 대찰(大刹)이나 산 속의 작은 사찰이라도 고승대덕이 머물던 곳이다. 특히, 경북 지역은 산세가 깊고 풍광이 좋아 작지만 알찬 사찰들이 많은데, 문경 김룡사,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등은 조선후기 고승 진영이 가장 많이 모셔졌던 곳이다. 그 가운데 상주 남장사에 있던 진영들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 총 32점 가운데 현재 9점만이 남아있다.

남장사는 상주 노악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로, 조계종 제8교구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이다. 남장사는 832년에 진감국사(眞鑑國師)가 창건하여 장백사(長柏寺)라 이름을 지었고, 1186년에 각원(覺圓) 스님이 현 위치로 옮겨 남장사라 하였다. 1203년에 금당(金堂)을 신축하고, 1473년에 중건하였지만, 임진왜란 기간 중에 소실되어 전쟁이 끝나고 1621년에 명해(明海) 스님이 영산전(靈山殿)과 1635년에 정수(正修) 스님이 금당 등을 중창하였다. 이후 1704년에 진영각(眞影閣)을 신축하고, 1709년에 민세(旻世) 스님이 영산전을 중수하였으며, 1761년에 상로전(上爐殿)을 새로 건립하였다.

또한 1856년에 진허(鎭虛) 스님이 극락전과 조사각을 중건하고, 1867년에 응월(應月) 스님이 영산전을 중수하였으며, 1889년에 보광전을 건립하였다. 남장사는 1903년에 함월(涵月) 스님이 칠성각을 건립하고, 1907년에 덕암(德巖) 스님이 염불당(念佛堂)을 세웠다.

따라서 진영과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1704년에 진영각을 새로 짓고, 1856년에 조사각을 중건한 것을 보면, 18세기 전반에도 상당히 많은 진영이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구체적으로 어느 스님의 진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진영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면, 도난 이전 진영은 진영각과 관음전에 나누어 봉안되어 있었다.

이 진영에 대해서는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상주 남장자 재산대장에 '달마조사(達摩祖師), 나옹존자(懶翁尊者), 진감국사(眞鑑國師), 환적선사(幻寂禪師), 청허화상(淸虛和尙), 사명화상(泗溟和尙), 조영당(昭影堂), 백설당(栢雪堂), 백봉당(白峰堂), 만성당(晩醒堂), 상남당(尙南堂), 인월당(印月堂), 환성당(喚醒堂), 포월당(抱月堂), 취진당(醉眞堂), 월송당(月松堂), 계허당(桂虛堂), 환응당(喚應堂), 쌍운당(雙雲堂), 충허당(w虛堂), 취봉당(醉峰堂), 쌍월당(雙月堂), 성파당(星波堂), 성파당(性波堂), 쌍원당(雙圓堂), 계허당(繼虛堂), 기암당(奇岩堂), 은봉당(隱峰堂), 남월당(南月堂), 성봉당(聖峯堂), 노은당(盧隱堂), 응월당(應月堂)' 으로 총 32점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었다. 1932년 12월에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소장품목록에 조사영탱이 31점으로 줄어들었지만, 정영호 교수가 조사해서 간행한 〈상주지역 고적조사보고서(단국대 출판부, 1969)〉에 남장사 유적과 유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았다.

도난 이전, 응향각에 봉안된 진영 가운데 달마조사진영의 하단에 '嘉慶十七年ㅁㅁ」月十八日南長寺ㅁ」宗像同時新ㅁ…」成奉安于…' 라는 화기가 적혀 있고, 화면의 구성과 자세 및 색의 사용 등이 유사한 진영은 1812년(가경17)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진영들의 크기는 약간이 차이가 있지만, 세로 114㎝×가로 78.7㎝와 세로131.3㎝×가로83.6㎝로 나뉘어져 진영의 조성시기와 작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관음전에 봉안된 진영은 총 20점으로,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재산대장과 정영호 교수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69년까지 진영들이 보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영각과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던 진영은 1991년 2월 27일에 도난당해 〈불교문화재 도난문화재 증보판(2017)〉에 22점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도난된 진영 22점 가운데 노은당대선사장현 진영과 쌍원당대선사민관 진영은 현재 관음선원에 소장되어 있다(〈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Ⅱ①〉).

이외에도 관음선원에 기암당대선사연 진영, 남월당대선사수행 진영, 성파당대선사도언 진영, 성파당대선사우삼 진영, 은봉당대선사서규 진영, 응월당대선사인문 진영, 취봉당대선사포현 진영이 봉안되어 있기에 32점 가운데 9점이 남장사에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원래 있던 32점 가운데 9점이 남아있고 총 23점이 없어진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포월당초민대사 진영, 쌍월당대선사 채붕 진영, 성봉당대선사길선 진영은 도난된 상황이라면 사찰에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나 종단에 도난 신고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없어졌지만 사진이 확인되지 않는 진영 일부는 정영호 교수의 보고서를 참조하면 규격과 화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쌍월당대선사채붕 진영에 대해서는 '118.6㎝×81.4㎝로, 뒤에는 칠폭(七幅)병풍을 두르고 수놓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수(右手)로는 염주(念珠)를 넘기고 있으며 좌수(左手)로 가늘고 긴 석장(錫杖)을 잡고 있다. 목에는 뚜렷한 삼도(三道)의 표식이 있음이 흥미롭다' 라고 쓰여 있다. 대략 화문석 위에 앉아 있으며 염주와 석장을 든 자세를 취한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도난 이전에 촬영된 사진만 구한다면 진영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사찰에서 외부로 유출된 진영은 박물관이나 개인의 수집과 관람의 대상이지만, 고승 진영은 선불교의 융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사 신앙의 예배 대상이라서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다. 따라서 진영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의 표상과 종교적인 상징성을 올바로 찾기 위해서는 사찰 밖으로 유출된 진영들의 현황이 시급하게 공개되고 연구되었으면 한다.

사찰을 떠나 속세에 있더라도 단지 아취로서의 수집과 작품 관람의 대상이 아닌 한국불교에 족적을 남긴 큰스님의 삶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의 말사인 남장사에는 달마조사를 비롯해 32명의 조사 진영이 있었으나 지금 23점이 도난된 상황이다. 사진 왼쪽부터 달마조사진영(남장사 진영각, 1991년 도난), 진감국사진영(남장사 진영각, 1991년 도난), 월송대선사상청진영(남장사 관음전, 1991년 도난)

고승 진영 32점 간직했던 남장사
현재 9점만… 대부분이 '오리무중'
1969년 조사엔 존재, 이후 도난

진영은 韓 조사 신앙의 중요 사료
제자리에 있을 때 바른 의미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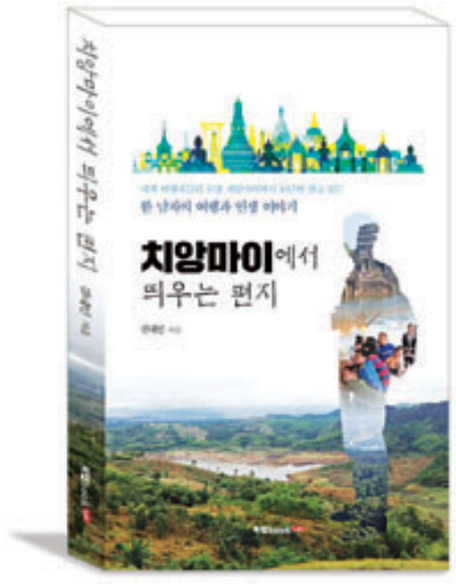
조선총독부의 재산대장 중 남장사 진영 목록.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서 소장 중이다.

상주 남장사 진영의 시기별 조사 현황

	남장사 재산대장	상주지역 고적조사보고서 (1969년 간행)	불교문화재 도난문화재 증보판 (2017년 간행)	비 고
1	달마조사	達摩祖師眞影	達摩祖師眞影	도난 신고
2	나옹존자	懶翁尊者眞影	懶翁尊者眞影	〃
3	진감국사	眞鑑國師眞影	眞鑑國師眞影	〃
4	환적선사	幻寂禪師眞影	幻寂禪師眞影	〃
5	청허화상	淸虛和尙眞影	淸虛和尙眞影	〃
6	사명화상	泗溟和尙眞影	泗溟和尙眞影	〃
7	소영당	昭影堂眞影	昭影堂眞影	〃
8	백설당	栢雪堂大禪師贊修之眞	栢雪堂大禪師贊修眞影	〃
9	백봉당	白峰堂大禪師信嚴之眞影	白峰堂大禪師信嚴之眞影	〃
10	만성당	晩醒堂大禪師元曄眞影	晩惺堂大禪師元曄眞影	〃
11	상남당	尙南堂永察禪師之眞影	尙南堂永察禪師眞影	〃
12	인월당	先師印月堂大仁之眞	先師印月堂大仁眞影	〃
13	환성당	喚醒大師之眞	喚醒大師眞影	〃
14	포월당	抱月堂楚旻大師之眞		도난 미신고
15	취진당	醉眞堂處淋大師之眞	醉眞堂池淋大師眞影	도난 신고
16	월송당	月松堂大禪師尙淸之眞	月松堂大禪師尙淸眞影	〃
17	계허당	桂虛堂靈心大師眞影	桂虛堂靈心大師眞影	〃

	남장사 재산대장	상주지역 고적조사보고서 (1969년 간행)	불교문화재 도난문화재 증보판 (2017년 간행)	비 고
18	환응당	宗正都摠攝喚應堂之眞影	宗正都摠攝喚應堂眞影	〃
19	쌍운당	八道糾正兩宗正事雙雲堂大禪師之眞	八道糾正兩宗正事雙雲堂大禪師眞影	〃
20	충허당	w虛堂大禪師旨册之眞影	w虛堂大禪師旨册眞影	〃
21	취봉당	翠峰堂大禪師抱玆之眞		관음선원 봉안
22	쌍월당	雙月堂大禪師采朋之眞		도난 미신고
23	성파당	星波堂大禪師友三之眞		관음선원 봉안
24	성파당	性波堂大禪師道彦之眞		관음선원 봉안
25	쌍원당	雙圓堂大禪師敏寬之眞	雙圓堂大禪師敏寬眞影	관음선원 봉안 (도난신고 오류)
26	계허당	繼虛堂大禪師普演之眞	繼虛堂大禪師普演眞影	도난 신고
27	기암당	奇庵堂大禪師演之眞		관음선원 봉안
28	은봉당	隱峰堂大禪師瑞奎之眞影		관음선원 봉안
29	남월당	南月堂大禪師守幸之眞		관음선원 봉안
30	성봉당	聖鳳堂大禪師吉璇之眞影		도난 미신고
31	노은당	魯隱堂大禪師莊賢之眞影	魯隱堂大禪師莊賢眞影	관음선원 봉안 (도난신고 오류)
32	응월당	應月堂大禪師寅文眞影		관음선원 봉안

* 남장사 재산대장은 20세기 전반에 작성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 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 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부처님 복장점안 장엄구

제불보살 및 각종 산신 · 나한 · 독성 · 탱화 · 개금불사



40년 장인 정신이 함께 숨쉬는 곳
유상아트공예

■ 구입상담문의 | 전화 : 031)314-3542 H·P : 010-3727-1577
■ 불복장의식문의 | 일여스님(불복장의식 연구소장) H·P : 010-9598-0361
■ http://cafe.daum.net/jo sang Gyeong 다음카페 → 조상경복장단의식
■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392-2

재가종무원 사기 진작이 불교 발전 원동력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④ 사찰경영은 인재경영



승진은 직장인의 희망이자 노력의 보상이다. 승진은 책임수준이 높은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보수가 오르고 보다 큰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승진을 희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종교단체에 재직하는 재가종무원에게 있어서도 승진은 희망이자 노력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들은 재가종무원의 승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중앙종무기관 재가종무원은 부국장까지만 승진할 수 있는데 비하여 출가종무원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국장급부터 시작하며, 실장과 부장급은 전원 스님이다. 일반적으로 재가종무원이 20년 정도 근무했을 때 국장의 아래 직위인 차장이 될 수 있음에 비하여 중앙종무기관의 스님들은 대부분 국장에서부터 소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의 문제는 스님은 국장에서부터 소임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가종무원이 부국장 이상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부국장까지가 아니라 그 아래 직위인 차장까지만 승진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재가종무원의 승진 직위 제한은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 인사행위인가?

재가종무원의 승진 직위 제한은 승(僧)과 속(俗)이라는 불교교단의 종교적 신분 질서가 세간의 행정조직에서도 이분법적으로 고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조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단체라고 하면 그 대표는 종교인 혹은 성직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실무 역량이 주요시 되는 직위와 직급이라면 출가와 재가의 구분에 의한 원천적 승진 제한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계종의 국장 등 중앙종무기관의 중간 직위를 재가종무원에게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조계종의 부 · 실장은 사무적 ·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적 소임이 아니라 종단의 대내외 업무와 상황을 정치적으로 인식하여 판단을 내리는 정무직이다. 국장은 외견상으로는 출가와 재가의 업무 연결 고리로써 정무와 실무를 병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무는 총무원장 스님이 주로 부 · 실장 스님들과 직접 논의하여 결정하고, 실무는 재가종무원들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장 스님들에 비하여, 부 · 실장 스님들은 법랍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에 정통하고, 차장 및 행정관들은 다년간의 종무원 생활을 기반으로 실무에 정확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장 스님들이 정무와 실무의 두 영역 사이에서 애매한 입지에 놓여 있음을 추정케 한다.

재가종무원의 승진 직위 개방과 관련하여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직위 개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였다. 그러던 관행이 2003년 비구니인 탁연 스님의 문화부장 임명으로 깨졌다. 통합종단 출범 이후 41년만이다.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비구니 스님에게 종단 고위직을 개방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계종단 내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종단에서 부장 소임은 본사 주지급이기에 그 자리를 비구니한테 준다는 것은 당시 상당수 비구 스님들의 정서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반발 정서에는 팔경계법(八敬戒法)에 대한 인지도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 비구니 스님의 종단 진출은 확대 정착되는 추세이다. 이는 비구 중심의 종단 운영 관행과 비구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비구니 스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주요종단들은 사부대중 공동체를 선언하고 있으며, 종단의 헌법인 종헌은 종단이 사부대중으로 구성됨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조계종의 오늘은 1994년과 1998년 종단의 혼란기에 재가자, 특히 재가종무원들이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 주체로서 종무행정을 수호하였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시에는 재가자의 종단 진출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출가자의 동지적 약속도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미완이다.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하여서 출가와 재가,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가 절대적 평등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남녀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 평등이 존재하듯이 종교적으로 출가와 재가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 평등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재가종무원이 차장까지 밖에 승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인가? 종무행정은 사판의 영역으로 재가자의 업무 성격이 강한 분야이다. 다만 종무행정이 종단의 운영을 책임지는 업무이기에 그 대표권과 주요 결정에 있어서 출가자가 중요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국장이나 차장 등 중하위직까지로 재가종무원의 승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관념으로는 물론이고 불교의 관점에서도 온당한 처사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불교적으로는, 한국불교가 부처님께서 혁파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바라문적 신분질서'를 현대사회에 적용하려는 모양세로 비춰질 수도 있다.

종단의 한 구성원, 재가자
종단 행정 구조서 평등 추구 관건
승진의 유리장벽 철폐해야

바라문적 사회질서란 사회의 최상위 계급으로 군림했던 종교 의례와 제사의 권리를 독점했던 종교 사제인 '바라문'을 정점으로 하여, 정치력과 경제력을 장악했던 왕족인 '크샤트리아'가 차상위 계층을, 농업 · 목축업 · 상업에 종사했던 서민인 '바이샤'가 그 다음 계층을, 그리고 비천한 노역에 종사했던 노예인 '수드라'가 사회의 최하위 계층을 구성하는 사성(四姓)으로 이루어진 계급사회적 신분제도를 지칭한다. 물론 태어남에 의하여 한 번 정해진 계층은 바뀌지 않는다.

종무행정은 출가 스님이 아닌 재가 신도의 본분사(本分事)임에도 불구하고, 재가종무원의 승진 직위를 중하위 직위로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견 인도 계급사회의 고착적 신분제도인 바라문적 사회질서를 오늘날 한국불교사회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종교조직으로서의 대표성 내지 상징성이 아니라 업무의 현장성이 중요한 분야의 직위에 대해서는 재가종무원의 승진 직위를 현재보다 상위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재가종무원의 승진 직위를 개방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우선, 재가종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그들의 '종무행정 경험의 활용'을 손꼽을 수 있다. 현재 조계종 재가종무원의 최고 직위인 차장은 5명 정도이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상당수의 인력들은 팀장 내지 행정관의 직위에 있다.

차장들은 보통 20년 이상 근무한 50대 초중반이며, 종무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 및 행정관들 역시 20년 전후로 근무한 40-50대의 인력들이다. 50대 초중반의 차장은 종헌에 보장된 정년인 65세까지는 근무연한이 10년 이상 남는다. 여기에서 인사적체의 문제가 발생한다. 차장과 연배나 근무기간이 비슷한 팀장 및 행정관들도 승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근무연한이 남은 차장은 다시금 이전의 직위로 내려가거나 퇴직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가종무원의 승진 직위 개방은 만연한 인사적체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한 두 개의 직위일 수도 있으나 승진이 가능한 상위 직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차장급 재가종무원의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차장급 재가종무원의 조기퇴직을 방지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풍부한 종무행정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종무원은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는 특수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경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기도 양성하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장기근무 재가종무원의 퇴직을 막아 경험을 종단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불교종단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그 다음의 효과로는 재가종무원의 '사기 앙양'을 들 수 있다. 사기란 자발적 · 적극적인 근무의욕 · 근무태도를 의미한다. 사기는 물질적 보수, 성공감, 안정감, 인정감 등에 의하여 앙양될 수 있다. 승진은 이와 같은 사기 앙양의 요인을 두루 갖추고 있다.

승진은 보수의 상승으로 인한 안정감과 더불어 지위의 상승으로 인한 성공감을 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수와 지위의 상승은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준다. 이에 재가종무원의 승진 직위 개방은 좋은 사기앙양 방안이 된다.

그런데 일선사찰 재가종무원과는 달리 중앙종무기관 재가종무원의 고용 안정성은 공무원처럼 '철밥통'이 되어가고 있다는 교계의 날선 목소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고용 안정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재가종무원의 책임의식과 업무능력의 제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그들이 그렇게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리적 · 합법적 절차를 갖춰서 퇴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재가종무원에 대한 승진 직위 개방을 출가종무원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이 출가 스님과 재가 신도간에 소위 밥그릇 싸움처럼 인식되어서는 더욱 곤란하다. 재가종무원의 승진 직위 개방은 재가종무원이 본분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현실적 방안이자, 그를 통하여 출가와 재가가 순치(脣齒)의 관계로써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해나가는 상징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10대 회장이시며 현 고문이신
벽담당 학명 대종사 영결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말씀

49재 추모 안내 (매주 월요일 10시)

초재 | 2월 16일 | 하남 성불사
2재 | 2월 26일 | 총동림동문회 용인 동도사
3재 | 3월 5일 | 하남 성불사
4재 | 3월 12일 | 총동림동문회 용인 보구정사
5재 | 3월 19일 | 하남 성불사
6재 | 3월 26일 | 하남사암연합회 정심사
7재 | 4월 2일 | 하남 성불사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2월 13일 원적에 드신 대한불교조계종 성불사 주지이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고문이신 벽담당 학명 대종사의 영결식을 2월 15일 남한산성 성불사에서 성불사 신도회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조문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큰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동국대학교 이사장님, 총장님, 여러 교수님들, 원로 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국대학교에 대한 애정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신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불기 2562년 2월 15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회장 혜정

명예회장 무문 수석부회장 도원. 원행 부회장 하담. 승현. 해인
사무총장 지담 재 무 지선. 지련. 법신 등 총동림동문회 회원 일동 합장

사람은 '습'으로 모습을 이룬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⑧ 담마빠다

〈소부(小部)〉. 즉, 〈쿳다까니까야〉에 주옥같은 경전들이 많지만 특히 진리의 말씀(Dhamma pada)인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고민과 외로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세밀하게 설해져 있다.

〈법구경〉은 26개의 장에 423편의 시(詩)로 이루어져 있다. 26장의 품들은 '오늘'은 인간에 대한 행동규범에 관해서, '깨어있음'은 검소하고 근면한 삶을, '마음'은 마음에 관한 긍정적이며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꽃'은 들꽃에 비유하여 우아하고 섬세한 불멸의 세계를 가르치고, '어리석은 이'에서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판하고, '폭력'에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폭력은 절대 안되다는 가르침을 '자기 자신'은 나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가득하다. 부처님께 듣고 싶었던 내 삶에 위안이 되는 말씀들이 시가 되어 별처럼 빛나고 있어 읽고 있으면서도 또 읽고 싶은 경전이다.

보이지 않으며 볼 수도 없고 미묘한 것,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상상하며 날아간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니 그 마음이 행복이다. - 게송 36번

아난 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있던 5명의 불자를 보고 놀랐다. 한 사람은 쿨쿨 자고 있었고,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무의미하게 땅을 후벼 파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나무를 괜스레 잡아 흔들며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사람은 망연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고 오직 한 명만이 설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은 감로수와 같은데 저런 모습을 보니 답답합니다. 딱 한 사람만 집중해서 설법을 듣고 있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난아, 그것은 이들의 전생의 삶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을 땅을 파는 이는 전생에 지렁이로 오백생을 흙 속을 파고들며 살았기 때문에, 저기 나무를 흔들고 우왕좌왕하는 이는 지난 오백생을 원숭이로 살았기 때문이고, 하늘을 쳐다보던 이는 오백생을 하늘의 천문을 연구하고 별자리를 공부하며 점을 치던 사람이란다. 이들은 모두가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래의 설법을 만나고도 가르침을 놓치고 있다. 아난아, 여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이는 지난 오백생에 항상 브라흐만 으로 태어나 성전을 독송하는 데 열정적이었다. 그 덕분에 오늘 여래의 법문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아난에게,

"아난아, 너는 여래의 법문이 매우 듣기 쉬운 것으로 아는 듯하구나. 세상의 많은 중생들이 과거 억겁에 걸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해서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런 그들이 여래의 법문을 만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육도에 윤회하며 살아온 삶의 흔적이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받고도 노래하고 춤추며 마시고 취하는 일에 빠져있을 지열정 여래의 법문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이들이 있지 않느냐."

"이들은 욕망 때문에 여래의 설법을 들을 수 없다. 바로 성냄과 증오와 어리석음 때문이다. 욕망의 불꽃보다 더한 불꽃은 없다. 욕망의 불꽃이 모든 중생을 모조리 태워버려 한 점의 재도 남겨두지 않는 무서운 것이다. 욕망의 불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고, 성냄보다 더 잘 얽매이고 붙잡는 것이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깊은 나락은 없다.

이 삼독이 그들의 앞길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곳이면 언제나 법회에 참석하여 졸거나 망상피지 말고 더욱 정진해야 한다.

욕망보다 더 뜨거운 불길은 없고, 증오보다 더 질긴 밧줄은 없다. 어리석음보다 더 단단한 그물은 없고, 탐욕보다 더 세차게 흐르는 강물은 없다. - 게송 251

〈서울 반야사 주지〉

여성과의 추문에 동요한 마음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⑦ 선지식에 대한 의심

무슨 생각이든지 다 부처님께 바칠 수 있다면 선지식에 대한 의심까지 부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어려운 것, 힘든 것은 다 바칠 수 있어도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고 말한 선지식에 대한 의심을 바치기 힘들었다. 선지식이 의심된다면 어찌 선지식이 시키는 '바치는 일'이 제대로 될까? 사실 군에서 제대하고 백 박사님 문중으로 출가할 당시, 어머님께서는 출가를 강력히 만류하셨다. 먹고 살기가 힘든 가정 형편에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 출가 수도를 한다면 출가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백 박사가 도인이라고? 너 정말 그 말을 믿느냐? 내가 얼마 전 부천에 가서 백 박사님 소문을 들었더니 함께 있는 딸 뻘의 젊은 여자와 함께 산다 하는데, 네가 말한 백 박사가 청정도인이라면 어찌 애욕을 해탈지 못하고 젊은 여자와 살수 있단 말이냐? 그런 사람이 어찌 도인이라 믿고 출가를 해." 이렇게 퍼붓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며 출가하여 공부하려는 마음이 위축되는 순간 "부처님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태산같이 하라"던 선지식의 법문이 생각났다. "어머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잘못 안 것이에요. 선생님 제자 중 김씨 성을 가진 도반이 그러는데 백 선생님께서는 70세가 넘도록 상좌도 두시지 않고 홀로 사시는 청정비구라 해요. 그 젊은 여자란 동국대 총장 시절부터 비서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부인이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것이에요."이런 말로 얼버무렸다. 그런데 출가하여 각종 분별심을 잘 바치며 이제는 어떤 분별심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던 어느 날, 막연하게 선지식에 대해 가졌던 불신에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일이 벌어졌다.선지식이 계신 도량에는 나보다 1년 이상 먼저 들어온 김씨, 이씨 성을 가진 두 도반이 있었다. 어느 날 몹시 고단하여 〈금강경〉을 읽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고단함에 못 이겨 두 도반들 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 잠결에 두 사람이 이야기 소리에 후닥 잠이 깨게 되었다."선생님 곁에 자주 드나드는 그 젊은 여자는 누구지?"이씨가 김씨 도반에게 물었다."그 사람 동국대 있을 때 선생님 비서로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사모님(선생님 부인)이라는 거야."김씨 성을 가진 도반은 아주 태연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김씨 성을 가진 도반은 백 박사님을 청정비구라고 나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었다. '비서가 아니야 사모님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설픈 선잠이 확 달아났다. '아, 내가 속았구나! 선생님께도 속았고 도반에게도 속았구나!' 1년 전 눈물로 나의 출가를 극구 만류하던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아침, 금강경을 읽는 둥 마는 둥 맥이 빠진 상태에서 겨우 우유를 식히려고 선생님이 계신 아래채로 내려가려는데, 저 아래 약 20m 앞에 선지식과 그 사모님이라는 문제의 여자가 나란히 문을 나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끼면서 내 입에서 '에이~ 더러운 것들' 하는 불경스런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같았다.이때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약 20여 미터 되는 먼 곳에서 선지식께서는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어이 이 사람, 어제 밤에 큰 일 치렀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우렁찬 큰 소리에 나는 순간 정신이 확 들면서 졸도할 것 같은 어지러운 마음도 순간적으로 가라 앉았다. '어, 엊저녁에 큰 일 치렀네.' 그려면 선지식께서는 내가 밤새 잠을 못잔 사연을 정말 아시고 하신 말씀인가? 중생도 분별심을 닦아 분별심이 사라지면 부처님처럼 다 알게 된다더니 선생님께서도 부처님께서 아시듯 내 마음을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타심통의 도사라더니 정말 선지식께서는 정말 타심통을 하신 것인가?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成佛로 가는 지름길 '이뭣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참선에 대해 말하시기를 "설사 역천만겁 동안 나의 깊고 묘한 법문을 다 외운다 하여도 단 하루동안 도(道)를 닦아 마음을 밝힘만 못하느니라. 내가 아난과 같이 멀고 먼 전생부터 같이 도에 들어 왔다. 그러나 아난은 항상 글을 좋아해 글 배우는데 힘써 왔기 때문에 이제 까지 성불하지 못했지만, 나는 반대로 참선에만 힘써 도를 닦았기 때문에 벌써 성불하였다"고 하셨다. 간화선 '이 뭣고'는 밖으로 상(相)에 매여있는 중생들을 내안의 공성(空性), 불성(佛性)으로 회귀(回歸)시키는 일대사 인연(因緣)인 것이다. 아상(我相)이 떨어져 나간 그 공성(空性) 자리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래야 볼 수 없는 오직 모르고 모르는 일을 마친 사람의 경계(境界)이며 본래 내 고향인 것이다.

'이 뭣고'는 이주 정성스럽고 지극하고 간절하게 오직 모르는 당처인 '이'에 대고 하는 것이다. '이 뭣고'는 내 자성불과 마음속에 함께 하는 인간 세상을 향해 불도(佛道)의 장애를 주관하는 타화자재천의 우두머리인 마구니 마왕(魔王) 파순(波旬)이 하고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일체 불안(不安)과 시비(是非)와 속박(束縛)서 벗어나 자유롭고 존귀(尊貴)하게 하는 것이고 우주법계의 왕이 되는 것이다. '이 뭣고'는 성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고리이니, 한 생각만 뒤집으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중생의 분별심(分別心)은 생사윤회의 길잡이가 되지만, '이 뭣고'는 생사(生死)의 굴레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광명(光明)이니, 그 자리와 하나가 되면 절대 행복만이 상존(常存)하는 극락세계인 것이다. 그러니 밥 먹으면서도 밥 먹는 이놈이 무엇인지 걸을 때도, 일할 때도,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울고 웃을 줄 아는 이놈이 무엇인지 되묻는 '이 뭣고' 밖에 없는 것이다.

밖으로 상에 매인 중생들을 내안의 공성과 불성으로 회귀시키는 일대사 인연(因緣)이 바로 간화선 '이뭣고'

종일수타보(終日數他寶) 자무반분전(自無半錢分)이라는 말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종일토록 남의 보물을 세어도 나에게는 반 푼어치의 이익이 없다"는 의미이다. 언제 다시 인간몸을 받아 불법을 만나 깨쳐 본래의 내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그물에 천 코가 있지만, 고기가 걸리는 것은 '이 뭣고'의 한 코인 것이다.

옛날 염관(鹽官) 스님 문하에 7백여 제자 중 쉬일 스님이란 분이 계셨다. 이 스님은 나이가 50세가 넘도록 매일 대중 스님들의 뒷바라지만 하고 공부는 게을리 하며 허송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이 저녁 법당 옆을 지나가는데, 9척 장신이나 되는 험상궂은 남자가 시커면 옷을 입고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 누구요?"라고 스님이 물으니 "염라대왕이 당신을 끌고 오라고 해서 왔소."

내가 스님 시봉과 대중들 뒷바라지나 하다가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염관 스님 법문에 "7일만 목숨 걸고 참선하면 해탈한다고 했소, 그러니 나에게 1주일만 시간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고 간절히 애원했다. 그러자 그 험상궂은 사내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 염라대왕에게 허락 받고 오겠다"고 말하고는 돌아 갔다. 이런일이 있은 후 쉬일 스님은바로 그 자리에 앉아 '이 뭣고' 화두를 간절히 들었다. 바늘귀에 실이 쏙 들어가듯이 '이 뭣고' 삼매三에 빠져 버리니, 저승사자가 7일 후에 다시 와서 아무리 그 시자를 찾아도 몸뚱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우리도 7일만 삼매에 들면 저승사자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반드시 해탈 하겠다는 큰 원력을 갖고 '이 뭣고' 수행을 하면 금생에는 성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강한 믿음이 든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53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4월 2일(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일 주 문



광동학원 이사장 재임

일면 광동학원 이사장 스님은 2월 14일 열린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회서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임기는 2022년 6월까지.



18주기 운경 스님 기신재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3월 10일 오전 10시 경내 청풍루에서 제18주기 운경 스님 기신재를 봉행한다.



동국대 LA캠퍼스 후원

성효 학교법인 동국대 사무처장은 2월 28일 동국대 이사장실서 동국대 LA캠프서 발전기금 미화 1만 달러를 기탁했다.



10대 언론사불자회장에

정일태 제9대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은 2월 22일 조계종 여의도포교원에서 제10대 회장에 연임, 공식 취임했다.

신임 스카우트불교연맹장 (사)동련 이사장 성행 스님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제2대 연맹장에 성행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2월 27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연맹장에 성행 스님을 추대했다.

성행 스님은 그동안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경기남부지역전법단장,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의왕 청계사 주지로 있다. 노덕현 기자

선상신 BBS사장, 고대언론인상 수상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사진〉이 종교방송과 한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4회 장한 고대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선 사장은 2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 열린 고대언론인교우회 창립 32주년 기념식에서 이 상을 수상했다. 선 사장은 "기자로 생활하며 불교와 세상의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금도 부처님의 중도사상을 기반으로 사회 이슈를 바라보고,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 사장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BBS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장과 보도국장을 지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를 거쳐 지난 2015년 9월 제9대 BBS 사장에 취임했다. 신성민 기자

"이제는 회향하지만 끝 아닌 새 자비행"

Interview

마지막 장학금 전하는 이대원성 내생장학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앙승가대에 3000만원
영천 선화여고 1000만원
"모임보다 개별 후원 진행"

"그동안 마음을 모아준 불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제 함께 뜻을 모은 장학회 활동을 회향하려 합니다."

내생장학회(장학회장 이대원성)가 3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승가대와 영천 선화여고에 발전기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기부하며 3년여의 보살행을 회향한다.

대원성 보살이 이끄는 내생장학회는 스님들의 학업과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회로 2년 전인 2016년 시작됐다.

내생장학회 회원들은 모두 대원성 보살과의 인연으로 장학회 활동을 시작했다. 대원성 보살은 가정불단을 만들고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 특히 대원성 보살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불자들은 경전 공부와 기도, 그리고 자비나눔행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들은 〈금강경〉과 〈천수경〉 등을 사경해 사경집 7만권을 배포하고, 일타 스님과 고암 스님을 지도법사로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대중공양을 올렸다. 여기에 승보공양, 학인스님 후원도 아끼지 않았다.

또 연꽃모임을 비롯한 각종 장학회와 나눔실천 모임을 만들어 교도소 위문과 종립학교 무료급식 지원, 노숙자 쉼터 보현의집 봉사 등도 20년 넘게 해왔다. 여기에 내생(來生)의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로 내생장학회도 함께 결성한 것이다. 함께 뜻을 모아 준 이들을 위해 매일 새벽 대원성 보살은 축원 기도를 올려왔다.

대원성 보살은 "회원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장학회를 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판단에서 회향을 결정했다. 내생장학회 외에도 너무 많아진 장학, 봉사모임도 정리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끝이 아니다. 새로운 자비행을 위해 회향"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 모연에는 대원성 보살과 인연이 있는 700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고령의 나이에 많은 불자들을 일일이 챙기기가 벅찬 것일까.

대원성 보살은 "뜻있는 이들의 후원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지금처럼 대규모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일 뿐 모든 활동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원성 보살은 "결국 불교는 인재불사에 미래가 있다"며 "자비의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조금씩 실천하다보면 공덕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자 역량 결집해 포교 일신"

최주덕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신임회장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의 성격과 역할에 맞도록 외부 활동을 강조하고 넓혀 한국불교 포교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역대 회장님의 충고와 조언, 회원 의견을 수렴해 화합의 장으로 이끌겠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신임회장으로 최주덕 (주)하이로드 회장〈사진〉이 선출됐다. 최주덕 회장은 2월 27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창립 12주년 기념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포교'와 '화합'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명칭에서 알다시피 불교계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며 "창립 성격에 맞도록 불교발전과 포교에 일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주덕 회장은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회장, 부산불자기업인포럼 회장, 천태종 삼광사신도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10년에는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상구보리하화중생을 기본이념으로 2006년 10월 30일 창립됐다. 전통불교문화 대중화 및 도심포교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불교문화 전파 등 다채로운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신규교육아사리 11명 위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규 교육아사리 위촉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위촉된 신규 교육아사리는 대승불교 분야에서 2명, 선불교에서 1명, 계율에서 1명, 한문불전에서 2명, 응용불교에서 5명이 각각 선정됐다.

대승불교 분야에서는 백양사 승가대학원 부교수 정헌 스님과 고려대에서 '화엄경의 교육사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법조 스님(비구니)이 위촉됐다. 또 선불교 분야에서는 중국 남경대에서 '단경 연구'로 박사를 받은 법지 스님, 계율분야에서는 동국대 선학과 박사를 수료한 덕산 스님(동국대 강사)이 선정됐다. 한문불전 분야는 동국대에서 '요대 선현의 화엄경 현담 결택기의 연구와 역주'로 박사를 받은 지현 스님(비구니)과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명준 스님(비구니)이 각각 선정됐다. 응용불교 분야에서는 여정 스님(동국대 박사수료), 효석 스님(인도 델리대 박사), 현욱 스님(동국대 박사), 경완 스님(고려대 박사), 대안 스님(동국대 박사) 등 모두 비구니 스님이 위촉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발전 기금 1억원 쾌척

부산 구룡사, 성역화·동국대 등에



부산 구룡사(주지 선효)는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기금 5000만원, 동국대 발전기금 2000만원, 포교원 발전기금 1000만원,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발전기금 1000만원 등 총 1억 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윤호섭 기자

대응공사, 주민화합 어울마당

한마음봉사단 1000만원 후원



대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2월 28일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청록공원에서 '제4회 주민화합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대응공사 한마음봉사단이 1000만원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곽대훈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문화공연과 윷놀이 등 놀이한마당, 떡국 나눔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광주 연화사, 자비의 쌀 기탁

교계 단체 통해 지역민 전달 예정



광주 연화사(주지 명신)는 2월 24일 정월기도를 맞아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비의 쌀' 2,200kg을 지역불교계 사회단체에 기탁했다.

이 쌀은 자비신행회,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 빛고을나눔나무 등 단체별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800W 파워드믹싱 앰프」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3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4대 종교, 전주한지 산업화 '앞장'

전주시, 종교계와 한지산업 활성화 MOU 체결



전북지역 4대 종교가 전주한지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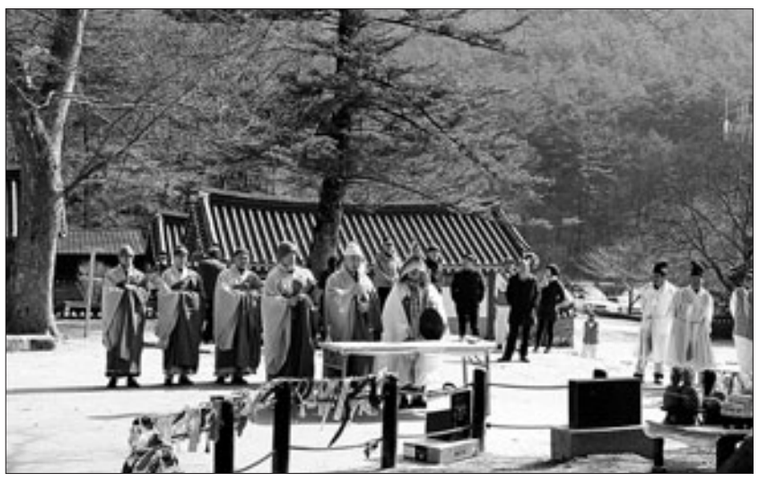
전주시와 불교 · 원불교 · 천주교 · 개신교 등 4대 종교는 2월 23일 전주시청에서 '전주한지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주요 문헌 복본 시 전주한지를 우선 사용키로 했다.〈사진〉아울러 전주한지로 각종 증서와 문서, 서적 제작 등 적극적인 수요 창출로 한지 소비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시는 각 종교기관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해 시행하는 고서 복본사업과 출판사업, 행정용지 제작 등에 양질의 전주한지를 공급하고, 행정 · 재정적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산사 구담 스님, 원불교 전북교구장 김혜봉 교무, 천주교 전주교구 박성팔 총대리 신부, 기독교연합회 세계종교위원회 전북대표인 백남운 목사, 김천종 · 강갑석 · 김인수 · 최성일 전주한지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시는 전승 단절 우려가 있는 전주 전통한지 제작 기능의 맥을 되살리고, 한지의 보존 · 계승을 위해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한지장을 발굴 ·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전주한지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인 닥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최초의 집적화된 전통한지 생산지인 전주시 흑석골 일대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와 토속신앙의 만남 불교와 토속신앙이 함께 사찰과 마을 번영을 기원하는 독특한 형식의 당산제가 열렸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와 석포리 당산제 보존위원회는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3월 1일, 내소사 경내 들당산(할머니 당산나무)과 날당산(할아버지 당산나무) 앞에서 '2018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 이날 내소사 스님들과 석포리 5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은 불교의식과 민간제례를 올리며, 사찰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파라미타, 무술년 힘찬 출발 다짐

청소년 만족도 고려해 새 프로그램 개발 결의

부산 파라미타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무술년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2월 26일 부산 서면 터존부페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백명숙 협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및 지도위원 등 지도교사 100여 명이 동참했다.

정기총회는 위촉장 및 공로패 수여와 감사보고 및 자산보고, 결산 승인 등이 진행됐다. 부산파라미타는 2018년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 연제구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 등 사업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부산파라미타 조직 활성화와 회원 유지 개발을 위한 협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佛法 담아낸 붓글씨, 新수행 · 포교 방편

도홍글씨연구소, 승려연수교육 인증 강의 마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난해 열린 전주문화재야행서 붓글씨 퍼포먼스를 하는 김상지 대표.

선사의 선기(禪氣)가 서린 붓글씨는 정진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아 사찰 현판 혹은 주련에 자주 사용됐다. 하지만 현대에는 선사의 가르침을 잇던 붓글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소수의 스님들이 펼치는 예술 활동 외엔 자주 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붓글씨의 불교적 전통을 잇고, 경전 및 심리치료 그리고 예술성까지 갖춘 강의가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도홍마음글씨연구소(대표 김상지 · 사진)는 '부처님 말씀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캘리그라피' 승려연수를 시작한다.

강의는 김상지 도홍마음글씨연구소 대표가 직접 맡는다. 김 대표는 30대 초반의 젊은 불자 서예가로 8세 때부터 여초 김응현(1927~2007) 문하에서 활동했다. 여초 김응현은 2006년 광화문 현판 교체론이 대두될 당시 현역 서예가 중 1순위로 거론됐으며, 근현대 한국서단의 최고 대가로 인정받았다. '추사 이후 여초'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친형인 일중 김충현과 함께 근현대 서예의 4대가로 주목받았다.

김 대표는 2011년 12월 (사)대한서화예술협회 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 2012년 5월 (사)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특선으로 서예부문 최연소 입상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서화 · 미술대전 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부산 흥법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서예 체험 강의 및 직원 연수, 동국대 파라미타칼리지 등 여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과 불교문화의 전통 이어
대중 접근성 및 현대성 갖춰
3월 18일 강의 개강, 총 6회
교육원, 승려연수교육 30시간

김 대표는 현대적 안목으로 새롭게 붓글씨를 재해석하고 접근성을 높여 포교에 도움을 주고자 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본에서는 서예를 서도(書道)라고 한다. 도의 입장에서 살피고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대만에서는 참선과 동일하게 한곳에 집중해 삼매에 드는 경지로 삼아 수행한다"며 "스님들은 전법을 해야 하는데 마음을 담은 붓글씨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면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붓글씨가 심리치료라는 특별한 분야에 접목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붓글씨는 자신의 마음을 붓을 통해 담아내는 예술적 행위도 포함돼 내면의 생각을 끄집어 낼 수 있어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 서예치료학회도 있을 정도"라고 붓글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도홍글씨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부처님 말씀과 함께하는 마음치유캘리그라피'는 지난해 12월 조계종 교육원에서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 받았으며, 현대적 붓글씨로 부처님 말씀을 표현하고 불교문화로 서예를 이어가 스님들의 포교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개설됐다.

강의내용은 △캘리그라피로 살펴 본 마음 △캘리그라피 기초 △글자의 기초 익히기 △단어와 문장의 연출 △일러스트 기법 익히기 △부처님 말씀 표현하기 △캘리그라피 일상에 접목하기 등이다.

강의장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4층이며,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승려다. 강의는 1차 3월 18 · 24 · 31일이며 2차는 9월 15 · 22 · 29일 총 6회에 걸쳐 열리며,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승려연수교육 30시간을 인증받을 수 있다. 010-8794-0514

재가지도자 정의행 추모비 제막

문빈정사 등 광주불교 故정의행 법사 추모



故정의행 법사 추모 행사에 참석한 재가불자들이 추모비 제막을 하는 모습.

"나는 배고프다. 너도 배고프다. 아직도 세계 민중은 배고프다."

평생 불교대중화와 평화운동에 매진했던 故정의행 법사(본명 정철, 1958~2016) 추모 2주기 기념 및 추모비 제막식이 2월 24일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 앞마당에서 열렸다. 추모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신도회장, 문빈정사 유마거사회, 광주불교교육원 등 불교단체와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연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평소 정 법사가 신행활동을 펼친 문빈정사 앞마당에 조성됐다.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축원을 통해 "생명과 역사, 사회와 민중, 그리고 불보살님과 함께 살다 가신 정의행 법사는 천천만인의 촛불로 환생해 대동세상, 평화의 땅을 이루도록 노력하셨다"고 추모했다.

제막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불교단체, 이범식 회장, 장휘국 교육감, 광주지역 시민문화단체 등 200여 명의 참여해 추모제사, 공연, 기념식, 제막식 등을 진행했다.

한편 정의행 법사는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해 투옥됐으며, 이후 불교교육사업, 불교서적 저술과 사회운동 그리고 통일과 생명평화운동에 평생을 바쳐오다가 지난 2016년 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업장소멸 길 안내 반야참회 입문강의

일심사, 반야참회 입문 개강

업장소멸의 길로 안내하는 반야참회 입문 강의가 개강했다.

부산 센텀 일심사(주지 혜룡)는 2월 26일 법당에서 반야참회 입문 강의를 시작했다. 반야참회는 108예참과 자비도량 참법 등 기본적인 참회법을 발전시켜 참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눠 적용하는 수행법이다.

주지 혜룡 스님은 "인과법인 불교에 따르면 악업으로 장애가 있고 이것을 업장이라 부른다"며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법이 반야참회다. 참회를 통해 지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야참회 강의는 2월 26일부터 2개월 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일심사에서 열린다. 수강료 월 4만원이며 교재비는 별도다. (051)781-0543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은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도 알아라.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 잡보장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 범패 교육도량
범음범패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정근북(양고장)
송주북 (각단 예불)
사찰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위패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토종하수오
진액 판매
(약사사)
010-9692-5775

조선소나무
옥제용, 건조기간 9년
수량 14000사이(상태A급)
건축면적 : 약 30평내
010-2294-4747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특강
숫자로 보는 생활철학
• 수시모집 : 2018. 3월
• 개인지도(매주)
• 화,금 18:00 ~ 20:00(12주) 50만원
• 대구은행 010-3527-1037 서일영
영도기문철학
010-3527-1037
대구 남구 안골길21 안지랑역 3번출구 5분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징,경쇠,요령,목탁 다루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범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신통도인의 신통상담
도통에는 上 中 下가 있다. 上은 보기만 해도 용사가 되고, 中은 은사를 하고, 下는 필사를 한다 하였다. 신통도인에게 상담을 청하여 그 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010-6357-5152
신통도인 육관

사찰에서 지내시면서 수행하실 스님이나 불자님 모십니다
(마산, 50대이하)
055-271-91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70대, 대구지역)
010-3524-8930

공양주 보살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고성)
010-8507-989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마산)
010-5045-3545
010-3597-35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도 가능, 60세이하)
041-673-8385

도깨비를 마음대로 부린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서울 수도권 큰 사찰에서 비구니 주지스님을 초빙합니다
010-5466-33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011-803-2626
055-353-614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유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3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9호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이메일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미 불이 다 탄 곳에는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가라.

– 숫타니파타 –



원주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토지 700㎡
- 원주시 외곽 운영 잘되고 깨끗함.
- 양도 : 5억 6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북한산급양도 ◎ 위치 : 경기 수도권
◎ 무허가 건물 ◎ 부지 : 150평
◎ 건물 : 약 4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도로근접,숲속,사용료지불 ◎ 요사 : 60평
◎ 매가 : 5천 5백만원정 ◎ 매가 : 1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연무대 사찰(급) 안내

- 한옥법당.요사채.공양간.산신각
- 토지 400㎡
- 비구니스님추천사찰. 타지방에불사
- 논산 IC근처 교통 편리
- 양도 : 1억2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도심 속 작은 사찰 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 ~ 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영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투자가치도좋음(대한방직150m거리143층 초고층타워와아파트 신축예정)
- 위치 : 전주시내.앞도로변.좌로4차선.앞으로 2차선
- 주변환경.전북경찰청.도청.아파트.상가.주택. 밀집지역.공원.천변산책로
- 대지.61평.뒷마당있음.건평90평.각30평.3층건물
- 1층.방3개해우소/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 소불300불.연등.700.인등.영가인등 해우소 3층.주택.방3개.화장실2개.외부.내부 뼈대외 올리모델링 시시카메라10대.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3천만원(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안동시길안면사무소와 청송읍사무소 중간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근방)
- 사찰터로 좋은 전답 3필지 (약 1,800평)
- 가액 : 10,800만
- 분할가능 : 1필지(약 600평)5000만 2필지(1200평) 9,000만

010-2016-62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다대포 위치
- 60평
- 법당, 공양간, 요사 완비
- 주위 대형 병원, 아파트 밀집지역
- 현재 운영중

010-5267-4937
051-266-4937

사찰 및 전세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 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완료됨) 창고. 저온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 안고) 전세가능

010-6603-1456

멋진2층 상가주택 토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717평방
- 건평 : 1층 상가 149.99 2층 주택 81.75
- 가액 : 3억 2천만원 (4천만원 빼드림)
- 대출 : 1억포함(조정가능)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 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5백만원

010-8525-1959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 거리)
- 사찰 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 찰 안 내

- 위치: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 그린상가
- 건물 : 1, 2층 전체
- 대지 136.5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 1층 요사채 겸 식당 주차장 완비
- 가액 : 평당 천오백

010-3752-260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설화산
- 대지 : 문중산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산신각 5평 장작. 기름겸용 보일러
- KTX역 10분 전철. 철도역 5분거리
- 판매가: 5000만 전세4500만

010-5404-92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칠북면 단내로 266
- 큰법당 32평, 삼성각 5평, 주지실 24평
- 후원 약 50평, 주차시설, 농업용 저장고
- 가액 : 가격은 절충

010-8523-991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 702,701,693번지
- 평수 : 836평
- 도로, 전기, 물, 구옥, 정남향
- 금액 : 3,500만원

010-6783-251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84-0122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5923-3388

사찰터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토굴식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문백면
- 모든기도 성취 영험도량
- 평수 253평, 2필지
- 가액: 3억 (융자 1억 2천 8백만) 시세조정가능

010-5496-641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 법당 20평
-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합니다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4평
- 요사채 32평, 창고 화장실 15평
- 총건평 80평 가량, 철골 지붕 강판 기와
- 가액 : 1억 6천 절충가능
- 터밭 별도 450평, 년15만원

010-4726-6496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번지
- 용도 : 주택, 복지사업용, 종교시설, 2차선 도로인접
- 가액 : 864평. 평당 170만원

※ 기도중 전화 못 받을시 문자 넣어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 주인 직거래 부동산 사절

010-3540-773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7,8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차령산맥 세종 천안 각 20분
- 대지 : 3만 5천평, 건물 4동
- 지방문화재보유한 100년 도량
- 가람불사금 20억 동참 도반 원함

010-4448-5998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도심 속 산중 암자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 단독 주택 시내가 한눈에 보임
- 방3칸 인법당. 산신각 1동. 넓은 텃밭
- 화장실 2개 .CCTV 유
- 가액 : 8,000만원

010-5628-9338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면 갈산리 447번지
- 대지 : 전343평, 종교용지475평, 임야 507평
- 건평: 40평 1동
- 방2개,큰거실1개,주방,창고방3개
- 가액 : 5억(절충가능)

010-5403-773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 평수 : 20평, 3층 건물
- 삼존불 조성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10-3866-5928

사 찰 안 내

- 위치 : 차령산맥 세종 천안 각 20분
- 대지 : 3만 5천평, 건물 4동
- 지방문화재보유한 100년 도량
- 가람불사금 20억 동참 도반 원함

010-4448-5998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 대지 380평, 전 290평
- 전통한옥ㄱ형 본채,별채(2채)
- 약 70평 (부속건물 포함) 준공일 2012년, 12일
- 가액 : 10억 (답사후 절충가)

010-7449-2925

탈종공고

- 사 찰 명 : 봉덕사
- 주 지 : 봉천 (김병술)
- 승적번호 : 2011-039
- 주 소 : 경북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104-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사)대한불교우리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주지직 원함

귀의삼보 하옵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衆生)

창건주 회주 대표님에게,

본 소승 주지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동진출가 하여 승려생활 50년
修行 토굴생활을 하였으나
일등이 아니고 이등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같이 가기를 소원 합니다.

소승이 할 수 있는 일
주지소임. 경전강의. 법문. 사주강의
사찰창건. 템플스테이. 전문불교대학창설 등등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증 소지
토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각 합장

연락처 : 010-4524-6325

美신자유주의 핵심에 명상 있다



사진출처=허핑턴포스트

거대 경제산업으로 자리잡아 '화제'

강의 · 도서 · 어플 등으로 판매
미국서만 가치 $10억 넘어
중독 · 외로움 · 우울 만연에
해결 도구로 마음챙김 부각
"佛法에 어긋나" 비판세력도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미국서 마음챙김이 열풍을 넘어 경제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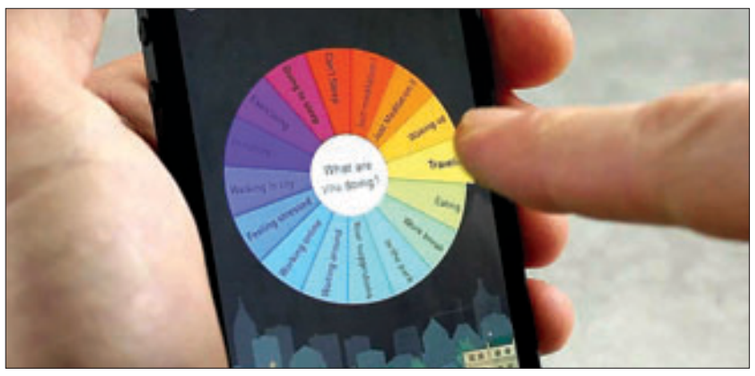
영국 '인디펜던트'는 2월 25일 불교 명상에서 시작된 마음챙김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경제산업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마음챙김은 이미 사업의 아이템으로 자리잡아 강의, 도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만 1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진 시장이 되었다고 전했다.

프랑스 철학자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는 "1960년대 중반 반체제 문화의 하나로 전파된 불교의 명상이 상품화 되어 팔리고 있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며 "주의 깊은 마음과 초월적인 경험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고, 종교색을 빼버린 상품이 바로 마음챙김"이라고 주장했다.

관심경제와 마음챙김

명상과 마음챙김이 사업아이템이 된 것은 '관심경제'가 한몫했다. 펠릭스는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소비자라고 인식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인간관계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TV 화면 속에 집중한 것이 관심경제의 시작이라고 분석하며 "미디어와 광고, SNS의 부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관심과 비전이 상품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특정 분야와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모일수록 반대급부로 중독, 외로움, 우울증과 소외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사회 환경과 자신에 대한 불만과 복잡함을 해결하는데 마음챙김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는 특히 최근 신자유주의의 많은 특징과 관심경제의 요구에 맞춰 대중적이고 세속화된 마음챙김이 더욱 유행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책임과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표어가 마음챙김에 적용됐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압력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의 완화책으로 마음챙김을 통해 스스로 제어하고 완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마음챙김을 주제로 한 강연과 트레이닝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마음챙김 명상을 돕는 기능으로 인기를 끄는 모바일 앱 '부디파이(Buddhify)'.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다시 불교로 돌아가다

그러나 마음챙김이 단순히 경제사상에 휩쓸려 상품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슬라보 지젝(Slavoj Zizek)은 "세속적 치료방법으로 마음챙김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마음챙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본래 마음챙김은 불교철학에서 말하는 윤리와 철학적 통찰을 수반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론 고통의 근원에 대한 설명하기에 이는 소비주의적인 사회문제에 완벽한 보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철학자 마리아 푸익(Maria Puig)교수는 "불교철학에서는 올바른 마음챙김과 잘못된 마음챙김을 구분한다.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자유로운 통찰력을 위해 마음챙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개인이 독점하거나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에 대한 윤리와 상호간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실제 현실에서 적용된다"고 말했다.

푸익 교수는 "지식과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육체적인 힘의 관계성이 없다면 발현되지 않는다. 반대로 육체적인 힘만 있고 지식과 사고만 있다면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며 "윤리적 철학적 뿌리가 사라진 기술적인 마음챙김은 부처님이 뿌리 뽑고자한 고통의 근원을 회복시킬 뿐"이라고 분석하며 "자본주의 속에서 올바른 마음챙김은 개인적, 사회적 고통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통찰이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저항과 참여의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이 중국인이라고?"

中학자 불교 기원 중국 주장…
현실은 중국 학계에서도 반박

중국서 석가모니와 불교가 중국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는 가운데, 한 중국인 대학 교수가 이 내용을 뉴스포털에 기고해 몰매를 맞고 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2월 20일 화제의 중국인 대학교수와 중국 내 현황에 대해 보도했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11월에 중국의 뉴스포털 '소후닷컴'에 기고된 것으로 기고자는 베이징 대학의 중의학 교수 리리안송(李良松)이다. 리교수는 10가지 항목으로 석가모니가 중국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중에 하나는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가 사실은 네팔이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 특별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교문헌에서 보이는 고대국가들과 그 풍습 등이 고대 중원에서 기원 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사실 중국에서 부처님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리교수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중국에서 발표된 〈불교의 중국기원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논문을 시발점으로, 최근 중국에서는 석가모니의 중국기원에 대한 주장이 종종 제기돼 왔다. 논문의 저자인 장류바이 청두이공대학 교수는 스촨성의 산싱두이(三星堆)유적에서 발굴된 BC. 1000년경의 조각상들이 불상이라고 주장하며 "불상들은 옥과 상아로 만들어졌고, 수정으로 만든 불두(佛頭)도 발굴됐다. 불교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었다가 다시 중국 내륙으로 재전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포털과 SNS 등으로 리교수의 기사와 장교수의 논문 등이 화제가 되자 중국학계 내에서도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산싱두이 고고학 박물관은 장교수의 출입을 거부하고 장교수가 주장하는 조각상들은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박물관 측은 "장교수는 허구로만 가득한 논문으로 불교가 산싱두이에서 기원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본 박물관은 장교수와 일체 관계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종교학전문가 셴구이핑(沈桂平) 박사는 "석가모니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연구의 의미가 뭔지 알 수 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해당 논문과 기사들은 그 연구방법과 증명이 무효하며, 단지 지나친 애국심을 보이려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고 되려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인도는 불교를 통해 외교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인도 대통령 프라티바 파틸(Pratibha Patil)은 뤄양(洛陽)의 백마사 국제사원군에 인도식 불교사원을 지어 양국의 오랜 정신적 연결을 기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서 거대 탱화에 염원을…



괘불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거대 탱화가 언덕에 걸리는 모습. 사진출처=신화통신

3층 높이의 탱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티베트에선 매년 2월, 큰 탱화를 걸고 기도하는 괘불축제가 열린다.

중국 '신화통신(Xinhaunet)'은 2월 28일, 같은 날 열린 티베트 괘불축제(Sunning of the Buddha) 현황을 보도했다. 이 축제는 게룩파(티베트 불교 종파)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원 중 하나인 라브랑 사원서 열렸다.

축제는 100여 마리의 라마가 탱화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언덕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마가 탱화를 운반하는 동안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 관광객들이 그 뒤를 잇는다. 이들은 탱화에 이마를 갖다 대며 행운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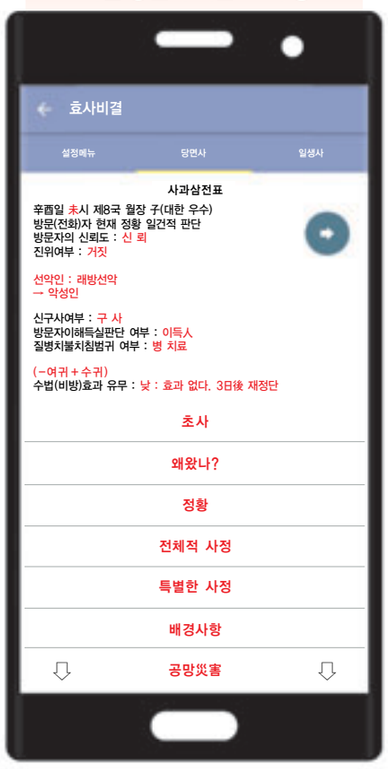
한 시간 뒤, 탱화는 언덕에 펼쳐진다. 동시에 불자들과 스님들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한다. 불자들은 탱화에 카닥(Hada)을 바치기도 하는데, 카닥은 티베트에서 공양물로 쓰는 비단 스카프다.

박진형 기자

휴대폰에 육임 CD프로그램
'효사비결 최신완결판'을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이든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당면사 27개 항목, 일생사 17개 항목을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 효과성 · 신속도 · 간편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① 육임 당면사 즉단 27개 항목



② 육임 성부판단 24개항목과 12띠별 확정



원터치 기능

- 상대의 공 · 사적 비밀 사항 적시
- 귀신 · 부정 · 산소탈 침범 여부
- 질병 치 · 불치 · 오래끔 판단
- 천도 · 시식 · 기도 효과 유무
- 대적자 처신 방침
- 묻는 사항 24개 항목 띠별 성부 표시 등등

- 정 가 : ~~30만원~~ → 20만원 (3월 10일까지 할인)
- 계 좌 : 기업은행 024-086103-04-019 대한불교 천기종
- 설 치 : 입금 확인 후 10분 이내 본인 핸드폰에 설치됨
- 참 고 : 본인 실명으로 개통된 핸드폰
- 전 화 : 주 · 야 010-4500-5465 일과시간 02-738-8685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마음-훈련

노먼 피셔(젠 프리스트)

〈7〉 미친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기 〈끝〉

명상 이후 필요한 우리의 자세



마지막 요점에 미친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마지막 지침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광기를 염두에 두고 그것과 더불어 품위 있고 평온하게 사는 법 말이다.

지혜롭고 실용적인 우리의 옛 선사들은, 우리를 우쭐하게 해주는 것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자기과시가 도덕적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개념적 잘못에 가깝다. 결국에 가선 자신에 대한 억압과 타인데 대한 비하에 이르며, 둘 다 자기 자신의 크나큰 불행으로 이어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불교에서는, 모든 명명이 그 자체로도 우습지만 우리가 이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극적으로 우스워짐을 일깨워 주는 '위대한 농담' 들을 줄기차게 들려주는 것이다.

선불교에서 명상이나 명상 이후나 자비나 자비 없음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저 매일의 일상적 수행만이 있을 뿐이다. 종이 울리면 "아, 참선할 시간이군"하고, 다시 종이 울리면 "자리 걷고 일어나라. 참선은 끝났다. 잊어라"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 수행의 정신이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경구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 경구들이 벌거벗었음을 명심하면서, 명상 이후를 위한 마지막 21개의 경구들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하나의 뜻을 지켜라'

수행을 시작했을 때의 뜻, 우리가 지켜 온 뜻이다. 자신에게 고착되지 마라. 타인들을 생각하라. 타인들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며, 나 자신에는 타인들도 포함된다. 모든 행동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뜻으로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라'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거나 친절하거나 마음 넓지 못함을, 우리의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남을 위해 헌신적이지 못함을, 우리가 애초의 선의를 완전히 잃고 마치 반쯤 잠든 것처럼 편협하고 거칠고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음을 어쩔 수 없이 깨달았을 때, 이를 깨달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크게 숨 한번 쉬라는 뜻이다.

'처음에 시작하고 끝에서 마무리하라'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나의 능력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데 헌신하고, 바쳐졌기를 되새기며 명상 수행을 이어가라는 뜻이다. 이 경구를 수행하기 위한 규율을 익힌다면, 오직 이것 하나만 할 수 있다 해도 확실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양 방향으로 참을성을 지녀라'

'양 방향으로' 는 상황이 힘들 때는 물론이고 힘들지 않을 때도 참을성을 수행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구절이다. 상황이 나쁠 때는 인내하라. 그러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상황이 좋을 때는 자기만족 속에 안주하지 마라.

'네 전부를 걸고 지켜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종교적 서약을 준수하는 일, 말하자면 불교나 자신이 믿는 다른 종교의 서원을 지키는 일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지키다' 라는 말을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

'세 가지 어려운 것을 훈련하라'

선의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되돌아오는 온갖 내재적 습관, 방해만 될 뿐이지만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태도, 사고, 행동들에 대처하는 데 매진하게 해주는 경구다. 첫째로 습관적 충동이 일어날 때 이를 알아채고, 둘째로 그것을 깨달은 뒤엔 내려놓으며, 셋째로는 이 두 가지 지침을 계속 준수하여 궁극적으로 이 충동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세 가지 주된 요인을 구하라'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을 찾아라' 다. 혼자서는 아무도 마음 훈련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마음 길들임의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마음 훈련이 선택이 아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이 모두 네게 있음을 깨달으라' 다.

행동이 타인 염려로 이어지고
자기만족 안주하지 않는 정진
진심으로 끝없이 마음 훈련해
구분 없는 일상으로 나아가야

'세 가지 주된 요인을 잊지 마라'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주된 요인을 잊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게 하라'

세 가지 주된 요인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스승과 공동체는 내게 훈련하려는 의지를 불어넣고, 훈련하려는 나의 의지는 그들이 내 곁에 머물게 해준다. 필요한 것이 내게 있음을 알면, 내 삶을 보호하고 확장하여 타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계속 훈련하길 원한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훈련하라'

네 온 정신을, 온 기쁨과 온 슬픔과 온 열정을 다하고 아무것도 남겨 놓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을 열고 훈련하라는 아무것도 숨기거나 편애하지 말라는 뜻이다.

'네 화를 가까이 두어라'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보통, 내가 도리를 벗어났고 내 훈련이 허물어졌으며 내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경구는 화야말로 명상의 가장 크고 중요한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화에 걸려들었다고 여기고 낙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축하해야 한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나는 이 경구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유연한 대나무처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은 좋다고 본다. 흔들리되 견고한 뿌리를 유지하라. 굳건하면서 유연하라. 아마 이것이 더 나은 경구일 것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라!'

이번은 유일한 기회다. 오로지 이번만 있고 다른 때는 없다. 다만 이번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이번에 제대로 하라!

'착각하지 마라'

타인들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지 마라. 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착각하지 마라. 이 경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습게도 바로 경구가 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가 항상 하기 때문이다.

'동요하지 마라'

삶은 빠르게 흘러가고, 거시적으로 볼 때 당황할 일은 전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안정되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나는 이 경구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유연한 대나무처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은 좋다고 본다. 흔들리되 견고한 뿌리를 유지하라. 굳건하면서 유연하라. 아마 이것이 더 나은 경구일 것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라!'

이번은 유일한 기회다. 오로지 이번만 있고 다른 때는 없다. 다만 이번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이번에 제대로 하라!

'착각하지 마라'

타인들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지 마라. 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착각하지 마라. 이 경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습게도 바로 경구가 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가 항상 하기 때문이다.

'동요하지 마라'

삶은 빠르게 흘러가고, 거시적으로 볼 때 당황할 일은 전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안정되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찰하고 분석하라'

우리 모두는 자신의 건강과 집과 재정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한다. 공과금을 제때 내고 은행 잔고가 충분히 유지되게끔 신경을 쓴다. 그렇다면 우리 가슴과 마음, 우리 내면의 삶에도 그 정도의 관심을 쏟고, 그것이 건강과 집과 돈만큼이나 현실적이고 그보다 더 중요함을 깨닫는 게 어떨까?

'자기연민에 빠지지 마라'

자기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취약하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물이며, 다른 누구보다도 더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동정해야 마땅하다. 가슴 아픈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이해와 감각을 가슴 밑바닥까지, 뼛속까지, 아니 골수까지 아로새기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속에 있다.

'질투하지 마라'

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질투의 반대인 기쁨의 교감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쁨의 교감이란 타인이 기뻐할 때 내가 느끼는 기쁨을 말한다. 이는 나 자신의 기쁨이지만, 원인이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에 있을 때 온다.

'경박해지지 마라'

우리에게 놀 줄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 없는 활동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를 나 자신이나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딴 데로 마음을 돌리려는 목적에 이용해선 안 된다.

'박수를 기대하지 마라'

숨을 쉰다고 해서 박수를 받는가? 사람들이 나의 멋진 성취에 박수를 보낼 때, 그들이 정말로 박수 치는 대상은 나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다. 그들은 삶 자체에, 선하고 좋은 것에, 그들 자신의 삶에, 멋진 것을 감상할 줄 아는 인간의 능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 언제나 다른 것이다.

이 글은 〈마음-훈련 미친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기 위한 59가지 매뉴얼〉(도서출판 팡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4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 -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1년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바라, 화청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1년과정 이수 후 품수증, 법사증 수여(숙식제공가능)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1매
⇨ 예비소집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입 교 식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설법전)
⇨ 준 비 물 : 목탁, 요령 (교재 - 입교식시 배부)
⇨ 문 의 : 교육원 강주(일관스님) 010-9361-5566
보경사 염불대학원 학생처장 010-4530-7444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제12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8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뜻을 같이할 종도스님을 모집합니다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대행 스님

한 몸 아님도 없고, 내 아픔 아님도, 내 자리 아님도 없어!

본래 한마음 한몸 한자리인 참뜻

질문 스님께서는 내 몸으로부터 오는 문제나, 인간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역경에서 부딪침이 없이 유유히 넘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 자체가 본래 한마음 한몸 한자리인 이 참뜻을 꼭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으로부터 일거일동 집착을 하게 되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나라는 틀을 벗어나서 공생, 공심, 공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답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한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한마음이라는 것은 한 생명과도 같은 한마음입니다. 위로는 한마음을 모시고 아래로는 여러분 몸과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육신 속에, 세포 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체들을, 그 모습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생명체들, 모습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내 몸은 그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움죽거려 줘야만이 움죽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시공이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찰나찰나 움죽거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믿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몸은 자기가 소임을 맡은 대로 움죽거리면서 이 한 몸을 앞장세웠습니다. 모든 모습들과 마음들이, 위로는 마음들이요, 아래로는 그 모습들이 전부 한데 모여서 움죽거려 주는 그 역할을 그대로 우리는 한데 합쳐서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마음 중심(中心), 중용(中庸), 중도(中道)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 깊은 정(定)에 들어 죽은 내 몸이여! 그대로 나투며 시공이 없이 도는 몸이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위로는 일체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공식(共食)하고 있고, 공생(共生)하고 있죠. 공용(共用)도 하고 있고요.

멀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육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거는 한 별성이기 이전에 혹성이기도 합니다. 그 혹성 안에, 오대양 육대주가 돌아가는 거와 같이 오장육부가 그러하니깐요. 이것을 가까운 데 두고 모른다면은 우리는 우주의 전체, 무(無)와 유(有)의 세계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면 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남을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생겼고 상대가 생겼고 가정이 생겼고 나라가 생겼고, 천태만상으로 생긴 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생겼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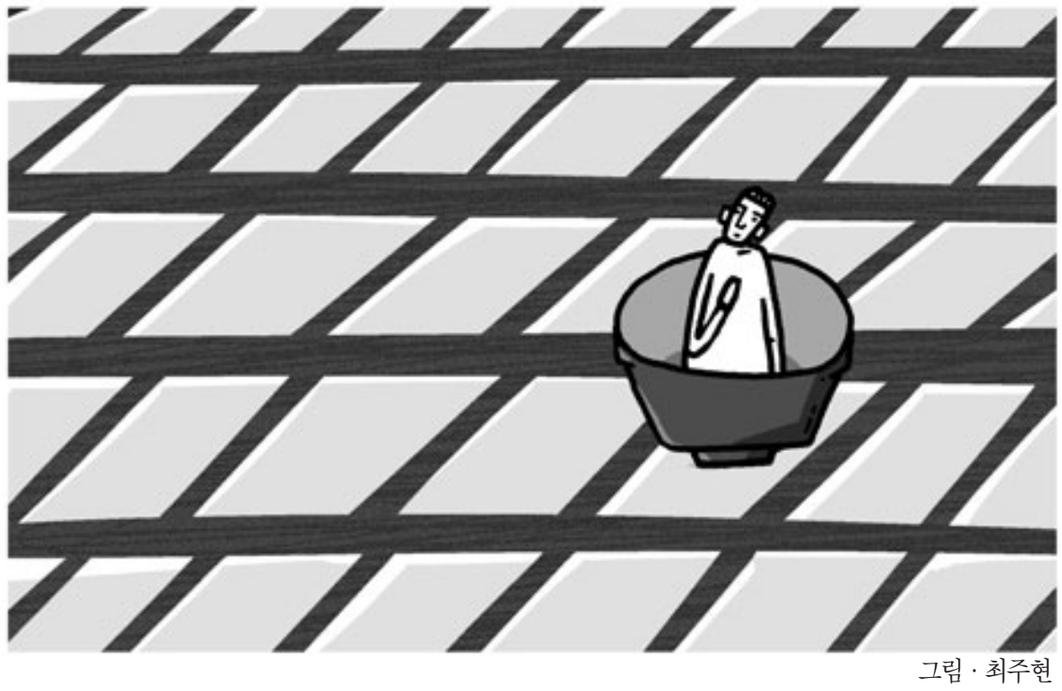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떠한 이름이나 찾고 허공이나 바라보면서 바깥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막론하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여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움죽거린다는 사실, 그리고 맛을 본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쫓기며 쫓으면서, 밟히며 밟으면서 인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모습을 벗기 전에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죠.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길고 긴 하나의 음식을 놓고 여러분이 걸릴까 봐 한 조각 한 조각 잘라서 먹이는 거와 같으니 그대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짚고 넘어가는 한 토막의 문제요. 또 한 토막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말이 아닌 참말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소녀가 있었습니다. 잘 새겨들으십시오. 부모를 모시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님은 인생이 덧없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어머니는 남아서 딸을 두고 죽을 수 없다고 힘들게 버티며 살아 계시다가 어느덧 때가 되니 그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홀로이 배고픔도 이기지 못하고 추움도 이기지 못해서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집마저 훨훨 타 버렸습니다.

불씨는 그대로 불기둥이 돼서, 천 길이나 되게 불길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 만 둘레나 되니, 오고 가는 사람이 모두 두루 옷을 벗고 갔다 합니다. 그러니 그 불은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으며, 바람이 분들 흔들리겠습니까, 비가 온들 꺼지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우박 눈이 쏟아진들 얼겠습니까?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옷을 가면서 벗고 오면서 벗고, 끊임없이 벗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가정에서도 따뜻한 데를 찾죠. 아늑한 데 찾고, 따뜻한 데 찾고,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옷을 입고, 또는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옷을 입죠. 이것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진리라고 봅니다. 이 한 토막의 얘기는 여러분이 잘 들으면 아주 공부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타 버리더니 그렇게 불기둥이 솟았다고 합니다. 불기둥이 솟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다, 그 빛과 광력과 자력으로 충만하니 어찌 그것이 꺼지며 바람 분다고 흔들리며 그것이 얼 수가 있느냐? 항상 봄이라, 오고 가는 사람이 옷을 벗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이렇게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위로는 한마음이요, 아래로는 모습이 한 몸이니 아픔도 한 몸! 그래서 유마힐 거사는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가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들이 나아야 내가 낫지."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장육부의 세포의 생명들이 나아야, 그 모습들이 건강해야 나의 모습도 건강하겠죠.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남의 마음도 건강하게 해 줄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해야 남의 몸도 건강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이끌어 가지 못하는 동시에 남의 몸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음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그 마음이 바로 한마음이요, 한 몸, 한자리입니다. 한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감하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심성 천체물리학이며 그대로 길이며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그대로 과학인 것입니다. 심성을, 마음을 빼놓고는 어디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여러분은 다 가지고 계시죠. 마음으로서의, 악도 거기서 나오고 선도 나오는데 사람이라면 천 가지만 가지 천차만별로 알고 있는 게 많으니 그 악은 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마음을 낼 때도, 한생각 낼 때도 남을 이익하게 낼 수 있는 마음, 한마음을 내서 말을 해 주더라도 이익한 말, 남에게 뭣을 주더라도 뒤에 받으려고 생각하고 주는 마음이 없이 내가 쓰는 물질로 생각한다면 둘이 아닌 공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고 부딪치고 악하게 나오고…. 그 근원이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의 근원을 놓는다면 자연스럽게 습득해 가면서 체험해 가면서 아주 청정한 정(定)에서 샘물이 솟아 나와서 두두물물(頭頭物物)이라는 식대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 한 것도, 한자리 할 때는 여러분의 몸이나 내 몸이나 두루 같이, 부처님의 뜻이나 일체 조상들의 뜻이나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분 어느 분, 다른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부처님이시며 그 부처님은, 중생들이 돌봐주고 운영을 해야 사시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중생이라고 내려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 부처는 둘이 아니다. 한 몸속에 부처, 중생이 있다 이겁니다.

중심, 중용, 중도, 바로 정(定)에 든다면, 정에서 나오는 거 정에다 도로 놓는다면 그 씀씀이가 바로 유유하고 여여하고, 천 가지 만 가지에 부딪치지 않고, 시공이 없고, 윤회에 걸림이 없고 생사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빙그레 웃고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없

☞ A18면으로 계속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010-9373-3778

점잖고 고상하고 알뜰하고 진실하고 선명하게 살아야!

☞ A17면에서 계속

다 함은, 즉 말하자면 하늘을 받칠 불기둥이 있고 한 발로 디뎠다면 그것은 그대로 밝기 때문에, 그대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며 그대로 삶과 죽음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되나 못 되나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드릴 때마다…, 즉 만 골짜기에서 흐르는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바다로 한데 모이듯이, 그 바다로 모여서 가라앉혀서 유유히 돌듯이 이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도 한 방울의 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직껏 걸어오신 그 피 한 방울이 그렇게 에누리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갖다 주시는 게 한 방울의 피라면 나를 위해서 갖다 준 바도 없고, 바로 자길 위해서 갖다 준 거기 때문에 나는 받은 새가 없고 자긴 가져갔으니 준 새가 없다 이겁니다. 비유하자면 가게에 뭐를 사러 가면은 내가 물건을 가져왔으니깐 돈을 준 새가 없고 또 물건을 줬으니까 받은 새가 없듯이 우리는 지금 서로서로 공식(共食)하면서 주고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봄날을 맞이하려면

질문 그토록 혹독하던 추위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낮 동안에는 따스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몸과 마음은 늙음이라는 족쇄가 채워져서, 밝고 건강하지 못하고 움츠리고 나약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시간과 공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계절이 없는 마음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와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봄 말입니다.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이 좋은 사람은 겨울로 쫓아가고 여름이 좋은 사람은 여름으로 쫓아가고, 가을로 봄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쫓아다니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근본 한군데에서 봄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생에 대한 문제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된다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며 쫓고 쫓기면서 살아온 악업 선업을 잔뜩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서 지금 모두 살고들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과거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을 것이고 현재는 공했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공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봄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며, 항상 얘기드리지마는 악업 선업의 업식 속에서,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공부를 모르셨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주인공을 믿지 않아도, 믿어도 일단 지금 가랑잎이 떨어질 때가 차차차와 가지고 지금 가을의 벌판을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뭣이 그렇게 원통해서 내 주인공 내가 믿으라는데 왜 못 믿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노인네가 되셨으면 애가 될 거고 애가 됐으면 늙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하게 죽고 사는 게 없을 겁니다. 내가 그런 소린 가끔 잘합니다. 낙엽은 떨어졌을지언정 어찌 나무뿌리가 죽을 수 있겠는가. 그 나무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래서 가랑잎은 다 떨어졌지만 그 나무는 자긍하며 내 마음의 봄이라고 생각하면서 봄을 기다리고 있죠. 영락없이 봄이 오면 물이 오르고 벌써 싹이 트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물질 아닌 참나를 발견함으로써 바로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 아닌 내 주인공과 물질인 나와 둘이 아니게 공존하고 있는 그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무의 생각, 무심으로 보이지 않는 데, 남이 모르는 데 생각을 했어도 모두가 이게 현상으로, 바깥으로 내가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활이 과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질문 제가 살면서 서원을 세우기를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하고, 단 하나의 악한 일도 하지 않겠다.' 발원하면서 걸어왔는데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딴 사람에게 거슬리는 짓을 할 때가 많은가 봅니다.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한 가정에서 식구가 모여 살면서 생기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죠. 자손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수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죠? 그냥 증오하면서도 말은 못하고, 말을 하려니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냥 참다 참다 가슴이 멍이 들게 되는 수도 많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것을 거죽으로 "요놈의 새끼야,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남편이 그런다 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복장을 썩이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다면 항상 대립이 되기 때문에 쌍방이 업을 더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이 전부 가설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인연줄의 가설입니다. 생명이 둘이 아니듯이 내 주인공과 저 주인공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모두가 주인공 자체는 둘이 아니니까, 그저 주인공 당신만이 그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고, 당신만이 공부 잘하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서 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저쪽에도 불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죽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저 잘 이끌어 가면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요. 애도 어른도 다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을 데로 고여 들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데로, 부드러운 데로 고여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참, 아주 제일 좋구나.' 하고선 가정으로 얼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뒷면의 인연의 줄이, 법망의 줄이 이어져서 불을 켜 주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불이 들어오니까 전부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런 분이 있었죠. 직장 일이 끝나도 집에 들어가고 싶질 않고 괜히 마음이 헛헛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가서 술 한잔 흥건하게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도 다 귀찮고 다 메어다 패대기치고 싶고 그렇대요. 이것을 억지로는 못하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의 부인에게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의 업이 미워. 그런데 당신의 업도 그 남편의 업도 둘이 똑같지? 어느 하나도 기울고 트는 게 없어. 보는 놈이나 하는 놈이나 똑같다 이거야." 하하하…. 그러니까 깡통은 깡통끼리 모였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 업을 모두 없애려면 남편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자식이 그렇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녹여라. 그러면 거기까지도 녹여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들어오더니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내가 괜히 술 먹어서 돈 없애고 세간 부수고…, 내가 미쳤나 봐. 여보, 나 참 미쳤나 봐." 그러고는 수박 한 덩이를 건네주면서 "이거 술 먹을 걸로 수박 사 왔지." 하하하! "아니, 소쿠리 하나만 부서져도 내 손해인데, 내가 또 사다 놓아야 될 텐데, 손해나는 일을 괜히 했어." 그러고는 아주 우스워서 죽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 날부터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아져서 잘 살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라. 위로는 네 자성불을 섬기고 아래로는 네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라. 그러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제도가 돼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투느니라.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 나투면서 모든 사람에게 약사도 되고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지장도 되고 용신, 지신까지도 돼 주느니라. 누가 응해 달라고 하든지 응신이 돼서 전부 천백억으로 나투느니라." 이러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하하….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머리 깎은 스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와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봄 말입니다.



유마힐 거사 아시죠?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마힐 거사도 그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게 다 부처님들입니다. 머리 깎고 입산한 사람이나 입산을 안 한 사람이나 마음 닦는 것은 같다는 그 뜻을 여러분 앞에 보여 주고 또 여러분도 공부하라 하는 뜻에서 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야죠. 모두가 그렇게 해서 시급히 업식들을 녹이고 다스리면서 실천을 해 나가는 이러한 공부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요놈의 자식, 왜 공부는 안 하고 요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느냐?" 하고 그냥 밖으로만 야단하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지 말고 안에다 놓고 "얘! 너 밥이나 먹고 다니니? 잠은 어떻게 자니? 집에 들어와서 자야 편안하지 않겠니?"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인의롭게 말해 주세요. 봄에 꽃 피듯이 말입니다. 겨울에는 보잘것없었던 고목이 봄이 되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조건 없이 모든 게 들어옵니다.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질문 보왕삼매론에 보면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를 믿고 시주를 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은 근심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부유하고 지혜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가만히 보세요. 덮어놓고 종교라 이름만 붙여 놓으면은 그냥 뭐, 아우성을 치고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부처님께서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부모의 혈육을 받고 나와서, 뜻을 받고 나와서, 고상하고 누(累)가 되지 않게, 자기가 누가 되면은 전체가 누가 되니까 누가 되지 않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주 고상한 제일가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점잖고 고상하고 알뜰하고 진실하고 선명하게 살아도, 이 모습을 가지고는 얼마 살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몸이 있을 때에, 이 몸이 있어야 상대도 있는 거니까 공부가 되는 거지 몸이 없으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딪침도 없고, 보는 거 듣는 것도 부딪침이 없어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이 다른 데다 정신 팔지 마시고 오직 한 생을 점프해서라도, '내가 한 생을 버리고라도, 한 생을 점프해서 내가 탈피하겠다'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피안의 세계가 바로 탈피의, 그 얽히지 않는 탈피의 세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나가는 데 가정의 안유나 원하고, 나의 에고나 없애기 위해서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되돌아나올 수가 없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고통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귀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걸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재료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놓을 때에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듯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데 세 가지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순응해야 하고, 둘째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셋째는 시대에 따라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날 때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그거는 불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품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 (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 현불 논단 |

불교계 Me too운동, 이제 시작이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

천주교 신부 성추행 고발로
미투 운동, 종교계 확산 조짐
이는 불교도 다를 바가 없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젠더가 매개화된 폭력이지만
종교계 성폭력은 층위가 다양

범계, 종법 · 계율 엄히 적용 처벌
자기 자신도 가해자 · 방관자 였나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폭로 이후 성폭력 고발이 문화계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더니, 급기야 종교계까지 이어졌다. 정의구현사제단에 소속된 천주교 수원교구의 유명한 한 신부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가 이해를 좀 해달라' 며 선교활동을 함께 하던 외국에서, 함께 자원봉사를 하던 여성 신자를 성폭력하려 했단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다른 신부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7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최근 미투(Me too)운동을 접하면서 용기를 냈다고 한다.

어렵게 말을 꺼낸 피해 여성 신도는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 신부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또한 침묵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거라며, 교구 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함께 신부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성직자에 의한 여성신자 성폭력의 심각성은 비단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불교도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젠더(남성 vs 여성)가 매개된 폭력으로, '감히 여자가' 라고는 말하지만 '감히 남자가' 라고는 말하지 않는 이치이다. 그런데 성직자의 여성신도 성폭력은 젠더뿐만 아니라 신분, 연령, 직위 등 다층적인 억압장치들이 매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별 위계가 신분위계와 연결되어 여성을 차별하는 현실은 조계종단에서도 볼 수 있다. 조계종단은 총무원장은 물론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종단의 지도자는 능력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비구' 여야 하고, 여성 신도는 사찰 내에서 공양간 봉사자나 시주자로 역할을 한다.

또한 종단 관련 단체에서 비구 스님과 여성 신도는 직장상사와 여직원이라는 업무상 위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지도법사와 신도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처럼 성별 권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계가 종횡으로 얽혀있는 속에서 성폭력에 노출되면, 피해여성이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설령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가해자는 권력과 지위를 동원해서 사실을 부정, 은폐 혹은 축소하거나, 피해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불교계 출가자의 성폭력은 가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찰이라는 수행공동체를 파괴하고,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불법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계율과 종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종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출가자는 바라이죄와 승잔죄 등의 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성범죄자는 결코 종단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또한 불교시민사회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피해자가 미투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미투운동에 동참하는 피해자가 왜 불교계는 나오지 않느냐고 묻기보다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지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개별 불교신자들은 교단 내 성폭력에 대해 자신이 동조자이자 방관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혹시 모임에서 성희롱 발언을 못들은 척 한 것은 아닌지, 성추행을 장난이나 놀이로 한 것은 아닌지, 여성 비하 발언을 재미있다며 유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성평등한 붓다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불교계 성폭력과 관련하여 미투(me too)라고 하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社 說

패럴림픽 행사 명칭 논란에 부쳐

대한민국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폐막하고 패럴림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는 패럴림픽 기간에 관광객들이 한류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을 개최한다고 밝혀 한 차례 찬물을 끼얹었다.

크리스마스(christmas)가 무슨 뜻이던가. 그리스도(Christ)와 미사(mass)의 합성어인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정치 ·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련 행사에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주최 측이 이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하면서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타종교인들에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겨울과 축제의 이미지를 갖는다는 인식은 종교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다종교 서구사회는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홀리데이' 를 사용하는 추세다. 이는 타종교를 위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세심하게 단어를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가 무슬림 관광객과 올림픽 선수들을 위해 강릉에 무슬림 이동 기도실을 설치하려다 보수 개신교 항의로 무산된 것처럼, 특정 종교의 청탁과 압력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종교화합은 분명 각 종교들이 나서서 이뤄야하는 과제이지만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자체와 기관에서의 종교중립이 뒷받침돼야 한다.

불자지성인, 평화의길 밝혀주길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北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교수불자대회와 북 사찰순례, 북한 문화재 조사 등 남북불교교류를 추진한다.

불자 지성인들의 결집체인 교불련은 1988년 창립된 이후 10주년인 1998년에는 IMF 국난 극복을 위한 자비실천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2008년에는 세계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계와의 소통을 주도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다시금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번 교불련의 공동사업 추진은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북핵 개발로 인한 갈등국면에서 현실화가 어려워보였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며 급물살을 탔다. 교불련 측이 2월 7일과 13일 제안 서한을 보내자 역시 두차례에 걸쳐 조불련 측이 화답한 것이다.

조불련 측은 서한을 통해 남북 교류의 핵심 창구로 교수불자연합회와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교불련과 조불련의 서한 교류에도 남북 불교계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북한 사찰의 보존 실태 조사와 문화재 조사, 성지순례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 인도적 지원과 대화 채널 확보 등이 그 것이다. 남과 북이 평화의 길을 가는데 불교계가 앞장서야 함은 불교 정신에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불교계의 교류는 스님들이 주축이 됐다는 점에서 교수들의 활동은 고무적이다. 재가불자 차원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다른 신도 재가단체의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

학문 연구와 교육의 본업 외에도 교수란 직책은 지성인,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 불자교수들의 활발한 대사회적인 행보를 기대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日미술관 정원 장식물된 韓 성보들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작가 모임 나우회 회원들의 도쿄국립박물관 답사 여행을 동행 취재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오쿠라 콜렉션과 불교미술' 을 주제로 열리는 재현전 준비를 위해서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 4층 조선미술실의 '오쿠라 콜렉션' 을 관람했다.

도쿄국립박물관 답사를 마치고 회원들과 찾은 곳은 도쿄 미나토구에 소재한 네즈 미술관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반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네즈 미술관 소장 운흥사 동종을 실견하고 싶기도 했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잘 정돈된 정원들 들어서니 당혹감이 우선 들었다. 누가 봐도 한국에서 건너왔을 석탑, 부도, 석등, 석주, 문인석, 석조 동자상들이 정원 장식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문인석과 석주, 석조 동자상에는 한국에서 건너왔다는 표지가 붙어있었지만, 길켠에 있던 석탑, 부도 등 다수의 한국 불교 성보들은 그런 표지마저 없었다.

찬찬히 한국 추정 성보들을 살펴봤다. 본래 자리에서 뜯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복원될 리가 만무했다. 조합이 맞지 않았고, 접합부 사이가 들뜬 것들이 발견됐다. 또한, 옥개석을 뒤집고, 그 위에 범어가 새겨진 옥신을 놓는 창작성(?)을 발휘한 조형물도 있었다.

앞선 '오쿠라 콜렉션' 은 해외 반출 문화재의 대명사로,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에서 살았던 일본의 실업가 오쿠라 다케노스케가 한반도 등에서 도굴하거나 수집해 간 문화재 1,856점을 통칭한다. 그는 1921년부터 한반도의 문화재를 수집했으며, 전후 이를 일본으로 가져갔다.

네즈 미술관의 설립자 네즈 가이치로우는 정치가 겸 실업가로 도부(東武)철도를 만든 인물이다. 고미술애호가라는 고상한 칭호도 있었던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순천 일대의 철도 부설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쿠라와 네즈,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부자 실업가다. 오쿠라는 대구에서 전기회사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네즈도 철도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들에게 문화재 수집은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행위였을지 모르겠다. 일본 제국주의 신민으로서 특유의 정복욕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역사 안에서 서로 공물을 주고 받으며 교류형태로 넘어간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일본 천왕가의 보물창고인 정창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도리어 한일교류사 연구를 위해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쿠라와 네즈의 경우에는 다르다. 멀쩡했던 석탑과 석등을 해체하고 무덤의 문인석, 석주를 가져다가 자신의 집 정원 장식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를 정당한 수집 행위라고 봐야 할까. 도쿄 유명 미술관 정원에 덩그러이 서 있는 이름 모를 한국 석탑과 부도가 계속 눈에 밟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신화불사
■ 25평 요사채. 팔작지붕. 육송재목 상태좋음. 기와포함. 4천만원
■ 전통한옥 철거, 매입 매매.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조각.
■ 60평 법당, 요사채 (2층 가능) 상태 A급, 맞배지붕, 저렴함.
■ 7층 석탑 (500~3,000만원) 다수 있습니다.
■ 수익형 기도처 양도가 21억원 (서울) 2억 (보증금) 월 1,000만원.
■ 사찰부지 4,800평 (포천) 양도가 15억, 다수의 석물 있음.
■ 38평 제실 상태 A급. 가격 매우 저렴.
010-6545-2020
그외 다수의 매물 있습니다

탈종공고
• 사 찰 명 : 봉덕사
• 주 지 : 봉천 (김병술)
• 승적번호 : 2009-27
• 주 소 : 경북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104-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SHC 삼환종합양초

울림이 새롭게 준비한 더 큰 울림 1월 29일 부터~
BTN불교라디오 개편



-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
  월~일 06시 / 월~금 15시, 토·일 23시
- 그대에게 이르는길 운성입니다
  월~금 07시 / 월~금 21시, 04시, 토 07시
- 송봉주의 음악풍경
  월~금 08시 / 월~금 20시, 03시, 일 13시
-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월~금 09시 / 월~금 16시, 23시, 일 07시

NEW! • 강민석의 소울케이크
월~금 10시 / 월~금 17시, 22시, 05시, 일 18시

- 원영스님의 해피타임
  월~금 11시 / 월~금 18시, 02시, 토 18시

NEW! • 이동은의 라라랜드
월~금 낮12시 / 월~금 밤12시, 토 밤12시, 월 02시

NEW! • 이승윤의 유쾌한쇼
월~금 14시 / 월~금 19시, 토 13시

NEW! • 울림팟티
토·일 낮12시 / 일 밤12시

스마트폰(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울림"검색 후 울림 앱을 무료다운받으세요 | BTN 불교라디오 울림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02-3270-3464~7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전통건축의 살아있는 '계보'



산문 밖의 禪

최기영 대목장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집'이란 각자의 삶을 축적해가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집을 짓는 일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신성한 일이며 중요한 일이다. 60년 가까이 우리 전통건축을 전승하고 있는 이가 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현대식 공법의 건물들이 대세인 오늘날, 나무를 손수 다듬고 기와를 얹어 집을 짓는 일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하며 우리건축을 잇고 있는 목수, 최기영 대목장이다.

우리건축의 살아 있는 대들보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현재 3명뿐인 대목장 중 한 사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한옥 중 전통사찰건축 독보적

60여 년 간 수 백 채 불사

16세에 김덕희 문하에서 입문

상원사 출가 탄허 스님 시봉도

죽을 각오로 대패 들어

할아버지 아버지도 목수

"봉정사 극락전 · 한마음선원 불사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불사"

대목장 최기영

200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으로 지정된 최 대목장은 현재 3명뿐인 대목장 중 한 사람이다. 우리 전통 건축의 살아있는 '계보'다. 대목장이란 궁궐, 사찰 등 전통건축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건축 전반의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목수를 말한다. 그는 일반적인 대목장의 표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목, 미장, 기와, 단청, 창호 등 한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훤히 꿰고 있는 대목장 중의 대목장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제대로 알아야 남이 하는 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죠. 그래야 대목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 대목장은 목조건축 중에서도 전통사찰 부분에서 독보적이다. 평생을 사찰 건축에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불사가 없을 정도로 역사적, 국가적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도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 상원사, 월정사, 낙산사, 수덕사, 한마음선원 등 주요 사찰의 대웅전이나 부속 당우들이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됐으며, 남한산성 수어장대와 충남 부여에 조성된 백제문화단지 사업도 그의 손을 거쳤다.

최 대목장은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전통건축기법을 통해 옛 건축물을 복원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건축의 아름다움을 재창조했다는 점이 등재의 이유다. 하지만 최 대목장은 아직도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다며 자신을 가리키는 수식어들을 어색해한다.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서 대패를 잡는, 그는 천상 '목수'다. 그는 어떻게 목수가 되었으며, 그 많은 불사의 인연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삶으로의 첫 발, '출가'

최 대목장은 1945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그의 유년과 청년시절은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시절이었다. 한 마디로 국민 대부분의 삶이 힘겨운 시절이었다. 최 대목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더욱 힘겨웠다. 다섯 살 때 아버지마저 여읜 최 대목장은 먹고 사는 일이 그야말로 일대사였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궁여지책으로 그는 마을에 있는 서당을 다니며 한학을 익혔다. 다른 친구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해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동안 그는 천자문과 명심보감, 소학, 논어, 맹자를 배웠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들에서 꼴을 베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야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연기(緣起)'였다. 최 대목장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훗날 대목장이 되기까지 한학이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시절에 배운 한자와 한학이 그가 전통건축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최 대목장이 열여섯 살 때였다. 시절은 이제 그를 더 이상 서당에 묶어두지 못했다. 그에게도 이제 삶은 그저 바라만 보고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본분이었다. 그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살기 위해서.

그는 어느 날, 서당의 훈장 큰 아들이 목수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는 사찰 불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는 목수보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절들이 귀에 들어왔다. 출가하면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될 것만 같았다. 최 대목장은 무작정 이야기로만 들은 평창 상원사를 찾아 나섰다.

당시 상원사에는 당대 선지식이며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탄허 스님이 계셨다. 탄허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던 그는 무작정 스님의 시봉 행자를 자청하며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출가의 위대한 뜻도 없었으며, 뜻 자체도 알지 못했던, 그야말로 '하루'를 살기 위한 출가였다. 어찌 보면 그의 출가는 힘겨움에서의 도피이기도 했으며, 삶으로의 위대한 첫 발이기도 했다. 그 출가로부터 목수 최기영의 삶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대 최고의 목수 김덕희를 만나다

최 대목장이 행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상원사 노전채와 월정사 지장암 요사채 불사를 위해 목수들이 산문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최 대목장이 서당에서 함께 공부했던 훈장의 아들 김충일 씨가 있었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최 대목장은 상원사 행자였고, 김충일 씨는 목수였다. 최 대목장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상원사로 이끌었던 김충일 씨를 다시 만나고보니 그 인연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그가 하고 있는 '목수'라는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삶이 다급하여 절에 들어온 최 대목장이었지만 김충일 씨를 통해 목수일을 하루하루 들여다보게 된 최 대목장은 삶에 대한 생각이 조금 씩 바뀌기 시작했다. 행자보다는 목수가 더 나아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B2면에 계속

최기영 대목장은… 1945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1961년 김덕희 문하에서 목수에 입문했다. 1977년 문화재청 지정 문화재수리기능자 목공 407호로 인정됐으며, 200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으로 지정됐다. 2008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전수교육관 관장을 맡고 있으며,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2016년부터는 전북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해체 보수, 영주 부석사 설법전, 한마음선원 부산 지원 대웅보전 등 수 백 채에 달하는 당우들을 되살리거나 새로 지었으며, 2004년 옥관문화훈장, 2006년 장한 한국인무궁화상, 2010년 은관문화훈장 등 다수 수상했다.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수좌와 승당(僧堂=禪堂)

B5 문화
윤양호 35회 초대 개인전

B6 학술 · 문화재
주목 학술서-공만식의 〈불교 음식학〉

“언젠가 내가 들어와 살지도 모르죠”

‘최기영 대목장’ B1면에서 계속

“저는 그 때 불교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탄허 스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머리를 깎으면 무슨 길이든 길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고 그래서 출가했죠. 형뻘인 김충일 씨는 돈을 벌고 있었어요. 며칠 곰곰이 생각했죠. 그리고 결심했죠. 목수가 되겠다고. 그 역시 원대한 뜻과 의미가 있는, 그런 발심은 아니었어요. 그저 먹고살아야 하는 일대사 때문이었죠.”

그랬다. 최 대목장에겐 아직 ‘생계’라는 일대사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김충일 씨를 찾아갔다. 그리고 목수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가 김충일 씨를 따라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목수였던 김덕희 선생과 그의 동생이자 제자였던 김중희 선생이었다.

전통 한옥건축에서 대목의 영역은 크게 두 갈래로 이어져왔다. 궁궐건축과 1600년 동안 이어져 오며 우리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찰건축이다. 김덕희 선생은 사찰건축의 계보를 잇는 당대 최고의 목수였다. 최 대목장은 김덕희 문하에서 목수로서의 첫 발을 띠게 된다.



백제 문화단지 능사 5층복탑.



강화 보문사 극락보전과 명부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보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넘어

신참 최기영은 손재주가 좋았다. 눈썰미도 좋았다. 한 번 본 것으로 그의 손은 충분했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의 손이 모두 기억했다. 낯선 연장들도 금방 손에 붙었다. 당시 목수들에게는 매뉴얼이나 교과서는 물론 스승이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쉴 틈 없이 일하는 중에 곁눈질로, 어깨너머로 주워들으며 스승의 비법을 익히는 것이 전부였다.

최기영은 밤이 되면 낮에 보고 들었던 것들을 달빛 아래 앉아 땅 바닥에 그리며 복습을 했다. 기둥도 그리고 서까래와 창호도 그리며 집을 지었다. 그렇게 최기영은 하루하루 목수가 되어갔다. 마치 목수가 천직인 사람인 것 같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신기한 일은 그저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손엔 목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도 목수였고, 아버지도 목수였다. 그는 훗날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최기영의 손은 이미 나무와 가까운 손이었다. 하지만 그가 목수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친으로부터의 유전적 소질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목수 아니면 내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못해내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했죠.”

그랬다. 그는 죽을 각오로 대패를 들었다. 이 세상에서 목수일 밖에는 없다는 생각으로 목수를 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할아버지를 넘고, 아버지를 넘어선 목수가 된 것이다. 결국 최기영의 불연은 산문의 삶이 아닌 사바의 삶으로 이어지는 연기였다.

하산, 목수 최기영 대목장의 길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목수가 되었던 최기영은 어느덧 어엿한 목수가 되었고, 마침내 스승의 울타리를 나서야 했다. 힘겨웠던 시절을 지나 스승의 울타리를 벗어났지만 울타리 밖은 더욱 힘겨웠다. 아니 힘겨웠다기 보다는 어려웠다. 막상 김덕희의 제자가 아닌, 목수 최기영이라는 이름을 걸고 밖으로 나오고 보니 마치 광야에 홀로 선 듯, 어느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는 의문들이 따라 붙기 시작했다.

“한옥이 보여주는 진짜 한국의 미는 과연 무엇일까.”

최 대목장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대패를 잡는 목수가 아니었다. 정확한 설계에 의해 원칙대로 집을 짓는 서양 건축과 달리 우리 전통 건축은 도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목장의 감과 촉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지붕의 높낮이나 처마의 미세한 곡선과 기울기, 서까래가 놓이는 각도 등은 터의 위치와 풍토, 집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망 등을 두루 감안하여 대목장이 즉석에서 감과 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옥 건축에 있어서 대목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외로운 자리인 것이다. 대목장 자신이 도면이고 연장인 것이다. 이제 그는 신념이 필요한 목수, 확실한 기준을 가진 대목장의 길에 들어서야 했다.

이음새 하나가 천년을 간다

최 대목장은 현장이 거듭될수록 그 신념과 기준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정읍 내장사 명부전,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갑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보전과 사천왕문, 순천 송광사 육감정, 양평 용문사 대웅전과 요사채, 영월 법흥사 무설전, 영주 부석사 설법전, 한마음선원 부산 지원 대웅보전 등 수백 채에 달하는 당우들을 되살리거나 새로 지었다. 그 중 가장 힘들었고, 힘들었던 만큼 애정을 쏟았으며, 큰 보람을 느꼈던 것은 충남 부여에 조성한 백제문화단지 중 전통사찰건축과 현존 최고 목조건축물인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해체보수 불사, 그리고 탄허 스님과 대행 스님으로 이어진 인연으로 짓게 된 음성과 부산의 한마음선원이다.

목수를 천직으로, 천상 목수
60여 년 단 하루도 쉰 적 없어
불사하며 부처님 가르침 알게 돼
“불법 알아야 ‘법당’ 지을 수 있어”
출가 인연 법당 짓는 목수로 회향
황룡사 9층 목탑 복원 마지막 원
“불사는 내가 다시 살 집 짓는 것”

“고려시대 건축된 사찰이지만 통일신라시대의 건축 양식을 내포하고 있는 봉정사 극락전 해체보수 불사를 통해 나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문화재의 소중한 비밀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백제문화단지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공사로 백제 특유의 하앙식 기법을 사용하여 사비궁과 위례성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37.5미터 높이의 능사 5층 목탑을 조성했죠. 또한 한마음선원은 대행 스님에 대한 내 존경심을 담아 사찰 안의 어느 건물 하나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숱하게 많은 불사를 이어오면서 최 대목장이 얻은 신념과 기준은 단 하나였다. ‘이음새 하나가 천 년을 간다’는 것이었다. 바로 최기영 대목장이 짓고 싶고, 짓고 있는 ‘집’이다. 그것은 최 대목장이 여러 현장을 통해 우리 전통 건축에서 발견한 최고의 가치였다. 그는 그와 같은 선조들의 신념과 기준을 충실하게 잇고 있는 것이다.

“남들 잘 때 다 자면 결코 장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여.”

최 대목장의 스승 김덕희 선생이 그에게 남긴 가르침이다. 그를 대목장으로 이끌어 준 소중한 가르침이다. 그는 단 한 줄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며, 60년 가까이 단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다.

건축가 최기영, 불제자 최기영

“많은 당우를 고치고, 짓고 하다 보니 대패질 하나도 시절과 함께 달라지더군요. 내가 목수가 되고 대목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불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한 해 한 해 내가 지은 불사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불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 돌아보니, 내가 지었고 또 지어야 하는 건축물들이 거의 모두 부처님 모시는 집이었다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나니 창호 하나, 기와 한 장 얹는 일이 또 한 번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짓는 집이 언젠가 내가 살게 될 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생에 말이죠. 그러니 천 년, 아니 그 이상 가는 집을 짓는 게 내 일이구나 생각했죠.”

최 대목장은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머리를 깎았지만 출가의 공덕을 온전히 회향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60년 가까이 절집을 지으면서 경전과 목탁 대신 대패와 망치를 들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갔다. 법당의 기와가 쌓이는 만큼 그의 불교도 쌓여간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 법당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지은 법당은 ‘법당’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원력이 있다면 황룡사 9층 목탑 되살리는 게 생애 마지막 꿈입니다.”

평생 목수로 살아온 최 대목장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고, 알면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 그는 선조들의 위대한 불사인 황룡사 목탑의 전설을 떠올리면 아직도 자신이 한 없이 작다고 했다. 그는 그 어떤 민족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건축의 위대함이 깃들어 있는 황룡사 목탑을 재현함으로써 불연 속에서 살아온 시간을 회향하고 싶다고 했다.

나무 끝에 지은 새들의 둥지 하나도 허투루 지은 것이 없다. 최 대목장은 언젠가 자신이 다른 이름으로 돌아와 살지도 모르는, ‘집’을 짓고 있었다.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승당은 범부가 부처 되는 곳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⑤ 수좌와 승당(僧堂=禪堂)

수좌는 승당(선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납자들의 참선 수행지도 등 교육을 총괄하는 소임이다. 방장(주지)이 선종사원(총림)의 1인자, 최고 어른이라면, 수좌는 감원(행정 경제 및 운영 총괄)과 함께 2인자이다.

'수좌(首座)'란 '승당 내에서 앉는 자리(座)가 가장 첫 번 째(首, 으뜸)'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일좌(第一座)' 또는 '좌원(座元, 자리가 으뜸)'이라고도 하고, 선당의 우두머리라는 뜻에서 선두(禪頭), 대중 가운데 상수(上首)이므로 수중(首衆), 또 판수(板首, 장련상 판의 첫째 자리)라고도 한다.

수좌는 선원의 수석 선승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동시에 매우 명예스러운 자리이기도 하다.

수좌는 방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때도 많다. 예컨대 주지(방장)가 공무(公務)로 총림을 비우거나 입적으로 궐석일 때는 수좌가 주지를 대신하여 소참 · 조참 · 만참 등 모든 법문을 한다. 그 밖에 독참도 한다. 그만치 법력(法力) 면에서 존경받고 있는 위치이다. 다만 수좌가 법문을 할 때는 정식 설법 장소인 법당에서는 할 수가 없고 '조당(照堂)'이라는 건물에서 이루어진다. 법당에서는 주지(방장) 외에는 법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 방장은 주지의 堂號 명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직함으로 쓰지만 당송시대, 청대까지도 당호로만 쓰였다. 대웅전과 법당은 다르다.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신 곳이고, 법당은 설법당이다).

승당(僧堂, 禪堂)

승당(僧堂)은 곧 선당(禪堂)으로서 좌선하는 곳이다. 선당의 책임자는 수좌이다. 선당은 우리나라로 치면 총림이나 선원 내에 있는 선방이다. 선당은 납자들의 수행 공간인 동시에 생활공간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송시대에는 단순히 좌선만 하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서 공양과 침식을 하는 등 숙식을 함께 한다.

승당은 불전(대웅전) · 법당과 함께 칠당가람(七堂伽藍) 가운데 하나이다. '칠당'이란 선종사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일곱 개의 중요한 건물로서 산문(山門) · 불전(佛殿, 대웅전) · 법당(法堂) · 승당(僧堂, 선당) · 고원(庫院 · 주방, 부엌) · 동사(東司, 화장실) · 욕실(浴室)이다.

법당의 기능이 주지의 법문을 통하여 반야지혜를 갖추는 곳이라면, 승당의 기능은 좌선당으로서 선정(禪定)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혜가 과도하면 관념적인 깨달음, 개념적인 깨달음, 말뿐인 구두선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정이 과도하면 무사(無事) 안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승당은 범부가 들어가서 부처가 되어 나오는 곳이다. 그러나 승당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깨달은 부처가 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나오기도 한다. 깨달은 부처가 되는 조건은 반야지혜와 좌선을 겸비해야만 되는데, 하나도 갖추지 못하는 수행자도 부지기수(不知其數)다.

수좌나 감원 등 중요한 소임자인 6지나 6두수를 제외한 모든 납자들은 기본적으로 승당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지사와 6두수도 좌선과 공양은 반드시 승당에서 대중들과 함께 해야 한다. 승당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대중들이 기거한다. 굉지정각이 방장으로 있을 당시 천동사 대승당에는 약 900명이나 기거했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따라서 승당은 대중 공동체생활을 익히는 시험장이기도 하다.

승당에 대한 이칭은 매우 많다. '선당(禪堂)', '좌선당(坐禪堂)', '선불장(選佛場)', '운당(雲堂)', '성승당(聖僧堂)' 등.

'선불장(選佛場)'이라는 말은 '부처를 뽑는 곳'이라는 말인데 승당에서 깨달은 부처가 나오기 때문이다.

운당은 운수납자가 모여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수행납자들의 모습이 구름처럼 물처럼 집착 없이 살아간다고 하여 '운수(雲水)' '운수납자'라고 하는데,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1년에 평균 두 번씩 구름처럼 집착 없이 떠돌아다닌다. 그것을 행각, 만행이라고 하는데, 사방으로 스승을 찾아 떠나는 것, 법담, 법거량을 통하여 절차탁마하는 것이 만행의 본래 의미이다.

또 승당을 '성승당(聖僧堂)'이라고도 한다. 승당 중앙에 사문 모습의 '승형 문수상(僧形文殊像)'을 모시기 때문인데 그 문수상을 '성승상(聖僧像)'이라고 한다. 보관(寶冠)을 쓴 여성형 문수상이 아닌, 삭발 · 좌선하고 있는 모습의 문수상을 모시는 것은 모범적인 수도승 모습, 문수보살의 수행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문(스님)으로서 수행하여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참선자로 하여금 분발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수상을 모시는 것은 반야지혜를 상징한다. 총림에 따라서는 간혹 달마상이나 가섭존자상, 빈두루존자상, 포대화상을 모시는 곳도 있는데, 90%는 승형 문수상을 모신다.

승당의 여러 가지 이칭에서도 보았듯이 중국 사람들은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다. 승당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자나 탐구자로서는 좀 애를 먹기는 해도 매우 재미가 있다. 이런 것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조동종 총지사 승당 내부.

僧堂=禪堂 좌선하는 곳
우리나라로 치면 선방
수행 · 생활 겸용
법당-법문, 승당-선정
공동체생활 익히는 시험장

승당 가운데 가장 큰 승당은 남송시대 5산(五山) 가운데 첫째였던 항주 경산사(徑山寺) 천승각(千僧閣)이다. 지금 항주 경산사는 폐허가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콘크리트로 거창하게 완공했다고 하는데, 간화선의 거장인 대혜선사(1089~1163)가 주지(방장)로 있을 때는 무려 1,700명이나 되는 납자들이 기거했다. 기존의 두 개의 승당 가지고도 부족해서 별도로 '천승각(千僧閣)'이라는 대승당을 신축했다(대혜종고가 만년에 경산사 주지로 있을 때). 이름 그대로 '천명이 기거할 수 있는 승당'이라는 뜻이다.

천승각은 대혜선사 입적 후 얼마 안 가서 화재로 전소되었다. 1236년에 다시 천승각을 재건했는데, 무너진 승당 건물 잿더미 속에서 854명의 좌선자 명단이 발견되었다. 그것을 계랍패(戒臘牌, 나무에 새긴 법랍패, 좌선패)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청중(淸衆, 대중)이 모두 854명이었다(淸衆, 共八百五十四員)"라고 적힌 기록이 발견되었다(張十慶, 〈중국강남선종사원건축〉, p.65, 湖北교육출판사, 2002).

나는 처음에는 '천승각(千僧閣)'이라는 명칭을 보고 "중국 사람들은 허풍도 너무 심해.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허풍이 아니고 사실이었다. 실제 한 승당 건물에서 천명 가까이 기거하면서 수행한 것인데, 천승각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짐작이 가지 않는다. 항주 영은사는 지금도 유명한 사찰인데 그곳 승당도 경산사 천승각에 버금갔다고 한다.

경산사 천승각의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나로서는 갖고 있지 않지만, 경산사에서 100여리 떨어진 영파 천동사에도 대승당(大僧堂)이 있었다. 천동사는 남송5산의 세 번째였는데, 묵조선의 거장인 굉지정각(1091~1157) 선사가 주지(방장)로 있을 때 납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대승당을 지었는데, 규모가 전면 200척(약 60미터), 측면 160척(약 48미터)으로 약 872평이나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단일 목조 건물 1층의 건평(建坪)이 872평이라는 말인데, 서울 조계사 대웅전이 155.7평이므로 조계사 대웅전보다 약 5, 6배나 큰 승당이었다. 큰 대들보가 두 개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대들보가 두 개나 되는 그와 같이 큰 건물은 없기 때문에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장자(莊子)〉 '소요유편'에 보면 붕새가 큰 의지를 품고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고 날 때는 3천리를 활주하다가 날아오른다고 한다.

수행자의 개인적인 공간

이렇게 큰 승당이지만 수행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고작해도 가로 1미터, 세로 2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다미 1장, 혹은 합판 1장 정도인데, 이 공간을 선어록에서는 '삼조연하 칠척단전(三條椽下 七尺單前)'이라고 한다. 미학적인 표현으로 1인의 수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선방도 마찬가지이다.

이쯤에서 '삼조연하 칠척단전(三條椽下 七尺單前)'에 대한 선문답을 하나 감상하고 넘어가 보고자 한다.

원오극근(1063~1135)의 〈벽암록〉 25칙(蓮花庵主不住) 평창에는 "삼조연하 칠척단전(三條椽下 七尺單前)에서 다시 한 번 참구해 보라"는 말이 나온다. 무슨 말일까? 먼저 원문과 번역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你諸人, 若見得, 與蓮花峰庵主, 同參, 其或未然, 三條椽下, 七尺單前, 試去參詳看.

여러분들이 만약 (이 소식을) 알았다면 연화봉 암주와 함께 동참할 수 있지만, 만약에 혹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체득하지 못했다면) '서까래 세 개 아래, 일곱 자의 단(單) 앞에서 자세히 한번 참구해 보시오.

'삼조연(三條椽, 세 개의 서까래)'은 선당 천정에 있는 서까래(椽) 3개(三條)를 가리킨다.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가 약 30센티 정도이므로 3개라면 가로 넓이가 1미터 가량 된다. 그리고 칠척단전(七尺單前)은 길이 일곱 자(약 2미터 10센티)되는 좌단(坐單, 앉는 자리)을 가리킨다. '단(單)'은 곧 한 사람의 수행승이 좌선 · 취침하는 면적의 단위이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 그 소식을 알았다면 연화봉 암주와 함께 본분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만일 아직 알지 못했다면(其或未然), '삼조연하 칠척단전(三條椽下 七尺單前)' 즉 지금 그대가 좌선, 취침, 공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참구해 보라(試去參詳看)는 뜻이다.

'삼조연하 칠척단전'은 겨우 한 사람의 납자가 누울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공간이다. 말하자면 군대 내무반처럼 다다미 한 장 크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좌선 공간이고 수행과 생활공간이다. 그러나 이곳은 납자로서 '인생사,' 곧 '일대사인연'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만일 거기서 깨닫는다면(你諸人若見得) 그 공간은 우주를 다 포용하고도 남겠지만, 깨닫지 못한다면(其或未然) 한 알의 겨자씨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도 한 수행자가 좌선하고 잠자는 공간은 삼조연하 칠척단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위대한 부처가 탄생하고 조사가 탄생한다. 그 부처와 조사는 인류 정신사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정신세계를 계승, 발전시키고 또 창조해 가고 있는 이들이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다"



사띠빳타나 수행

우 냐나로까 사야도 법문/비구 감비라냐나 정리
민족사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행복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자유롭고 평온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한다. 현대사회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갖가지 힘, 즉 스트레스를 가한다. 그 압력을 우리들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문명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필립 짐 바르도라는 심리학자는 그의 저서 〈심리학과 삶〉에서 사람이 주변 환경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 반응하는 네 가지 단계를 설명한다.

① 감정적인 단계: 슬픔, 의기소침, 성냄, 짜증, 좌절감
② 행동 단계: 생산성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③ 생리적 단계: 주로 신체적인 긴장을 말하는데 이것이 발전하면 통증, 위궤양, 고혈압 등 갖가지 질병이 된다.
④ 인지의 단계: 자신을 지나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경우, 그 결과 자기 자신이 아무 쓸모없고 희망도 없다는 감정에 빠져들어 최악의 경우 자살까지 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강한 자아의식의 산물"

사람들이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은 강한 자아의식으로 인하여 자아에 집착해 마음이 불분명해져서 균형 잡히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자아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마음이 탐욕에 지나치게 집착해서이다. 그것은 때로는 격렬하게 화를 내게 이끈다. 또한 이해의 부족, 무지 때문에 탐욕이 일어난다. 탐욕은 무지에 의존되어 있다.

마음을 사띠해 관찰하는 순간에는, 수행자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멈출 수 있다. 그러므로 열렬한 집착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 통찰을 하는 동안은 절대로 성냄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마음 통찰을 하는 순간에는 수행자가 게을러지거나 혼침에 빠지지 않는다.

그와 같이 정진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탐욕과 성냄, 무지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분명해져 있으며 따라서 마음이 균형되고 안정돼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육체적 고통과 질병이 치유되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키고,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에 혈액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반응은 어떤 신체적인 위협에 대처하거나 위험으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와 상관되는 질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빳사나 수행은 신체의 맥박을 줄이고, 긴장을 누그러뜨린다. 많은 의학학술 보고들이 명상 수행의 건강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명상 수행은 특별히 고혈압, 과민성 대장 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같은 스트레스와 연결되는 질병과 통증 그리고 불안증이 곁들여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 의학자들은 고혈압 환자들이 명상 수행요법을 통해서 혈압과 맥박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좁아진 심장동맥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고 보고했다. 똑같은 시간을 명상 대신 식이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은 혈압은 낮아졌으나 관상동맥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도 아울러 참고할 만하다. 현대는 참으로 바쁘게 살고 있는 시대이다. 바쁘게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데, 행복이란 결국 마음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대한 이해 없이 외부로부터 행복을 얻기는 어렵다. 마음 구조와 역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마음의 구조와 역할을 이해하는 실천적 행위가 곧 수행이다.

따라서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만 행복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행복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수단보다 우선적으로 수행을 삶 안에 끌어안아야 한다. 수행을 통해 얻는 삶의 유익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이 수행의 유익함을 초기 단계에서 일부 수행자들은 분명하게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띠와 삼매가 깊어져 지혜의 맛을 조금씩 보게 되었을 때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유익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 관찰 순간에는 집착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 통찰 순간에는 혼침에 빠지지 않는다
마음 구조와 역할 이해하는 실천 행위가 수행

"마음이 분명하고 안정되어 평안해지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불분명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이 선명하지 못하고, 확실하지는 않으나 항상 무엇인가를 찾고 있으며 들떠 있다. 또한 온갖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반복된다. 그래서 불분명하며 불안한 마음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탐욕이라는 열렬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격렬하거나 미세한 성냄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이해의 부족, 무지가 있기 때문이다. 불만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들떠 있을 때, 또한 온갖 생각이 일어날 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의 상태와 작용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중해 바로 그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마음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한 순간에 한 번만 일어났다 사라진다. 동시에 여러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음이 작용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 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려서 밀착 관찰하면', 그러한 정적인 마음의 작용은 멈추게 된다. 나아가서 그 부정적인 마음의 원인인 열렬한 바람 혹은 격렬하거나 미세한 화가 사라진다. 더욱 '알아차려서 밀착해 관찰'로 나아가면 수행자의 마음은 안정과 평안 그리고 평온과 평화로움으로 나아가게 된다. 더욱 수행이 진보되면 탐욕과 성냄 그리고 미혹의 원인인 무지의 뿌리가 점점 잘려나가 마침내는 매우 자유롭게 될 것이다.

풍부한 해설로 〈금강경〉 핵심 설명하다



금강경 강의 절요

정공 지음
양관 옮김
담앤북스 펴냄
2만 2천원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는 경전으로 반야계 경전의 대표 가운데 하나이다. 대승불교 초기인 2세기 무렵 성립된 〈금강경〉은 600부 〈대품반야경〉 정수를 한 권에 압축해 담고 있다. 길지 않은 적절한 분량에 대승불교의 깊은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종파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인도는 물론 티베트,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유통되며 고승대덕들의 주석서가 800여 가지나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의 불교 유입 초기에 전래됐으며 원효 스님이 주소를 쓴 바 있으며, 고려 중기에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불교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반드시 〈금강경〉을 읽게 한 뒤로부터 널리 유통되었다. 〈금강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에게 공 사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공(空)이나 보리심(菩提心)이라는 용어를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 사상에 입각해 대승보살의 집착 없는 실천행에 대해 설한다. 대승불교의 진수가 담긴 〈금강경〉에 대해 근현대에 많은 해설서가 발간됐지만 그 중 최고봉은 강미농 거사의 〈금강경 강의〉라고 할 수 있다. 강미농 거사는 돈황 석굴서 나온 사경과 옛 대덕의 주소 10여 종에 근거하여 금강경을 교감하며, 천태, 화엄, 정토, 선, 밀 등 불교의 주요 종파와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등 주요 경전 그리고 대승기신론 등 주요 논서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해석과 풍부한 해설로 〈금강경〉의 핵심을 상세히 설명한다. 우리말로도 번역된, 강미농 거사의 금강경 강의는 〈금강경〉 진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뛰어난 저술이지만 너무 상세하고 방대하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 중국불교의 큰 스승인 대만의 정공(淨空) 법사가 그 방대함 속에서 핵심만 찾아 다시 강의했고, 그 강의를 펴낸 것이 바로 이 〈금강경 강의 절요〉이다. 이 책은 이름 그대로, 강미농 거사의 〈금강경 강의〉의 〈요점〉을 간추리면서, 또한 금강경이 전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실천 방법에 대한 정공 법사의 자상한 가르침도 함께 전한다.

〈금강경〉 뜻 바르게 설하는 정공 법사 강설
금강경 해설서 최고봉, 〈강미농 금강경 강의〉

우리에게는 본래 반야의 바른 지혜가 있지만 망상과 집착이라는 장애에 가로 막혀 있을 뿐이다. 반야를 가로 막고 있는 망상은 분별하는 마음(分別心)이고, 집착은 아집(我執)과 법집(法執) 두 가지이다. 수행이란 망상과 집착이라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모든 장애를 능히 깨뜨리는, 금강과 같은 반야의 바른 지혜를 열어 깨닫게 하는 것이 〈금강경〉의 작용이다. 한 번을 독송하더라도 뜻을 바르게 알고 독송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정공 법사님의 절요(節要)는 금강경의 핵심, 대승불교의 진수를 무엇보다 분명하고 간명하게 드러낸다. 무엇을 깨뜨려야 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지 상세하고 친절히 설한다.

김주일 기자

"지난한 인생길에서 나는 연꽃이고 싶었다"



별빛으로 살다 별빛으로 다시 오리라

글 벽담 학명
정리 이재호
씨피앤 펴냄
1만 9천원

"삶, 그 지난한 인생길에서 나는 연꽃이고 싶었다. 인생은 어차피 고행이지만, 나는 그 길에서 밤하늘의 빛나는 별이고 싶었다. 또한 수행자로서 가장 겸손한 이유이고 싶었다"

이 책은 벽담 학명 스님의 자서전이다. 남한산 성불사 주지였던 스님은 1960년 출가해, 1976년 남한산성 성불사를 중창한 이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반드시 실천하라'는 은사 스님의 말씀을 거울삼아 많은 봉사와 나눔의 삶을 실천한 분이다. 이 책의 제목인 '별빛으로 살다 별칭으로 다시 오리라'처럼, 스님은 어려움의 시간속에서 순수한 감성을 간직하며 삶의 한 시점마다 꺼내보이는 여유를 아는 수행자였다. 이 책에는 깨달음을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스님의 모습이 진솔히 그려져 있다.

육신과도 같고, 영혼과도 같은 성불사. 성불사와 벽담 학명은 한 가지이다. 벽담 학명의 자아도, 자존감도 모두 이 성불사에 그 흔적이 그려져 있다. 부처님의 재자(齋者)로 평생을 갈구한 삶을 표현한다면, 남한산 자락의 성불사이다. 깊은 밤하늘의 별이 다듬어 놓은 길을 따라서 남한산에 오르면서 느꼈던 서러움과 분노가 때로는 삶의 전부였다. 벽담 학명은 그 아쉬운 한순간을 붙드는 수단으로 이 텍스트를 작성했다.

"누구에게나 살아온 이야기는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말한다. 내 이야기를 쓰면 소설 몇 권이라고……. 지금 성불사 앞마당에는 어떤 신도가 어떤 사연으로 서성이는지, 그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안다. 마치 저 창공에서 성불사를 내려다보듯이 삶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일찍이 남한산 자락의 그 속 깊은 사연을 읽고 쓰면서 살아왔다. 아쉬움도 있었고, 환희와 기쁨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 이야기는 처음 털어놓는다. 나 자신의

봉사와 나눔의 삶 실천한 수행자
저자의 감성과 수행자적 삶 담아

이야기가 그리 대단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생을 왔으니 몇 가지 구절은 남기고 싶은 마음이다. 아, 늙는 것은 한순간이고, 죽는 것 또한 한순간이리라. 어쩌면 나의 이야기도 한순간일지 모른다"고 책 속에서 스님은 소회를 밝힌다.

학명 스님의 자서전인 이 책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지향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이 오롯이 그려져 있다.

김주일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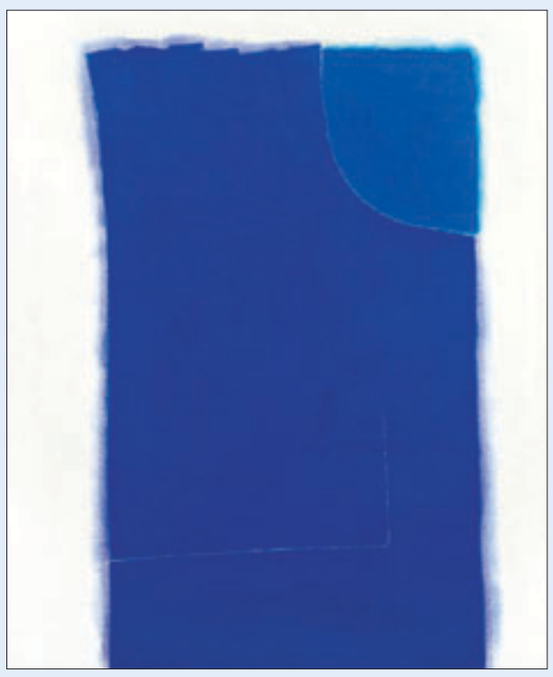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색 하나로 펼치는 교감의 미학

윤양호 35회 초대 개인전 'DANSAEKHWA'
3월 1일~4월 30일, 서울 갤러리 비선재



'아는 것을 버리다' 200×250㎝



'아는 것을 버리다' 162×130㎝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색 하나로 선(禪)의 세계를 그린 전시회가 열린다. 예술을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로 생각하고, 선(禪)의 세계를 현대미술로 표현해 온 윤양호 화가의 35번 째 초대개인전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갤러리 비선재에서 열린다.

"첫째, 수행의 미학이다. 출가자에게 수행이 기본이듯이 나에게도 수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수행은 인식의 확장이고, 그 인식을 통하여 자연과 교감하며 영혼과 소통한다.

둘째,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사라진다.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사상과 철학, 문화로 인하여 서로 다르다고 인식돼 왔다.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셋째, 교감의 미학이다. 우리는 복잡다단한 현대생활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 내가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생각을 놓으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혼란스럽지 않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감은 아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다." – 작가의 노트 중에서.

그 동안 단색화로 자신의 미학을 추구해온 윤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대형의 청색 그림들을 선보인다. 윤 화백은 수행의 미학, 동서양의 구분 소멸, 교감의 미학을 통해 미술의 현대적 맥락을 따라왔다. 윤 화백의 이번 작업은 위의 세 가지 요소를 자신만의 '청색'으로 발현한 교감의 미학이다.

윤양호가 처음으로 단색에 관심을 가진 때는 1994년으로 흰 광목 천에 검정색 원을 그린 연작을 제작할 때이다. 사진을 통해 본 바로는 벽에 7점(180x180cm)의 같은 크기의 작품이 걸려 있고 바닥의 중앙에 한 점이 놓여 있다. 이것이 윤양호의 최초의 단색화 작품이다.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색으로 제작한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청색 계열의 단색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윤 화백은 자신이 사용하는 청색에 대한 참조물로 이브 클랭의 작품에 대해 언급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이브 클랭의 청색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가 추구했던 정신이 '허(虛 · void)'에 대한 탐색이었음에 주목했다. 이는 그가 이브 클랭의 발명품인 IKB(안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그의 정신을 참고하여 '빈 것(空)'의 개념을 자신의 선수행과 연결시켜 작품화한 것 등 자신의 작화 행위에 대한 변(辨)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하에 배태된 관념적 구분을 완화시킴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선 수행이 인식의 확장이며 영혼의 소통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럴진대 그의 영혼은 IKB 물감의 발명자인 이브 클랭과 소통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공개된 작품은 또 관객과 소통을 이루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 교감의 미학은 관객 참여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더욱 타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윤양호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작품은 대형의 청색 그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작품과 관객 간의 교감과 소통, 그리고 나아가서는 치유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단색화(Dansaekhwa)가 서양 미술사와 다소 겹치는 대목이 있다면 말레비치나 이브 클랭을 비롯한 작가들이 추구한 '정신성'이다. 그러나 그것마저 한국의 단색파(Dansaekpa) 작가들이 추구한 것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이브 클랭은 허공을 탐색하기 위해서 몸을 통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반면, 한국의 전기 단색파 작가들은 금욕이라는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수행성을 강조했다.

윤양호가 작품 제작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역시 동양회화적 미학과 수행임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는 90년대 중반에 이미 이러한 실험을 숱하게 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물과 언어에 기반을 둔 개념적 요소는 점차 제거되고 반복적 행위에 의한 정신성이 단색에 스며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검정색에 집중하다가 뒤로 갈수록 청, 적, 금색 등 제한적인 색에 몰입하게 된 것은 색이 지닌 정신의 환기 기능에 주목하면서부터이다. 특히 다년간 청색에 몰두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청색이 지닌 치유의 기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화집 출판과 동시에 대형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번 전시는 작가 개인에게 있어서 국제적 도약을 위한 무대이다. 윤 화백의 지난 28년의 화업을 중간 결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눈 감고 바라본 물 속, 그 풍경

한경혜 '물은 생명이다' 展 3월 7~12일 인사아트스페이스



푸른꿈(Blue dream) 103×145㎝ 한지 수묵담채

물과 돌의 작가 한경혜 화가의 아홉 번째 전시회 '물은 생명이다'가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세찬 파도가 몰아치다가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바다. 거기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을 볼 수 있다. 또 물이 밀려들어온다. 〈중략〉 생명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곳에는 항상 물이 있었다." – 작가의 노트에서.

한경혜, 그녀가 바라본 물속은 역시 달랐다. 물과 돌의 작가라는 라벨은 이제 그녀의 작가적 격조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가 그린 물속은 눈을 감고 바라봐야 그릴 수 있는 풍경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그린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과 '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한경혜 작가가 한국의 바닷가를 찾아다니며 그린 그림들이다. 바닷가에 정박한 그녀의 시선은 누구나 바라보는 수평선이나 위로를 위한 공간들에 홀리지 않았다. 바닷물이 해안에 다가와 멈추는 시점, 그리고 다시 밀려가고 남은 빈자리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바닥,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유심히 섬세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풍경들을 그렸다. 작가는 바다에 관한 흔하고 상투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바닥으로 내려간 한경혜의 시선으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낯선 세계와 만난다. 작가는 그 낯선 세계를 그려나갔다. 그리하여 이번에 선보이는 작가의 그림들은 '존재'라는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 눈만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그려내려고 했다. '설명'으로 정리되는 '존재'가 아닌 '체험'으로 흡수해버린 '존재'에 대한 작가의 생각, 느낌이다. 힘겨움을 힘겨움으로 극복하며 어느 누구보다 내면에 집중했고 내면을 체험했던 작가 한경혜. 그래서 그녀의 눈은 내면을 바라보기에 최적화된 것일까. 그녀의 눈은 모든 것들의 내면으로, 내면으로 향한다.

그래서일까. 그림만 보면 사실 무엇을 그렸는지 쉽게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는 이들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분명 실재하는 바다풍경이지만 동시에 기이한 장면이자 낯선 풍경이고 이미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익숙하고 관습적인 시선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선물처럼 받아보게 된다. 서양의 일러스트를 보는 듯한 그녀의 수묵은 삶의 비밀을, 우주의 신비를 어려운 암호로 그리고 있는 듯하다. 형식면에서도 그녀의 그림은 이야기할 것이 많을 듯하다. 조심스러운 먹선 위에 말고 투명한 채색. 한경혜식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들은 신비스러움을 자아낸다.

박재완 기자

'동아시아 호랑이 미술' 展 온라인 전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현재 열리고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기념 국제특별전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韓國 · 日本 · 中國' 전시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2월 2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전시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전시감상과, 가상 전시실(VR) 체험 서비스를 통해 호랑이 작품을 전 세계인들이 관람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 온라인 전시 서비스는 구글 아트 앤 컬처와 협업하여 선보이는 것으로, 구글 아트카메라로 촬영한 4작품을 포함한 총 13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아트카메라는 구글 아트 앤 컬처가 제공하는 고도의 촬영기술로, 기가픽셀 (10억 화소에 달하는 이미지) 이미지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세세한 디테일까지 담아낸다. 또,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에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클라우드 프로세싱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초고화질 이미지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와 작품은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https://www.google.com/culturalinstitute)와 모바일 앱(Google Arts & Culture)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을 치세요!
인터넷동영상강좌 평생교육원 대통인.com
온라인 인터넷 동영상강의보기 사이트
수강상담 전화
1661-6551
(24시간 접수중)
인터넷 동영상 수강 과목

명리학	구성학	기문둔갑
매화역수	천문지리풍수	수상
육효	육임	주역
타로	물상명리	풍수지리
성명학	수맥	팔체질
꿈해몽	생활풍수	사자소학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좋다.
• 역학의 모든 과목을 실력있는 강사에게 배운다.
• 누구나 저비용으로 반복하며 전 과목을 공부한다.
• 누구나 공부하면 빠른시일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학술원을 치세요!
오프라인 인터넷 강의 알리미 사이트 천국공개강의 대통인학술원.com
오프라인 인터넷 공개강의보기 사이트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상담 전화
1833-9551
(24시간 접수 중)
현재 오프라인 수강생모집 과목

과 목	강사명	개강일	수강시간	강의시간	월수강료	비 고
구 성 학	박창원	3월13일(화)	14-17시	3개월	20만원	교재제공
자연물상 사주명리	지정도	3월14일(수)	13-15시 16-18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유니버셜 타 로	차두성	3월14일(수)	10-12시 14-16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주 역 점	장호철	3월15일(목)	14-16시 19-21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3월18일(일)	12-14시			
마르세유 정통타로	조미정	3월16일(금)	14-16시 17-19시	2개월	20만원	교재제공

•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대통인학술원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공개강의 공지를 자세히 보세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22번지 흥도빌딩 3층 301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30m) (자가용 → 영등포구 구의회옆 당산공영주차장 이용)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40,800원
(무료배송)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하고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음식은 불교서 어떻게 인식됐을까



주목! 학술서

공만식의 〈불교음식학〉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특유의 공양 방식인 발우공양의 모습. 불교 음식은 식육 금지의 채식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2600년 불교사 안에서 음식에 대한 인식 지평은 매우 넓다.

불교와 음식' 고찰한 연구서

초기·대승불교 문헌들을 통해

불교 음식에 담긴 의미 추적

식육 인식, 시대에 따라 변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을 넘어 '미식(美食)'이라는 욕망 충족까지 이루는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종교에서는 계율에 따라 금기시하는 음식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식육 금지 문화이다. 그렇다면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부터 식육을 금지했을까. 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서가 나왔다.

인도 델리대(박사)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영국 런던대 SOAS와 킹스 칼리지에서 음식학 및 불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공만식이 내놓은 〈불교음식학-음식과 욕망〉은 '불교에 있어 음식은 어떤 존재인가'를 추적한 국내 최초 연구서이다.

그간 한국학계에서는 '불교와 음식' 관련 논문이 몇몇 발표되긴 했으나 그 수가 미미했고, 전문적 접근이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음식학〉은 '음식학'과 '불교학'을 전공한 저자가 둘을 접목해 불교가 바라보는 음식의 문제를 삼장(三藏)에 근거해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불교 우주론 속에 녹아든 음식에 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빨리어 경전인 〈디가 니까야〉의 〈아간냐경〉을 분석한다. 불교의 창조신화로 자주 언급되는 이 경전에서 욕계(欲界) 최초의 중생은 배설물이 생기지 않는 '미묘한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만 악행을 저지르면서 결국 음식의 질이 하락해 '거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 몸 안에 배설물이 형성되어 배출할 필요가 생기자 남녀의 성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전에 담긴 불교의 음식에 관한 인식은 "태초의 낙원과 같은 상태를 상실케 한 결정적 요인은 음식을 먹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먹는 행위를 금지시키지 않았다. 부처가 정각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사람은 유미죽을 공양한 수자타였다.

부처는 '음식의 적당한 섭취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에 생길 수 있는 즐거움은 감각적 쾌락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험은 불선법(不善法)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음식의 적당한 섭취는 깨달음을 얻는 데 이바지하지만 음식 섭취의 양을 과도하게 축소하게 되면 육체적·정신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기 음식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빨리어 율장부터 근본설일체유부 율장에 이르기까지 음식과 관련된 율장을 살핀 3장부터 5장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식육 금지는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다. 실제 빨리어 문헌에는 '삼종정육(三種淨肉)'이라 불리는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불교 수행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식육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대승불교에 와서 이뤄진다.

다만 초기불교 당시에도 십종육(十種肉, 사람·코끼리·말·개·뱀·사자·호랑이·표범·곰·하이에나)이라는 금지된 동물들이 있었다. 저자는 십종육 같은 금지 조항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봤다. 코끼리와 말의 경우 당시 인도에서 왕권을 상징했던 동물이었으며, 개는 혐오스런 동물로 인식됐다.

또한 초기불교 당시 우유 등 유제품은 허용됐으나, 대승불교 경전 〈능엄경〉에서는 유제품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인도·중국 간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음식 금지 등의 계율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 재가 사회의 인식이 계율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면서 "또한 빨리어 율장과 각 불교 부파 계율의 동일 조항, 대승불교 문헌 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2,600여 년의 시간 동안 당시·당처의 시각에 영향을 받으며 계율의 내용이 변화했음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야불교 전래와 남방 가능성 고찰

東亞불교학회, 10일 학술대회

가야불교가 남방을 통해 전래됐을 가능성을 고찰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이찬훈)는 3월 10일 가야대 대강당에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를 위한 해양문화교류와 불교전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남아시아 국가 내 타밀족 불교의 중요성(판니어셀밤, 인도 마드라스대) △가락국과 아유타국의 해양문화교류 가능성-파사석탑을 중심으로 (이거룡, 선문대) △고대 해양 실크로드와 말레이반도 (황순일, 동국대) △불교의 한국전파와 동아시아 해양문화 전파경로 (석길암, 동국대)로 진행된다. 논평은 이지은(한국외대), 한지연(금강대), 장재진(동명대), 강대현(위덕대) 교수가 맡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가야불교문화진흥원과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세 번째 학술대회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가야불교에 대해서 중국 북방전래가 아닌 해양을 통한 남방 전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것이 입증되면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의 교류사를 다시 되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日 보물창고엔 무엇이 있을까

국립문화재硏, 7일 정창원 소장 유물 국제심포지엄

"국내 알려지지 않은

정창원 유물 연구 지속"

일본 천왕가의 보물창고로 알려진 정창원(正倉院)의 소장 문화재 현황과 역사 속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3월 7일 오전 10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서 '정창원 소장 한반도 유물-정창원을 통해 밝혀지는 백제·통일신라의 비밀'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창원'은 원래 창고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현재는 일본 동대사(東大寺)의 정창원(正倉院)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특별한 창고의 유래는 756년에 세상을 떠난 쇼무(聖武)천왕의 49재에 명복을 빌기 위해 그의 비인 고묘왕후가 왕의 보물들을 동대사 대불에 헌납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후 왕실이나 귀족들이 헌납한 보물과 동대사의 불교용품들이 추가됐으나 일부는 소실되어 현재는 약 9,000여 점이 전해지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창원에 있는 백제와 통일신라 문화재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제 논문으로는 △'정창원 금속공예의 연구현황과 과제(최응천, 동국대)' △'정창원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를 통해 본 신라 물품 교역(박남수, 신라사학회)' △'정창원 소장 한반도 유물(나이토 사카에, 나라국립박물관)' △'정창원의 칠공(漆工) 기법(이난희, 국립민속박물관)' △'정창원 소장 〈화엄경론질〉과 심상(審祥)이 들여온 신라 사경(히가사 이츠토, 나라박물관)' △'백제와 일본 정창원 소장품(신숙, 한국전통문화대)' 등이 준비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국내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정창원 소장품의 한반도 유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행선사 생사관, 삶·죽음 회통 이끌어"

박훈 연구원, 2월 28일

생사학 심포지엄서 주장

主人空, 선사 생명관 근본

'영원한 나' 사는 길 열어

주인공 관법, 生死一如 실천



한마음선원 창건주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생사관을 생사학(生死學)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박훈 생사학아카데미 연구원〈사진〉은 2월 28일 치유협동조합 마음애터 생사학아카데미가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강당서 주최한 생사학 심포지엄에서 '대행선사의 생사관으로 본 삶의 지혜'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의 석사 논문 주제이기도 한 발표 논문은 대행 선사의 사상에 내재된 생사관과 수행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그는 대행 선사의 생명관 중심에는 '주인공(主人空)' 사상이 있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대행 선사는 우리의 육신, 의식 그리고 의지가 뿌리인 참나에서 나타난 싹, 잎사귀, 가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며 "불성은 곧 선사가 설파한 주인공이며 이는 생명의 근본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행 선사의 죽음관은 선사가 자주 강조했던 '육신은 옷'이라는 개념서 찾았다. '죽는다는 것은 헌옷을 벗고 새옷을 갈아입는 것이며 생명의 근본인 주인공이 옷 한번 갈아입는다'게 대행 선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선사는 죽음이라는 것은 윤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설한다"며 "이는 불교의 생사관인 생사불이(生死不二)를 확연히 드러내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사의 죽음 수행론으로서 '주인공 관법'을 조명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자신의 근본이자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거기다 맡겨 놓고 오로지 관하라는 것이 대행 선사가 주장하는 죽음수행론"이라며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우리 근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구심점으로 주인공이라는 수행 기반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 생사관은 불교의 생사관을 현대인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생사관"이라며 "이는 현대인에게 외면되고 부정되는 죽음에 대해 다시 사유할 수 있는 장이 되고 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사별경험에서 성장과정(양준석)', '생명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김아리)' 등의 연구 논문도 함께 발표됐으며, 이찬수(평화통일연구소 교수), 임병식(싸나톨로지 회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교학, 현대적 응용 어떻게?

불교학연구회, 10일 논문발표회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은 3월 10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충무로 영상센터 227호에서 '불교교학과 현대적 응용'을 주제로 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유정 스님(봉녕사율학승가대학원)의 '이부승제도와 식자마나교육의 중요성' △정상교(동국대 경주)의 '심즉아를 주장한 푸드갈라론자' △정현주(전남대)의 〈유식 20론〉에서 유식무경의 인지과학적 해명' △장성우(동국대)의 '〈본생경〉에 나타난 기업의 윤리경영' △정희경(동국대)의 '보조 지눌의 선교겸수설 재검토'가 각각 발표된다.

논평으로는 이자랑(동국대), 김응철(중앙승가대), 이필원(동국대), 최경아(울산대), 안환기(서울대), 김치온(진각대학원), 김한상(한국외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박재완의 PhotoEssay



해제(解制)

아침은 해가 열어주고
저녁은 달이 열어주고
길은 또 바뀐 계절이 열어준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가야 할 길이 생기고
길은 또 단단한데
꽃들은 법문처럼 돋아난다

어제까지 누구보다 간절하였으나
이제 멀어지는 산새소리 들려온다
들려오는 것이 옳은가
멀어지는 것이 옳은가

아침을 또 해가 열고
저녁을 또 달이 열면
언젠가 또 계절이 길을 열 텐데
길은 또 단단할 텐데



성낙윤의 불교매듭

⑤ 매듭을 이용한 작품

생활에 활용된 매듭 공예



매듭을 이용한 장신구들

매듭의 기원은 인류가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점차 발달해왔다고 볼 수 있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장식성을 띠게 됐다. 생활의 발달과 함께 그 형식과 내용도 점차 발전하여, 의복의 단추 · 도포끈 · 여인들의 노리개 · 부채의 선추(扇錘) · 관복의 후수(後綬) 등 복식류를 비롯하여 가마 · 상여 · 영정 · 족자 등 생활의 여러 부분에 걸쳐 매듭이 활용되어왔다.

도래매듭에서 장고매듭까지 그 동안 배운 매듭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연출할 수 있는 장신구를 만들어본다. 대표적인 장신구에 속하는 노리개와 목걸이를 만들어본다.



손수 버선 노리개(홍색)

〈1〉 손수 버선 노리개

1. 노리개실 2cm를 반으로 접어 6cm 띠고 도래매듭을 두 번하고
2. 생쪽매듭을 한 번 하고 도래매듭을 두 번 한다.
3. 생쪽매듭을 한 번 하고 도래매듭을 두 번 하고
4. 버선을 끼운다.(코바늘 이용) 이 때 실 양끝을 잡고 실 중앙 속에 있는 싱(흰색)을 3cm즘 빼서 잘라버려야 실 끝이 얇아져서 실을 빼기가 수월하다. 아니면 실이 뻣뻣해서 버선이나 소재를 끼우기 어렵다.
5. 도래매듭을 두 번 하고
6. 장고매듭을 한 번 한다.
7. 도래매듭을 두 번하고
8. 한 가닥에 하나 씩 구슬을 끼우고
9. 3cm 띠우고 정리해서 끝에는 접착제를 바른다.(풀리지 않게 묶어도 된다.)

*바느질 후에는 다림질로 마무리를 하는데 매듭은 김을 쏘여 마무리한다. 얽혀있는 털실을 정리할 때처럼 주전자에 물을 끓여 매듭에 쏘이면 매듭이 풀어지지 않고 고르게 펴진다.

신발이나 버선은 몸을 담는 것이라 매우 중요한 것으로 꿈에 신발을 사거나 신으면 장원급제를 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물건으로 상징된다. 돌쟁이 여자 아이들의 노리개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가방이나 소지품에 이용해도 좋고 가구나 방문에 달기도 한다.



손수 버선 노리개(청색)

〈2〉 도래매듭을 이용한 목걸이

1. 노리개실 3cm를 반으로 잘라서 두 가닥을 만들어 목걸이 소재에 두 가닥을 끼운다. 이 때 실 네 가닥의 끝을 잡고 실의 중앙에 있는 싱(흰 실)을 3cm쯤 잡아 빼서 잘라버리고 실 끝을 훑으면 실이 부드러워져서 코바늘에 잘 걸린다.
2. 소재를 중앙에 놓아 중심을 잡고 한 쪽 두 가닥은 풀리지 않게 묶어놓고 한 쪽에서 시작한다. 도래매듭 한 번, 구슬 끼고, 도래매듭 한 번 하고
3. 5cm 띠고 도래매듭 두 번, 구슬 기고 도래매듭 두 번 한다.
4. 6cm 띠고 도래매듭 다섯 번 한다.
5. 6cm 띠고 도래매듭 세 번, 10cm 띠고 도래매듭 두 번 하고
6. 2cm 띠고 실 한 가닥씩 잡고 외도래매듭이나 묶음매듭을 하여 끝을 내고
7. 나머지 한 쪽도 반복한다. 실 끝에 접착제를 바르고 김을 쏘여 마무리 한다.



도래매듭 이용한 목걸이

〈3〉 도래매듭과 생쪽매듭을 이용한 밀화목걸이

1. 노리개실 4.5m 중 2.5m를 자르면 2m가 남는다.
2. 2.5m를 반으로 접어 0.5cm 띠고 도래매듭 두 번, 장고매듭 한 번, 도래매듭 두 번 하고
3. 소재 끼워서 빼낸 실에 도래매듭 한 번 하고, 나머지 2m의 실을 반으로 접어서 도래듭 위에 얹어
4. 오른쪽부터 도래매듭을 세 번 한다.(남은 두 가닥 실은 풀리지 않게 묶는다.)
5. 6.5cm 띠고 도래매듭 네 번 하고 생쪽매듭 한 번, 도래매듭 네 번 하고
6. 6cm 띠고 도래 일곱 너 하고, 5cm 띠고 도래매듭 다섯 번 하고
7. 6.5cm 띠고 도래매듭 두 번, 3cm 띠고 도래매듭 한 번 한 후에 구슬을 끼우고 반대방향도 양쪽 모두 끼운다.(3cm 남기고)
8. 나머지 실로 밑의 두 가닥 실도 싸잡아서 함께 도래매듭을 두 번 한다. 반대쪽도 똑같이 한다. 남은 실은 바짝 잘라서 접착제를 바르고 김을 쏘여 정리한다.



도래 · 생쪽매듭 이용한 밀화목걸이

빙의치유(귀신들림)
상담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 목매어, 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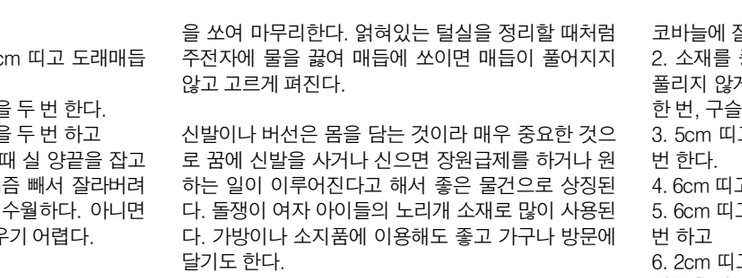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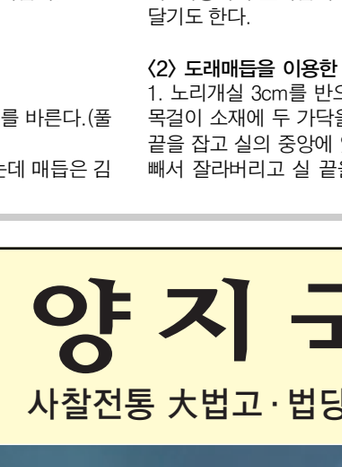
상 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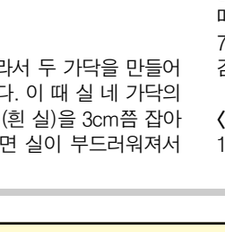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양지국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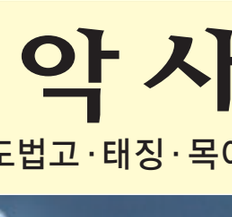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태징



◀ 대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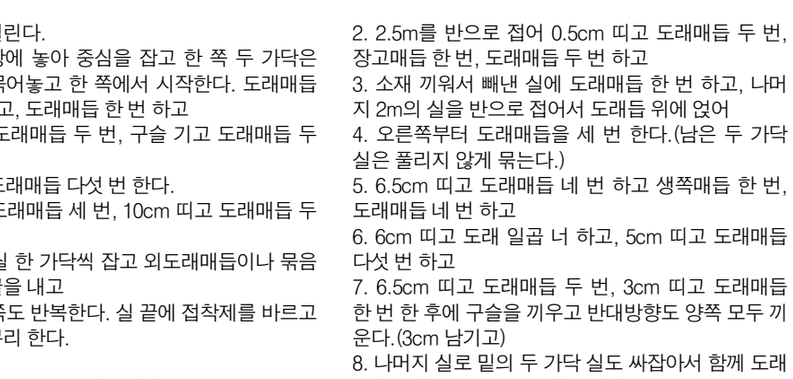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YESGOOD.CO.LTD

성지순례는 역시 마하연 입니다!

미얀마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한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부처님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인도네팔 "품격 성지순례" 출발 확정!

인도성지순례의 정석,
마하연과 하면 역시 다릅니다.

신비스러운 불교왕국 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티베트 8일 성지순례
하늘길 칭짱열차 체험
인천-서안-라싸-암드록초-장체-시가체-라싸-칭짱열차-서안-인천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4대불산 중국 대만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북경-운강석굴-오대산-석가장 5일
구채구-아미산-황룡 6일
구화산-낙가산-보타산 5일
백두산(북파+서파)-고구려유적지 압록강유람선6일
대만
불광사 공승 대법회(4박5일)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5박6일
성지순례와 휴양을 동시에
족자카르타-발리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스리랑카 6일
유통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콜롬보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